

－ 차 례 －

- 토토의 꿈 양희창 선생님..... 3
- 추카, 축하합니다 태영철 선생님..... 4

<졸업 작품 및 논문>

1. 흥채 안에 흑백피사체 김강산(지도교사 오필선)..... 7
2. 특수 분장의 세계와 실습을 통한 체험 오보록(지도교사 이임주)..... 19
3.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 만들기 안지은, 배이삭(지도교사 김병삼)..... 37
4. New Age Music의 사탄성의 대한 연구 김슬기(지도교사 오필선)..... 63
5. 간디company 모델개발을 위한 기초적 연구 ... 하태우(지도교사 양희창)..... 79
6. 일상속의 폐품을 이용한 실용미술 함경우(지도교사 오영란)..... 91
7. 간디학교를 배경으로 한 허브 이용법 라윤하(지도교사 김현숙)..... 103
8. 체질로 알아본 간디학교 학생들의 성향과 간디학교의 성향비교
..... 김난슬(지도교사 양희창)..... 123

9. 천동설과 지동설 시대 연표에 따른 생활 모습 비교	
..... 김한솔(지도교사 이임주).....	153
10. 향토음식이 우리에게 준 유익성과 경남 향토음식의 오해, 편견 대해	
..... 윤재형(지도교사 조은주).....	163
11. 간디학교 학생들의 애니메이션의 대한 `의식 조사'	
..... 김보현(지도교사 태영철).....	181
12. 단편영화 제작과 독립영화의 세계	정사랑(지도교사 오피선)..... 193
13. 인도네시아 음식과 우리나라 음식의 비교 ..	권유리(지도교사 손진근)..... 219
■ 재학생 평가	231

토토의 꿈

양희창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책장을 정리하다 빛바랜 논문집을 우연히 발견하곤 창가에 기대앉아 토토의 추억여행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때 그랬었지. 이 글을 쓰려고 그렇게 고민했었지.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이미 머리가 허옇게 세여 있을 뺨들도 조금은 기억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게 되는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했고 여러분의 부모들이 그러했듯 우리는 기억속에서는 영원한 어린 아이이며 그리움을 따라 과거를 비행하는 토토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간디에서 고민하고 배웠던 것들이 고통스럽긴 해도 결국 열매맺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간단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은 심지를 만들어 어두운 세상의 작은 촛불이 될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꿈속에 여러분이 있고 언젠가는 그 꿈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될거라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을 소중히 간직하게 됩니다. 돈과 힘으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거꾸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고, 어렵사리 만든 행복을 이웃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간디인의 탄생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탁월성이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어디에 쏟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자신의 못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토토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과 노동이 온전히 결합되는 참다운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몇 날을 고심하며 밤새워 만들었던 작은 꿈들의 흔적들을 이 작은 노트에서 발견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며 토토의 추억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한 우리는 그 꿈속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추카, 축하합니다

졸업생 담임 태영철

여러분들의 논문집 출간을 축하합니다.

간디에서의 지난 3년을 정리하는 가운데 가장 힘겨운 시간이 바로 이 논문발표가 아니었나합니다. 논문이 원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써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막상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한편의 책으로 엮고 보니 참으로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3학년만큼 간디와 기쁨과 아픔을 함께한 학년도 드물 것입니다. 외송에서 둔철로, 둔철에서 다시 제천으로 캠퍼스만 3군데를 이사했고, 이사할 때마다 왠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야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중학교 해산 조치에 항거한 경남도교육청 시위, 허법공연, 지리산 등반, 섬체험, 연극촌체험, 기말·간탄일 축제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과 사건·사고들이 우리를 스치고 지났습니다. 그리고 최고 학년인 중3이 되고, 말만 들어도 소름끼치는 검정고시를 치르고, 또 그 힘들다는 졸업논문까지 모두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논문집은 역대의 어느 논문집에 비해 손색이 없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최고의 논문집이라고 할 수 있는 면모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보다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투혼은 더욱 빛났습니다. 자신의 논문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으로 몇 일 밤낮을 컴퓨터 앞에 웅크리고 고심하던 모습은 그 유명한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 그대로였습니다. 어찌나 진지하게 몰두했던지 지켜보던 선생님들조차 그 뜨거운 열기에 감히 전산실 주위를 어른거리지 못했던 것입니다!(약간의 과장)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디에서의 3년, 여러분들은 무엇을 뿌렸고 무엇을 거두었는지, 또 앞으로 고등학교에서의 3년, 더 나아가 인생의 30년을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거두어들이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논문집은 여러분의 그러한 질문에 작지만 확실한 해답을 제시할 겁니다. ‘자신이 뿌린 열정의 농도가 과연 어떠한 결실로 나타났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간디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집은 그 역사의 산증인이 되어 책을 펼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다시금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한한 꿈과 희망이 마구마구 펼쳐지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우리 중3들의 논문집 출간을 추카, 축하합니다.

졸업 작품 및 논문

[홍채 안에 흑백피사체]

- 김강산



1987년 서울 출생
유치원 졸업안함, 부곡 제 7회 졸업
취미/특기 주접 (중3 대표 주접)
로마나이트 DJ
D.S.L.(GanDhi Soccer league) 득점왕/우승
<주접 Family>, <주]milk candy[접>, <로마나이트>,
<overecter's>, <구렛나루>, <기숙사 프로젝트> 소속
좌우명 “남들이 필요한 사람이 되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일종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
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삶을 흔적들을 통해 하나 하나씩 엮어 가보려고 한다.
어떤 책에서 읽은 보기가 있다. 그 책에는 삶의 참 맛은 그 아픔 속에서 잠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흔적들을 찾아보았다.”

-본문 중에서...

목차

- 1.내가 이 주제를 택하게 된 동기는?
- 2.사진의 대한 정의
- 3.사진을 찍기 전 배워야 간단히 배워야 될 것
 - (1)렌즈
 - (2)조리개
 - (3)셔터스피드
- 4.촬영 기법

- 5.필름

- 6.흑백 필름의 현상

- 7.나만의 흑백 필름

- 8.내 사진에 대한 서론

- 9.홍채 안의 흑백 피사체

- 결론
- *사진 이런걸 알면서 느낀 점이나 힘들었던 점

- *내가 앞으로 추구하는 사진 세계

- *참고자료

1.내가 이 주제를 택하게 된 동기는?

지금 난 사진을 찍고 있다...

항상 맨날 같은 인물사진, 단체사진, 기념사진 그런 것뿐이다.

손가락 하나만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찍히는..... 그래서 난 뭔가?! 그럴듯한 사진을 색다르게 찍고 싶은 마음과 사물에 대한 표현을 내 뜻과 생각이 표현되게 사진 한 장 속에 담아 보고 싶었다. 또한 손쉬운 셔터만 누르면 되는 자동 카메라보다는 내가 수동으로 작업을 통하여 사진을 찍고 싶어서 사진의 대한 주제를 잡기로 했다.

2.사진의 정의

사진에 대해 정의해보자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 불리 운다.

빛이라는 뜻의 'PHOTO' 와 그린다 의 의미를 가진 'GRAPHY' 가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어

PHOTOGRAPHY 라고 불리우게 된다.

그림에는 연필로 그린 그림, 물감으로 그린 그림, 컴퓨터로 통해 그린 그림 등 그 도구와 방법에 따라 독특한 느낌과 감정을 전달해준다. 사진도 역시 그림의 한가지 이기 때문에 방법과 효과에 있어 매우 독특한 방법이다.

연필, 물감으로는 어두운 방 안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물론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표현 될 뿐이지만... 하지만 사진은 빛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촬영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조그만 한 빛이라도 있어야 하듯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미세한 빛이라도 있어야 한다. 사진이 그 빛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불리 운다.

3.사진을 찍기 전 배워야 할 것

(1)렌즈

방금 말해 듯이 빛이 없으면 카메라도 작업 못하는 것처럼 카메라는 우리 눈과 흡사하다.

그 흡사한 이유는 렌즈 때문인데 렌즈에도 종류가 많다.

우선 제일 대표적인 렌즈부터 설명하겠다.

표준 렌즈

인간의 시각과 제일 비슷한 렌즈이다. 보통 자동차메라에도 많이 쓰이며 솔직한 묘사와 과장감 없이 찍을 수 있으며 초점 조절이 쉬워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표준렌즈의 장점은 조리개의 최대 개방치가 크기 때문에 렌즈

가 밝아 셔터속도를 더 빠르게 하거나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다. 표준렌즈로 광각의 효과 및 망원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가격 또한 저렴하며 구조가 간단하고 무게도 가볍다.

광각 렌즈

표준 렌즈보다 초점 거리가 짧은 렌즈로 좁은 장소나 기둥과 벽 같은 장애물이 있는 경우 넓은 범위를 필름에 담고 싶을 때 유용하다. 광각렌즈는 화각이 표준렌즈보다 넓기 때문에 물체는 작아지며 왜곡이 많이 생기는 단점이 있으나 피사체 심도는 깊어진다. 광각렌즈에서는 가까운 물체는 크게 보이며,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보여 앞 뒤의 원근감이 과장되게 보이게 된다 이것이 이 렌즈의 특징이다.

망원 렌즈

망원렌즈는 초점거리가 필름의 대각선보다 긴 렌즈로 표준렌즈보다 화각의 범위가 좁고 상의 크기는 더 크다. 장 초점 렌즈는 피사체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거나 접근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멀리 있는 피사체를 크게 확대하여 필름에 담고 싶을 때 사용한다. 또한 심도를 얇게 하여 피사체만 초점을 맞게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흐려지게 할 경우에 즉 인물 촬영 시 자주 사용된다.

소프트 렌즈

통상 렌즈는 가능한 샤프하게 찍히도록 설계되어있지만 일부러 부드러운 묘사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소프트렌즈이다.

이 렌즈로 풍경 사진을 찍으면 인상과의 그림처럼 환상적으로 표현이 되며 여성 포트레이트를 찍을 때 리얼하게 묘사가 되지 않아 찍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뿌옇게 나오는것)

마이크로 렌즈

원 거리 쪽의 화질을 중시한 통상렌즈에 대하여 근접 촬영시의 성능을 중요시하여 설계된

것이 마이크로 렌즈다. 최대 촬영배율이 2분에1또는 등배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꽃이나 곤충의 클로즈업 촬영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렌즈다.

(2)셔터스피드

셔터는 단순히 빛을 받아들여 필름에 영상이 맺히게 하는 구실만 가진 것은 아니다. 셔터는 피사체의 움직임을 조절해준다는 데에 보다 의미가 있다. 빠른 셔터는 피사체의 움직임을 고정시켜주고, 느린 셔터는 피사체의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낸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을 고속의 셔터로 찍는다면 달리는 자동차들은 정지한 것처럼 상이 맺힐 것이고 고속도로는 마치 주차장처럼 느껴

질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저속의 셔터 속도로 찍는다면 자동차가 달리는 생동감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셔터는 단순히 피사체의 움직임을 조절해 줄뿐만 아니라 움직임을 시각화해 주기도 한다.

예) 고속촬영 경우 저속촬영의 경우



(3) 조리개

렌즈 안에 있으며 빛이 통과하는 면적을 조절해서 광량을 조절한다. 조리개가 많이 열리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 조리개를 줄이면 빛이 적게 들어온다. 사람 눈으로 볼 때 홍채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조리개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것이 우선의 구실이 되겠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조리개의 보다 중요한 구실은 피사체의 심도를 조절해 준다는 것이다. 즉 사진이 찍히는 범위 안에서 초점이 맞은 부위를 깊게도 얇게도 해 주는 것이 조리개의 구실이다. 조리개를 많이 열어 심도를 얇게 하거나 조리개를 바짝 죄어 심도를 깊게 하면, 셔터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현실 성을 띤다.

4. 촬영기법

촬영 기법에서도 수동과 자동이 차이가 난다. 자동으로도 물론 조금은 표현 할 수 있겠지만 세세한 면까지는 가기는 힘들다. 이런 점에서 난 수동이 좋다.

(1) high 앵글

(High angle)

높은 각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방법이다. 수평 촬영보다도 효과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 의한 것은 객관성이 강하고 설명적인 사진이 된다는 경향이 있다. 로우 앵글의 표현과는 대조적이며 광각 렌즈 사용으로 앵글이 강조된다. 이러면 예서도 수동과 자동 차이가 난다.

인간의 감정으로서 우월감이 표현된다. 눈 높이의 앵글은 인간의 감정으로서 친근감, 동정적인 느낌이 표현된다.

하이 앵글은 자유로이 하늘을 나는 새의 눈이다. 사람은 무한의 가능성에 도전하

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진의 세계에 있어서도 벌레나 새가 되고 싶어진다고 생각한다. 그 호기심이 낯익은 광경에도 새로운 시각이 있다는 것을 발견시키게 될 것이다.

이 방법은 수평촬영과는 다른 효과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위에서 내려다봄으로써 객관성이 강하고 설명적인 사진이 되는 경향이 있다.

(2)low 앵글

(Low angle)

낮은 카메라 위치에서 피사체를 위로 촬영하는 각도를 말한다. 지상을 걷는 벌레의 눈이라고나 할까... 광각 렌즈가 앵글을 강조시킬 수 있으며, 주관이 강한 사진이 표현된다. 로우 앵글은 아래서 위로 보는 각도임으로 배경의 단순화와 생략을 하는 경향이 되므로 인간의 감정으로서는 존경, 감복, 공포 등의 느낌을 표현시킨다.

카메라는 주위만 살피지 말고 위를 보게 되면 그곳에 새로운 시각의 세계가 있는 것이다. 보통 앵글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 보이게 되며 새로운 효과를 포착할 수 있다.

정면에서 똑바로 찍는다는 발상을 버리고 약간 앵글을 바꿈으로써 흥미로운 사진을 만들 수 있다.

고층빌딩을 로우 앵글로 촬영하면 피사체는 실제 보다도 높이 보인다. 카메라를 위로 향해 찍으면 보통 전경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피사체의 높이를 특히 강조시킬 수 있다.

(3)실루엣

실루엣 표현은 역광조건으로 선택해야된다. 피사체를 꽤 까맣게 촬영을 해야하기 때문 이다. 완전히 그림자가 되어 버리게 때문에 피사체의 세세한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하고 피사체의 형태만 강조되기도 한다.

(4)패닝

패닝은 피사체의 이동방향을 따라가면서 찍는 방법이다. 주로 동체촬영에 자주 사용된다. 동체촬영이란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는 경우이다. 찍을 때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겠다고 손만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 손이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몸이 돌아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5)다중촬영

한 장의 필름에 두 번 이상 노광을 주어 겹쳐 찍는 방법을 다중촬영이라고 한다. 다중촬영은 한 장에 두 번 이상 노광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노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아무래도 2번 찍히는 거니 조금씩 부족으로 찍는 것이 좋으며 겹쳐 찍기 때문에 다른 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가로사진과 세로사진

가로 사진

비교적 세로사진보다 안정감이 있다.

정적이며, 온건한 효과를 자아낸다.

풍경사진에서 많이 보아지는 구성이다.

세로 사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쪽으로 뻗어 가는 생동감을 연상케 한다.

동적이며, 보통 인물의 전신상사진에 자주 이용되는 구성이다.

높은 탑이나 빌딩 등을 피사체로 할 경우 이용되는 구성이다.

5. 필름

필름은 사진을 만드는 재료이다. 즉 사진은 필름과 아이디어로 만든다. 이러한 필름의 속성을 알아야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영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필름의 감도 필름이 빛에 감응하는 정도를 말하며, 필름 스피드라고도 하는데, 표시는 ASA 또는 DIN으로 한다. ASA는 감도가 2배가 되면 수치도 2배가 된다. 즉 필름 속도가 빨라진다.

필름의 종류

저감도 필름 ASA 50이나 32 이하의 필름으로 장시간의 노출이 가능한 곳에서의 촬영에 적합하며, 매우 고운 입자로 상이 형성되므로 디테일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고감도 필름보다 밝은 조명조건이 필요하며, 피사체 심도가 얕아지므로 떨림 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하지만 저속셔터에 의한 피사체의 동감표현에 유리하다.

중감도 필름 ASA 100이나 125 정도의 필름으로 저감도 필름보다는 큰 입자로 상이 형성되지만, 비교적 디테일이 좋은 편이며, 보편적인 옥외촬영에 적합하다. 35mm 사이즈의 네가 필름에서 8×10인치 사이즈까지 인화해도 양호한 화질의 프린트가 가능하다.

고감도 필름 ASA 400이나 1600 정도의 필름으로, 감광도가 빨라 실내촬영이나 어두운 곳에서의 촬영에 주로 사용되며, 저감도 필름에 비해 입자가 많이 두드러져 보이므로 상의 디테일이 매우 거칠 게 드러난다. 스트로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과 스포츠 사진처럼 움직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 아주 알맞는 필름이다.

특수 필름 리스필름이나 오토 스크린 필름, 콘튜얼라인 필름, 적외선 필름등이 있으며, 특히 적외선 흑백필름은 맑은 날의 풍경 촬영에 효과적이며, 푸른 하늘이 검은 색으로 표현된다. 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내는 전구나 플레시 벌

브를 사용하면 어둠 속에서도 야간의 동물촬영 등에 아주 효과적인 필름이다.

6. 흑백 필름의 현상 과정과 준비

- 가. 암백이나 암실→암실에서 필름을 감는다. 명실 에서는 암백에서 한다. 이 때 빛은 완벽히 차단해야 한다.
- 나. 현상탱크와 릴→릴에 필름을 감아 현상탱크에 넣어 뚜껑을 닫는다.
- 다. 가위→필름을 자를 때 사용한다.
- 라. 온도계→약품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한다.
- 마. 비이커와 약품-적시기할 물, 필름현상액, 중간정지액, 필름정착액, 정착액 제거액, 포토플로를 담는다.
- 바. 타이머-정확한 시간 측정이 중요하다.
- 사. 수세할 수 있는 물
- 아. 필름건조대→필름에 먼지나 불순물이 묻지 않도록 한다.
- 자. 필름화일→건조된 필름을 잘라 보관한다.

7. 나만의 흑백 필름

흑백필름을 내가 선호하는 이유는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명암과 색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흑백 사진을 통해 사물의 명암, 형태, 빛, 공간과 질감을 느낄 수 있다.

흑백 사진은 물론 디지털 카메라도 할 수 있는 작품이지만 흑백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은은한 매력과 힘을 따라 오기는 벅차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대상과 영상매체를 통해 볼 수 있는 이미지는 대부분 천연색이다. 그래서 그런지 흔한 천연색보단 흑백이란 단조로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흑백사진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 나도 역시 과거를 집착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항상 옛일들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상상 또는 회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흑백에게 더 끌리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8. 내 사진의 주제에 대한 서론

주제...주제가 있으면 부제가 있기 마련이다. 부제도 그만큼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다. 또 주제도 만만치 않았고 너무 광범위하고 난처하기 때문이다.

아직 인생16년 밖에 살지 못한 나에게 너무 벅차진 않은가 생각 해보았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개성시대 아닌가! 자기만의 독특한 주제나 신선한 주제를 찾아보기도 하였다. 나만의 추구하는 사진의 세계는 무엇인가의 추억을 담고있는 사물이나 물건 과거에 집착해 보면서 회상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사진이란 시각적 언어를 통해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좋은 사진이 되었으면 한다. 비록 좋은 사진이란 기준은 없지만 내가 봐서 즐거움을 느낄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홍채 안의 흑백 피사체

이제목이 나의 큰 주제다. 내 주제의 큰 비중은 흑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일종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 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삶을 흔적들을 통해 하나 하나씩 엮어 가보려고 한다. 어떤 책에서 읽은 바가 있다. 그 책에는 삶의 참 맛은 그 아픔 속에서 암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흔적들을 찾아보았다.

그 삶 속에는 '기다림' 이라는 작은 동사가 있다. 그 '기다림'에 대해 또 엮어 보려 한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종종 무언가를 기다리곤 한다. 버스나 전철을 놓쳐서 초조해서 기다리는 일 내가 하나의 물건이 되어 주인을 기다리는 일 등등 내가 찍은 사진들 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베어져 있다. 그 사진에서 나 라는 모습이 심리 적으로 부각되어 있다. 즉 기다림을 난 알기 위해 무언가를 기다리며 그 당시의 심리를 표현 해 찍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느낀다.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간이 필요하다. 물론 그 공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내 사진에서는 삶의 흔적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물론 교도소도 삶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서대문 형무소는 역사의 기록이며 많은 사연과 사람들이 많이 왔다간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아무도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서대문 형무소의 소재는 참 좋다고 느낀다.

두 가지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과 삶의 흔적.... 어떡해 보면 기다림의 표현도 될 수 있다.. 교도소수감자가 풀려나는 날을 기다리는 일 사형 일을 기다리는 일 이런 식으로 말이다. 철문 안 방 안에서 생각해보았다. 내가 수감자라면 어떤 묘사가 떠올릴 수 있을까

하루종일 안에 있으면서 네모난 철문에 있는 빛이 세여 나오는 조그마한 창문 밖에 생각이 안 난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 설명 해왔다. 지금부터는 같이 공감할 했으면 한다. 내 사진을 통해 내가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결론

(내가 앞으로 추구하는 흑백 사진 또는 사진 찍으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느낀 점)

느낀 점

사진을 찍는다.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가 한 하루에 4~5 롤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사진을 찍는 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었다. 여태 내가 찍은 사진은 사진을 찍는 당연한 장소여서 인지 그런 낯선 시선들은 의식하지도 못했다. 사진 찍는 것도 힘드니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말인 것 같았다. 그런 시선뿐만이 아니었다. 처음 내가 생각하고 찍는 사진 이어서 인지 특별한 피사체를 나는 원했었다. 그래야만 좋은 사진을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 상태를 소재주의에 빠졌다고 말한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자기다움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결국 그 날 난 한 롤에 필름도 찍지 못했다. 그 후로 내 눈이 달라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하였다. 어떤 사물을 봐도 카메라 구도가 잡히는 등 아주 자세히 들려다 보게 된다. 난 사진이란 특별한 언어가 내 머리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좋았었다. 나한테 모든 게 색다르게 왔고 즐길 수 있었다. 필름

의 인화 할 때도 사진을 현상 할 때도 그 기분은 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내가 정성을 기울여 사진을 찍고 필름 현상!! 거기다 인화까지 했으니 말이다. 아무리 못 찍은 사진이었어도 나한테는 빛이 나는 사진이었다. 인화나 현상 얘기가 나오니 느껴지는 것이 있다.

나는 암실이 좋았다 비록 아무 빛이 없어 안보이지만 그런 점이 좋았다. 그곳에서 많은 생각도 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다. 아무리 누가 쳐다보아도 별로 신경을 안 쓴다.

땃땃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동안 너무 한심스러운 것 같았다. 내 주장도 표현 못하는 바보가 아니었을까? 하는 지금은 그런 생각은 아이에 하지도 않는다. 자기 만족으로 사람들은 살아간다는데 그 만족 마저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만 끌려 다니는 실없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른다. 이 사진이란 경험을 통해 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난 이 논문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이 노란 문짝처럼 튀게 살고 싶다.

내가 앞으로 추구하는 사진

어! 이사진재미가 있네.... 라는 말이 나오길 나는 원하고 싶다. 아무래도 사진은 시각적 언어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닌가.. 그래서 난 사진 속의 특별한 주인공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그것을 이용해 사진을 재미있게 만들고 알차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딱딱 한 사진 그러한 사진은 싫다. 틀에 맞춰 찍는 사진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원하는 사진에는 한 장 한 장 속에 이야기가 있어야 하며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사진. 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앵글을 통해 빛 쳐진 모습들이 아름답게만 보이면 안 된다. 그럼 재미가 없지 않은가 만화에서도 악당이 있듯이 웃고 아름다운 사진만 있는게 아니라 반대의 소재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야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리얼리즘 사진을 찍는 다는게 아니다.

리얼리즘 사진도 물론 좋은 작품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 사진들은 비참한 현실들을 다루는 사진들만 있는 것 같다는 내 생각이다. 그런 비참한 현실을 사진들은 과거를 회상하여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사회도 이렇구나...'혹은 사회에 나쁜 영향도 끼칠 우려가 있다. 이걸 언제까지나 내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바램은 사진 작업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그 즐거움으로 잘 살아 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자료

책: 수많은 '나'들:시선의 권력

종이거울 속에 슬픈 얼굴

[특수 분장의 세계와 실습을 통한 체험]

— 오보록



1987년 10월 19일 출생
간디학교 학생회장
우수논문상 수상
별명 로꾸
취미/특기 책읽기, 십자수, 운동
좌우명 “인생을 즐기자”
<2002년 간디학교 학생회> 소속

“평소 중학생할 내내 연극이나 영화를 볼 기회가 많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분장이란 요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장의 종류는 굉장히
많았지만 특수 분장이라는 것이 다른 분장과는 다르게 괴물이나 공포 분위기 등을 사실감
있게 표현했고, 색다른 것이라는 점에 더 흥미가 느껴지고 새로웠다.”

-본문 중에서...

❀목차❀

1. 특수분장을 논문주제로 하게 된 동기&목적

2. 특수분장이란?

(1) 쓰이는 분야

(2) 특수분장의 효과

(3) 발전과정

3. 특수분장의 예

(1) 분장용품과 재료들, 도구들...

(2) 분장의 예

4. 직업으로서의 특수분장사의 전망

5. 논문을 끝내고 나의 느낌..

부록: 실습과정 보고서

1. 특수분장을 논문으로 쓰게 된 동기&목적

평소 중학생할 내내 연극이나 영화를 볼 기회가 많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분장이란 요소가 꼭 필요하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장의 종류는 굉장히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수분장 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다른 분장과는 다르게 괴물이나 공포 분위기 등 특이한 것들을 정말 사실감 있게 표현했고, 색다른 것이라는 점에 더 흥미가 느껴지고 새로웠다. 특수분장이란 무엇이고, 기본 바탕을 토대로 특수분장의 몇 가지를 내가 직접 실습해 보고자 한다. 수많은 직업들 중에 특수분장사 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맞춰진 틀이 없이 자신의 상상력 등으로 무궁무진 한 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직업의 매력인 것 같다. 이 기회를 통해 특수분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2. 특수분장이란?

특수분장이란(special make-up)이란 특수약품이나 폼라텍스, 도랑 등 화학 물질로 입체적인 분장을 하거나 동물 모습 등으로 분장 하는 기법으로 1988년 <지킬박사와 미스 하이드>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정확히 극의 분위기나 사건을 위해 인위적으로 가해지는 형상의 변화를 일컫는 말로, <미세스 아웃파이어>에서 로빈 윌리엄스 가 할머니로 분장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해 가 빠를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형상이나 그 대상을 표현함으로써 작품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분장 내적인 측면에서는 조각가의 손놀림과 화가의 색감이 필요하며 분장의 외적으로는 미술, 조명, 촬영, 특수효과, 컴퓨터그래픽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들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대본에 나오는 배역 인물로 분장 할수있는 것이다. 특수분장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 ①모사적 분장: A라는 배우를 B라는 역사적 실존 인물로 매우 흡사하게 분장할 경우의 패턴을 말하고
- ②사실적 분장: 20대의 배우를 80대의 노인으로 분장시킬 때 사실감을 살려 진짜 노인같이 분장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 ③공상적 분장: 말 그대로 ET 라든지 몬스터 와 같은 상상 속의 모습을 디자인 하여 그것을 가시화 시켜 주는 작업을 이르는 말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분장은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때이지만, 아직까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1) 특수분장이 쓰이는 분야.

특수분장은 흔히 영화에서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
몇 가지 로 예를 들자면 은행나무 침대, 쉬리, 혹성탈출 을 뽑을 수 있다.
쉬리 에서는 북한 여자 첩보요원이 자폭해 몸이 터지는 효과,
엔딩장면 에서는 이방회 가 총에 맞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다.
혹성탈출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고릴라들이 다 사람 위에다가 특수분장을 한 것이다.
그리고는 연극이나 드라마, CF를 통해서도 볼 수있다.

2)효과

일반 분장처럼 색이나 명암위주로 캐릭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재료를 사용해 시청자나 관객이 더욱 사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수분장의 효과이다. 입체감을 나타내어 캐릭터를 표현하거나 배우가 직접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20대의 젊은이를80대의 노인으로 또는 괴물, 칼에 맞는 장면, 썩어 문들 어진 시체 등등을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서 그 영화를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3)발전 과정

특수분장은 영화의 초창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중요한 분야임에 틀림없다. 초창기에는 가면을 쓰는 조악한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에 와서는 실제와 구별하기 힘들만큼 수준이 발전했다.

대개 사람의 얼굴이나 시체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1988년 <지킬박사와 미스 하이드>에서 부터 시작되었으며, <스타워즈>시리즈는 특수분장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인 작품이다.

3. 특수분장의 예

(1) 분장용품과 재료들, 도구들...

1. 기본 분장용품

- 1) 파운데이션-스틱형, 크림형, 리퀴드형
- 2) 파우더-흰색, 기본색, 밝은색, 어두운색
- 3) 칼라펜슬
- 4) 라이닝칼라(유성), 아쿠아 칼라(수성)
- 5) Face color
- 6) 립스틱
- 7) 브러쉬
- 8) 퍼프
- 9) 그외... 화장솜, 면봉, 아이레쉬 컬러, 드라이보(컷트보), 속눈썹.....

2. 특수분장 재료

- 1) 라텍스(latex): 암모니아수에 생강을 유화 시킨 보통의 공업용 라텍스와 분장용 라텍스 등 종류는 다양하다.
분장에 있어 라텍스는 매우 유용한 제품으로 주름이나 얼굴형을 변형시키는데 필요한 재료이다.

2) 석고

3) 알지네트(치과용)

- 4) 더마왁스(DERMA WAX): 얼굴 부분을 변형시키기 위한 소프트 왁스

5) 인조피(BLOOD PAINT)

- 6) 노즈퍼티(NOSE PUTTY): 코와 얼굴의 뼈가 있는 부분에 사용한다.

- 7) 탈지면 : 스피리트짐에 라텍스를 배합하여 얼굴을 변형 시킬때 사용

- 8) 스피리트짐: 접착제로 99% 주정알콜에 소나무액을 용해시키면 된다.

- 9) 찰흙, 찰흙칼

- 10) 바세린 11) 글리세린 : 땀 효과낼 때 , 진물, 상처분장

3. 분장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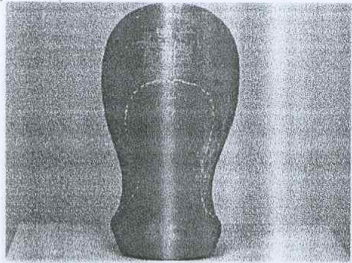
브러쉬세트, 염색술, 가위, 빗, 족집게, 핀셋, 나무주걱, 헤어드라이어, 거울, 분첩, 물담을 용기, 비닐 랩, 빨대, 샌드 퍼이퍼, 미용장갑, 망치

(2) 분장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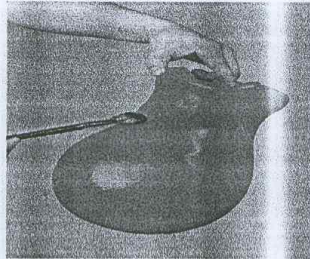
※ 볼드캡

1. 볼드캡 제작과정

재료 - 글라잔, MEK(희석제)
팬브리쉬, 종이컵, 드라이기,
BABY POW-DER,
분첩, 솔, 플라스틱 두상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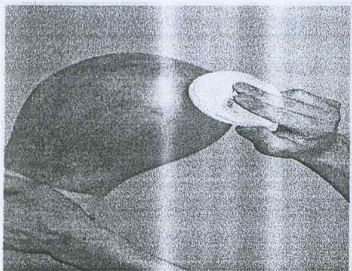
모델의 두상크기를 확인하여 펜슬로 표시하여 둔다.



붓에 글라잔이 흐르지 않도록 적당량을 묻혀 플라스틱 두상 가장자리에 중앙으로 쓸어 내리며 발라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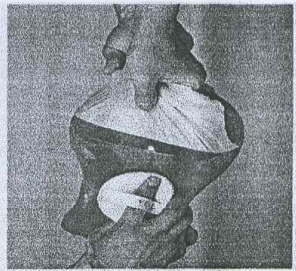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4~6회 반복작업하여 말린다.(두께는 조정 이가능함) 매회 분을 바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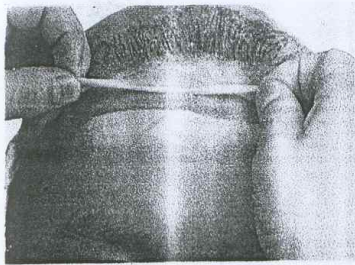
완전히 마른 후 충분한 파우더 처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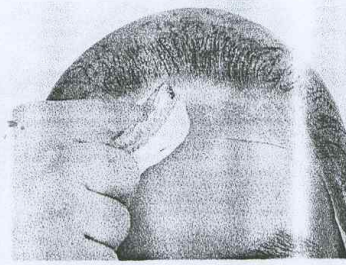
목뒤부분 가장 자리부터 서서히 떼어 낸다. 충분한 파우더 처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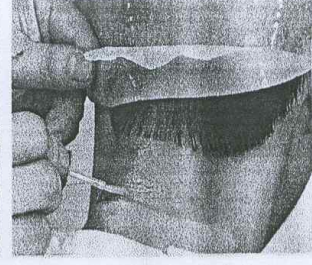
볼드캡이 늘어나지 않도록 서서히 분을 바르면서 벗겨 낸다.



한번 붙였다 뗐다 반복하여
접착력을 키워 준다.



붙인 다음 물 묻은 가제수건을
이용하여 눌러 접착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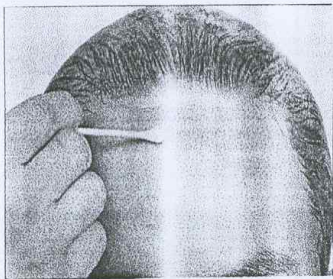
부분의 작업(이마 접착때와
같이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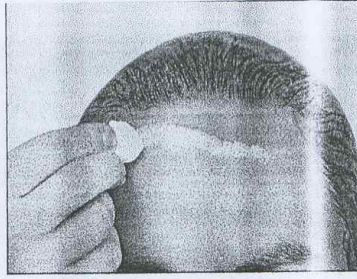
좌우 귀 모양 부분의 작업



1차 완성된 모습



면봉에 아세톤을 묻혀 가장자리
부분의 선을 녹여 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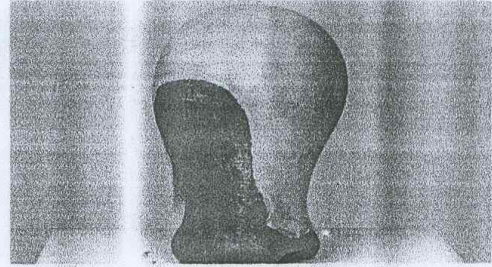
듀오 라텍스를 스폰지 에 묻혀
가장자리 부분을 더 발라준다.



드라이로 말려 준다.



분을 완벽하게 바르고 늘어짐이 없는지 확인한다.



완성된 모습(구겨짐 없이 보관한다.)

2. 볼드캡 착용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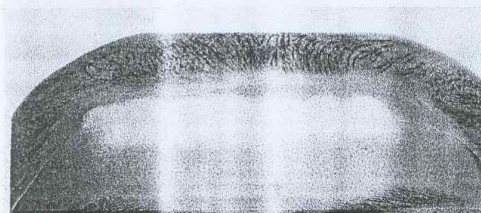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여 올백으로 머리를 바짝 붙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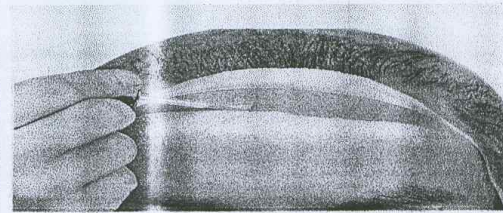
알코올을 탈지면에 묻혀 접착부분의 피부를 닦아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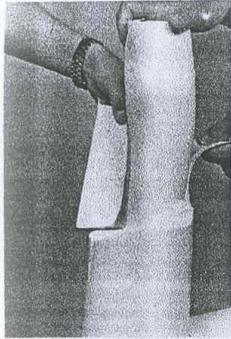
볼드캡을 씌운 후 볼드캡이 두상에 잘 맞았나 확인 후 헤어 라인을 중심으로 디자인하여 자른다. 귀 부위는 귀바퀴 안쪽으로 약 **1cm**정도 자른다.



밝은 색 파우더를 경계부분에 칠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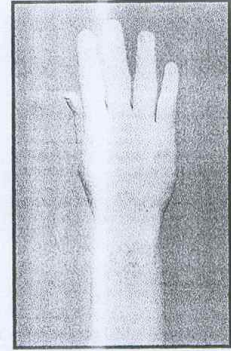
표시된 라인을 따라 스프리검을 칠해준다.



석고가 굳으면 알지네이
트를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석고 굳는 시간은 40~60분)



손가락 부위는 특히 조심
스럽게 분리해 낸다.
(손칼을 이용한다.)



석고 표면을 세밀하게
다듬은 후의 모습

※라텍스를 이용한 노역 분장

1. 라텍스 주름분장을 하기 전에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늙어 간다. 이것이 곧 인간의 삶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은 저마다의 환경과 성격, 직업, 건강상태 등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의 차이점을 정확히 분석해 대본에 나오는 대로 인물의 성격을 확실히 표출해 낸다는 것은 많은 연습과 훈련경험이 필요하며 그 외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첫째, 특수재료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충분한 재료 확보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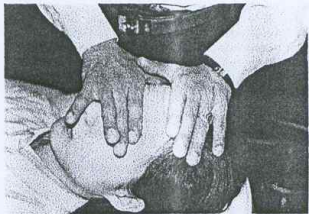
둘째, 모델의 얼굴 피부상태를 알아야 하며 인내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셋째, 분장사 3인이 있어야 하며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넷째, 주위가 산만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밝은 곳에서 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연출, 카메라, 조명, 의상, 소품 등의 스탭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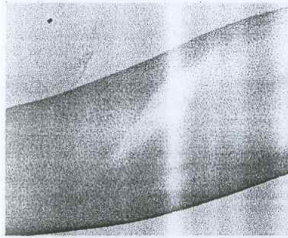
2. 주름 라텍스 순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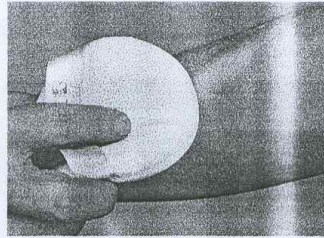


(2) 분장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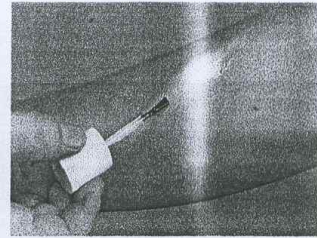
※칼에 베인 상처



플라스토를 원하는 상처의 크기에 따라 펴 바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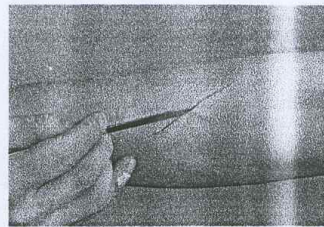
경계선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분을 바른다음 털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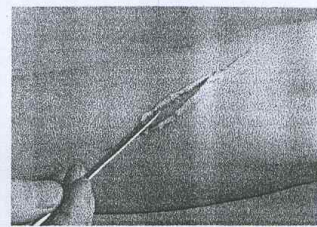
실러를 얇게 고루 바른다. 실러는 플라스토를 보호하는 코팅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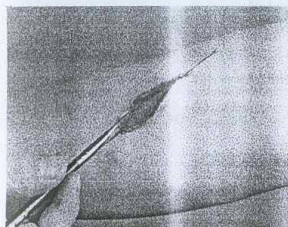
분을 바른다음 털어내고 T.P.M을 소량씩 바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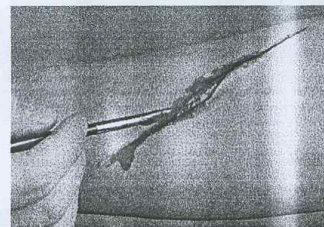
헤라를 사용하여 원하는 칼자국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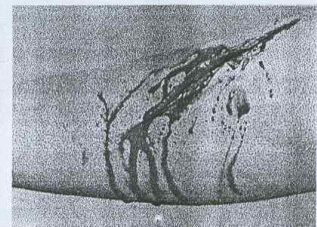
상처의 크기를 만든다.



붉은색의 라이닝칼라를 상처 안쪽과 가장자리에 바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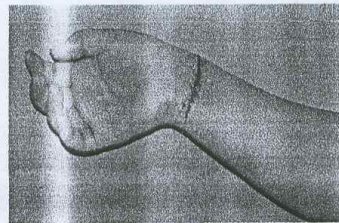
붓을 사용하여 뒀피를 상처속에 바른다.



상처 주위는 뒀은 피를 사용하여 흘러내리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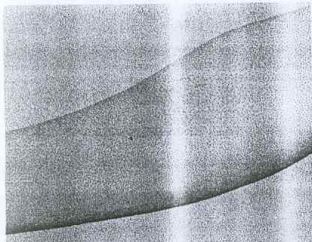
목 부위에 플라스토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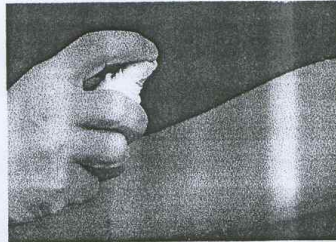
프라스토, 실러, 피를 사용하여 분장함.

※ 화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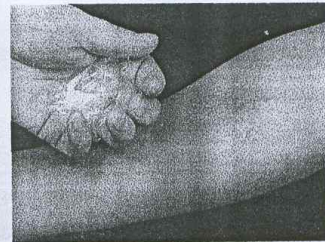
- 재 료 : 오브라이트(약국에서 쉽게 구할수 있다.) 물 스프레이, 헤라, 라이닝 칼라,
· 각 라이닝붓(2~3개), 콜드크림, 클리세린, 피약간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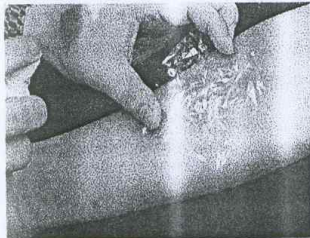
베이스 처리후 붉은 도량을 사용하여 얇게 펴 바른다.
1도 화상 정도가 될수있다.



화상부위에 물을 분무하여 물방울이 맺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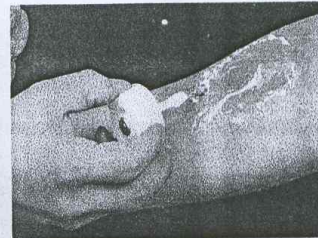
오브라이트(약을 싸서 먹는)를 손안에 2~3장 넣어 구겨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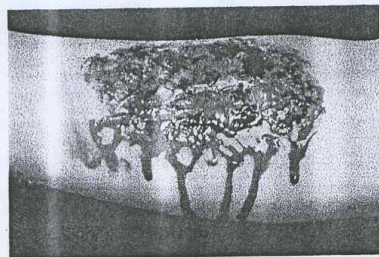
오브라이트를 적당히 편 다음 물을 오브라이트 가장자리부터 먼저 분사하여 녹여 내준다.



화상부위에 크고 작은 수포가 생기도록 만들어 준다.



오브라이트는 마르면 떨어지는 성질이 있으므로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가장자리에 라텍스를 발라준다.



먼저 인조피를 바른다음 검정 안료나 숯가루를 부분적으로 눌러준다.
촬영 현장일 경우 물을 조금씩 뿌려주면 현실감이 더 난다.



뜨거운 물에 덴 화상, 스킨젤 사용

4. 직업으로서의 특수분장사의 전망

영화, 방송, 잡지 등 보여지는 대상의 첫 이미지를 디자인 하는 사람이 바로 분장사. 즉, 관객과 제일 먼저 만나는 배우들의 얼굴과 이미지를 총괄하는데, 뷰티 메이크업, 분장, 특수분장이 이에 포함된다.

특수분장사는 영화의 장르가 다양화되면서 주로 SF, 오락, 환타지, 액션 장르 등에서 비주얼을 만들어 낸다. 한가지 어려운 점은 추상적이고 글로써 밖에 표현이 안되는 이미지만을 가지고 형상화, 시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면서 무섭진 않은데 징그러운 괴물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감독이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실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해답이 없으므로 오히려

무궁무진 한 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직업의 매력이다.

5. 논문을 끝내고서...

논문 주제를 특수분장이라 정하고 자료를 찾아보니 아직 특수분장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더더욱 우리 나라에 소개되어 영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짧다 보니 그에 대한 연구 서적이 불과 몇권 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가 짧은데 비해서 우리 나라 영화를 보면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표현방법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다른 분야와의 연계(예를 들면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를 통해서 인간의 상상력을 펼친다면 그 표현 방법은 너무나도 무궁무진 하게 열려져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연극이나 영화 분야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관객들에게 보여지게 될지 그 발전과정을 지켜 보는 것도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특수분장사" 인데, 분장하는 과정을 자료에서 보니까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체력과, 인내심, 도전성, 대담성, 무궁무진 한 창의력 등 갖추어 져야 하는 것들이 많았다.

특수분장사도 그렇지만 어떠한 직업이든지 간에 인내심과 노력은 개인이 갖추어야 할 꼭 필요한 공통적인 요소인 것 같다.

중학교 생활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하고

탐색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나에게 있어 소중한 경험이 되어준 것 같다.

*참고자료

서 적 : 분장의 세계

저자:이상훈, 장병인

출판사:고문사

출판년월(초판) : 2000년08월15일

황현규의 분장이야기

저자:황현규

출판사: 넥서스(+인터북스)

출판년월(초판) : 2000년12월23일

인터넷 : www.spmake-up.co.kr

www.sfxman.com (매직헌터)

www.koreamakeup.co.kr (한국분장)

실습을 해보고 나의 느낌..

전문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단지 책에 나온 설명만 보고
분장을 하려니 어려운 점이 많았다.

각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다루어야 하는지 등

내가 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들어 온갖 사이트를 들어가

질문도 하고 확인도 하다보니 다행이도 내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재료를 구할 때도 어려웠다.

특수분장이라는 것이 아직 전문화가 되지 않아서인지 재료를 구입하는 곳도
흔하지 않았다.

수소문 끝에 압구정동 까지 가서 재료를 구입했다.

내가 해 보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라 재료들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료 값이 만만치 않았다.

특수분장에 대해 논문을 쓰다 보니 영화를 볼때 "어떤 효과를 썼군아!"

하는 눈 높이도 생긴 것 같다.

내가 해 보는 분장은 실제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쉽게 접해본 것들이라

나도 할 수있는 분장들이 나올 때에는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진다.

이 기회를 통해서 특수분장을 내가 실제로 해본 것이 내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경험이
였다.

실습과정 보고서

(1)분장용품과 재료, 도구들..

1.기본 분장용품

- 1)파운데이션-스틱형,크림형, 리퀴드형
- 2)파우더-흰색, 기본색, 밝은색, 어두운색
- 3)칼라펜슬
- 4)라이닝칼라(유성), 아쿠아 칼라(수성)
- 5)Face color
- 6)립스틱
- 7)브러쉬
- 8)피프
- 9)그외... 화장솜, 면봉, 아이래쉬 킬러, 드라이보(컷트보), 속눈썹.....

2.특수분장 재료

- 1)라텍스(latex): 암모니아수에 생강을 유화 시킨 보통의 공업용 라텍스와 분장용 라텍스 등 종류는 다양하다.
분장에 있어 라텍스는 매우 유용한 제품으로 주름이나 얼굴형을 변형시키는데 필요한 재료이다.
- 2)석고
- 3)알지네트(치과용)
- 4)더마왁스(DERMA WAX): 얼굴 부분을 변형시키기 위한 소프트 왁스
- 5)인조피(BLOOD PAINT)
- 6)노즈퍼티(NOSE PUTTY): 코와 얼굴의 뼈가 있는 부분에 사용한다.
- 7)탈지면 : 스피리트겜에 라텍스를 배합하여 얼굴을 변형 시킬때 사용
- 8)스피리트겜: 접착제로 99% 주정알콜에 소나무액을 용해시키면 된다.
- 9)찰흙, 찰흙칼
- 10)바세린 11)글리세린 : 땀 효과낼 때 , 진물, 상처분장

3.분장도구

브러쉬세트, 염색술, 가위, 빗, 족집게, 핀셋, 나무주걱, 헤어드라이어, 거울, 분첩, 물담을 용기, 비닐 랩, 빨대, 샌드 페이퍼, 미용장갑, 망치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 만들기]

-안지은, 배이삭



-안지은

1987년 경기 포천 출생

우수논문상 수상

<주]milk candy[접>, <슈팅스타> 소속

취미 난술이 갈구기, 가족들 사랑하기

특기 주접, 축구

좌우명 “후회없는 삶을살자!!

-배이삭

1987년 서울 출생

우수논문상 수상

취미 교과서에 낙서하기, 음악듣기

특기 웃는 얼굴로 사람 뒤통수 때리기

좌우명 “내 맘대로 살자~”

“어느 누군가가 이삭, 지은의 동화책을 읽고 살짝 웃음 지어준다면
시간이 흘러 언젠가 이 동화를 봤을 때 그 웃음도 함께 기억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본문 중에서...

목차

서론

1. 주제 말하기
2. 동화책 만들기를 하게 된 계기

본론

1. 동화에 대한 설명
 - ① 동화란
 - ②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역사
 - ③ 동화의 종류(동화의 수준 차)
 - ④ 외국 동화와 우리나라 동화의 비교
2. 작품소개 및 설명(동화 속 나무의 대한 설명)

결론

힘들었던 점, 배운 점

1.주제 말하기

주제는 동화책 만들기이다. 글, 그림, 표지등 우리 손으로 직접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만들어 보았다.

2.동화책 만들기를 하게된 계기

지은-예전부터 잘 쓰진 못하지만 내 자유 것 상상해서 글 쓰는 것을 좋아했다. 논문을 통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하여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순 없을까? 생각하다가 어린아이들도 좋아하고 글 짓는 것도 좋아하는 내게 일석이조의 논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동화책 만들기를 하게 되었다.

이삭-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

논문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지은이의 말을 듣고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는 아주 예쁜 그림을 그리고 싶어져 같이 하기로 하고 결국 논문과 이렇게 작품까지 만들게 되었다.

동화란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으며, 또한 이야기를 남에게 들려주는 것을 즐겨했다. 옛날과 같은 대가족 제도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해서 마을의 어른들이 모두 훌륭한 동화가의 역할을 담당했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연중에 아이들은 상상력이 커지고,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었으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등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핵가족화 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져 버렸고 이에 동화의 교육적인 효과를 인식한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동화 구연 교실에 보내거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동화 구연 강좌에 참여하는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무릇 동화라 하면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 책 정도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지만 시대가 지남에 따라 어른들을 위한 감동적인 동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동화들이 많이 창작되고 있다. 동화는 상상력을 키워주고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도 해주며 동화의 한 부분인 구현동화는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동문학의 역사

1. 아동문학이란?

아동문학이란 어린이를 주독자로 하는 문학이며 작가가 이를 목적으로 창작하는 특수 문학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의 글짓기와는 구분된다.

2. 한국 아동 문학의 발아와 계보

(1) 개화 이전기

갑오경장 이전 시기로 전래 문학 작품이 있다. 삼국 유사에 실린 서동요와 흥길동전, 장화홍련전, 콩쥐팥쥐전, 심청전, 흥부전, 별주부전이 있다.

(2) 개화기(1894~1907)

갑신정변과 갑오경장은 신문화사의 배경이 되었다.

(3) 형성기 (1908~1922)

육당 최남선이 창간한 아동잡지 '소년'을 아동 문학의 효시로 본다.'붉은 저고리','이이들 보이','새별' 등의 아동 잡지를 발간하여 아동문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육당 최남선은 한국 최초의 동시 '해에게서 소년에게' 와 한국 최초의 창작 동요 '우리 운동장'을 발표하였으며 '경부철도가' 로 7.5조, 6.5조, 8.5조 등으로 신시와 창작 동요를 낳는 계기를 주었다. 춘원 이광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단편 소설인 '어린 벗에게'와'소년의 비애'를 발표하였다. 육당과 춘원은 신문화 운동의 주축이 되어 근대 아동 문학의 기반을 세웠다.

(4) 성장기(1923~1939)

소과 방정환은 '어린이' 지를 중심으로 아동 문화 운동을 발전시켰다. 1922년 '사랑의 선물' 을 번안 출간하여 창작 동화의 실마리가 되었다. 색동회가 1923년 5월 1일 결성되어 한국 최초의 아동 운동을 시작 하였으며 아동을 존중하자는 뜻에서 '어린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고 최초의 순수 아동지인 '어린이' 란 잡지를 펴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동화극과 동화 구연대회 및 계몽을 위 여러 활동을 통한 아동 문화 운동을 벌였다. 1920년대에는 수많은 아동 잡지가 나왔는데 사회주의 경향을 띤 '신소설', '별나라', '새벗'과 신앙주의

를 강조한 '아이생활', '반도소년', '소년 조선' 등이 나왔다. 소파 방정환의 작품은 창작 의식보다는 계몽과 교육에 그 목적을 두었다. 1925년 이원수의 '고향의 봄', 윤석중의 '오뚜기'를 어린이에 기고하여 신인 동요 작가가 되었고, 마해송, 이정호 등도 동화를 썼으며 한정동도 동요를 정인섭은 동극을 썼다. 지금까지의 번안, 개작에 머물던 아동 문학은 1923년 최초의 창작 동화인 마해송의 '바위나라와 아기 별' 이 '새별' 지에 소개되고, 1939년 강소천이 동아 일보에 '돌멩이'와 '토끼삼형제'를 발표하여 창작 동화가 시작 되었다.

(5) 수난기(1940 ~ 1945)

1940년 조선 일보가 강제 폐간되었고 문학지들도 폐간되었다. 그 후 '국민 문학'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일어로 창작 활동을 할 것을 강요하였다. 1944년에는 '동원', '초가집', '파랑새' 등의 회람잡지가 출현하였고 윤석중의 동요집 '어깨동무'와 강소천의 동요 동시집 '호박꽃 초롱', 송창일의 동화집 '참새학교'가 출판되었다.

(6) 소생기(1945 ~ 1959)

8.15 해방이 되자 한국 문학이 다시 활기를 찾아 1949년 '어린이나라'를 창간하여 아동문학이 재 정비 하려는 때에 6.25동란이 일어나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이 당시는 전쟁 시기이므로 아동 문학가들도 순수 아동 문학가와 상업주의에 편승한 작가로 분리 되어지는 비극적인 시기였다.

(7) 팽창기(1960 ~ 현재)

1960년대 전후의 작가들은 "동시도 시이어야 한다. 동화와 아동소설도 소설적인 수법에서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본격 문학으로서의 아동 문학이 일어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박목월, 박두진 등이 있다.

동화의 종류

어린이가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동화를 골고루 읽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여러 종류의 동화들을 구분해 보았다.

첫번째, 시대로 구분되어 지는 것

동서양의 전래동화(신화, 전설, 민담)

동서양의 창작동화(현대동화)

두번째, 국적으로 구분되어 지는 것

우리나라 동화(한국 동화)

외국 동화(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동화)

세번째, 상상성과 현실성의 여부로 구분되어 지는 것

순수동화(상상성에 기초)

생활동화(현실성에 기초)

내가 생각하는 동화의 수준 차

(유아용)

예1:"문어야 미안해"

깊은 바다 속이에요.
물고기 친구들이 모여서 축구경기를 했어요.
"애들아, 나도 시켜 줘."
문어가 다가왔어요.
"야, 넌 손이 많아서 안돼. 비켜."
"나도 같이 놀고 싶은데....."
그때였어요.
"슛~ 골~인."
"어 어. 우리 팀이 지고있네.
문어를 문지기를 시키자."
"그래, 내가 할게."
문어는 문지기를 했어요.
"야, 신난다. 문어는 손이 많아서 공을 잘 막네."
"와!. 만세. 우리 팀이 이겼다."
친구들은 문어에게 손뼉을 쳐주었어요.

예2:"새콤달콤남남"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민이는 푹푹 따다가 알갱이를 씻었어요.
"야! 맛있겠다."
"아차! 어른먼저 드려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포도 잡주세요."
"오냐 우리 민이 착하기도 하지."
"아빠 포도 잡주세요." "그래, 고맙다."
아빠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나도 먹어야지. 짹짹"
새콤달콤남남 포도는 정말 맛있어요.

유아, 아주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이다. 유아를 위한 동화를 보면
보다시피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얄얄짹짹 의성어를 많이 넣어서
아이들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갈등이 작은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작은 갈등을 풀어주는 내용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게 된다.
어떤 내용을 말한단기 보단 어떤사물, 한대상을 설명하는 듯 구성된 경우가 많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우는 것이 중점적인 내용들이
유아를 위한 수준인 것 같다.

(저학년용)

예1:"고양이가 맡은 생선가게"

옛날, 욕심 낳은 고양이가 살고 있었어요.
"야옹아, 생선 좀 지켜 줄래? 급한 일이 생겼구나."
생선 가게 아저씨는 고양이에게 부탁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야~ 맛있는 고기들, 살짝 한 마리 먹어도 모를 테지?" 오도독 오도독, 이 가자미 꿀맛인걸.
히히 요렇게 날씬한 콩치는 없어져도 모를 거야."
고양이는 생선들을 차례 차례 먹어 치웠어요.
"야 - 배부르다."
고양이는 그만 잠이 들었어요. 잠시 후, 돌아온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야옹아. 어서 일어나 생선들이 다 어디로 갔지?"
"네... 저, 그게요. 넙치란 놈이 '넙죽' 엎드리니까 콩치가 '콩' 때렸어요. 잘못해서 잉어가 맞
아 '잉잉'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자미가 시끄럽다고 밖으로 '가자. 가자'하대요."
기가 막힌 아저씨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가오리가 '나도 가오리'하고 따라 나갔어요."
"그럼, 놀래미는 어떻게 된거야?"
"그야 잠자다 깜짝 놀래서 그냥 따라갔지요."
"네 말이 모두 사실이랬다!"
"아! 그럼요."
"네, 이놈!"
아저씨는 고양이의 목을 덩석 잡았어요.
"그렇다면 저 구석에 있는 꼼장어가 '꼼짜마라'하는 것도 보이느냐? 끝까지 어른에게 거짓말
을 하다니, 교약해서 '고양이'로구나."
그 날부터 사람들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지 않았답니다.

예2:"모자 장수 아저씨"

"모자 사려! 모자 사려!"
어느 더운 여름 날, 모자 장수 아저씨가 모자를 잔뜩 들고 모자를 팔러 다녔어요.
"아, 덥다. 힘이 드는데... 저기 나무 밑에서 쉬어야겠군."
모자장수 아저씨는 나무에 기대앉아 쉬다,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이때 나무 위에 있던 원숭이들이 저마다 한 개씩 써보고는 '끼끼끼 끼끼' 소리를 지르고 신

나게 놀았어요.

"아! 잘랐다."

눈을 뜬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원숭이들이 모자를 쓰고 나무위로 달아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 내 모자, 이 장난꾸러기들아 낸 모자 내 놔!"

모자장수 아저씨가 팔을 휘두르자 원숭이들도 '킁킁' 소리를 지르며 팔을 휘둘렀어요.

"아니 이것들아, 빨리 내놓지 못해?"

아저씨가 발을 동동 구르자 원숭이들도 발을 동동 굴렀어요.

"아니? 저것들이 날 놀려?"

"킁킁, 놀려?"

모자장수 아저씨는 약이 올라 팔딱팔딱 뛰었어요. 원숭이들도 팔딱팔딱 뛰었지요.

"아, 원숭이들이 내 흉내를 내는구나.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모자장수 아저씨는 모자를 벗어 땅바닥에 획 내던졌어요.

"에이 더러워, 모자에 똥이 묻었네."

원숭이들도 모자를 벗어 획- 내던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모자장수 아저씨는 빨리빨리 모자를 주웠지요.

"원숭이들아, 안녕!"

"모자장수 아저씨 안녕?"

모자장수 아저씨는 손을 흔들며 다시 길을 떠났어요.

초등학생 (저학년용) 동화, 유아를 위한 동화와는 비슷하면서도 사뭇 다른 느낌이 오는 듯할 것이다.

유아의 수준의 동화를 보면 짧은건 당연하고,

짧을 수 없는 이유는, 한 대상을 중심으로 엮여지기 때문이다.

그와 다르게 저학년 동화는 유아를 위한 동화에서 나태 내려는 그 대상들이

합하여져 꾸며졌다. 그러므로,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고 무한하게 생각이 자유스러운 저학년 동화는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시작한다.

단순하게 쪽 엮여지는 그런 스토리보단 고개 넘듯 하는 내용들이

재미있을뿐더러 저학년에게 맞음으로, 이것이 저학년의 동화책 수준인 것 같다.

따져보면 유아용, 저학년용, 고학년용, 어른용 모두 동화의 수준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동화는 모든 사람의 꿈이 되고, 어쩌면 다른 어떤 장르의 책보다

마음속 가깝게 교훈을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생각하는 외국동화와 우리나라동화의 비교

외국 동화와 한국 동화를 읽어보면서
간단하게나마 차이점을 말해보겠다.
이것은 내가 느끼는 차이점이다
요즘 어린이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동화보다 외국동화를 좋아한다.
그 점에서는 나도 또한 공감한다.
먼저 나는 우리나라동화를 읽었다.
대부분의 동화가 은혜를 갚는 내용이고 도식적이거나 상투적인 내용 구성으로 그냥
"재밌다"라는
단순하다는 느낌만 주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적인 문화와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교훈 위주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
어린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다.
그의 비해 외국동화는 우리나라만의 그런 특징적인 교훈이나 배워야 할 점등을
중점으로 담지 않은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동화의 비해 매우 흥미롭고 호기심을 자아내었다.
스토리 구성도 단순하지 않으며 모험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기까지가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동화와 외국동화의 차이점이다.
내가 만든 '이상한 나무'라는 책도 갈등 부분에서 너무 단순하게 흘러가는 것이
많이 아쉽다. 하지만, 나 나름 데로 잡은 동화의 구체적인 중점을(역설적인 반전, 자연과 합
일되는 이야기 구성)
어린이들에게 느껴질 수 있음 나는 내 동화책은 성공했다고 본다.

동화속 나무의 대하여

적단풍나무는 외국이 원산지이고 관상용 정원수로서 사랑받는 나무다.

이 나무는 다른 단풍나무와 달리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단풍이 든다 적단풍 나무는 다른나무보다 잎과랑이(엽록소)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붉은 꽃과랑이 (화청소: 식물의 꽃·잎·열매 등의 세포액 중에 퍼져 있는 색소)가 유난히 많은 변종의 단풍나무이다.

결론

지은-흥미 있는 시작이었다. 내가 정말하고 싶었던 것을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번 논문은 내게 동화와 어린이들의 대하여 알게 해 주었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으며 즐거움도 주었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여유 만만하게 놀았었는지 ^-^;;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삭이 그리고 내 자신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 동화책이 나올 수 있었으리라 믿는다.

어느 누군가가 이삭이와 나의 동화책을 읽고 살짝 웃음 지어준다면 시간이 흘러 언젠가 이 동화를 봤을 때 그 웃음도 함께 기억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삭-이 논문에 정말 정성을 다했고, 동화에 대해서 많은걸 알게 되었다. 비록 그림 그리는 순간은 귀찮기도 하고 무지 신경 쓰였지만 그림을 한 장 한 장 그리고 나서 그걸 볼 때 와 동화책을 완성했을 땐 정말 즐거웠다. 나 역시 아쉬운 점은 너무 놀았었다는 것이다. 원래가 이런 성격이라서.. 이 동화책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무지하게 예쁜 이야기에 무지하게 예쁜 그림이 있는 동화책으로 기억됐음 좋겠다.(너무 큰 걸 바라나?) 나의 게으름을 무지하게 참아주었던 지은이에게 정말 감사한다. 역시 감사합니다.

도움주신 홈페이지

[http://www.donghwasarang.com/동화사랑연구소](http://www.donghwasarang.com/)

[http://www.donghwanara.com/부키의 동화나라](http://www.donghwanara.com/)

[http://my.netian.com/~cty0/태용이의 동화나라](http://my.netian.com/~cty0/)

“나는 왜 이렇게 미워.... 별이는 예쁘고, 썩이는 공부도 잘하는데.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평범해.”
앞새는 매일매일 자신이 평범하다며 울고 짜증을 내곤 하였어요.



“그렇지 않아. 우리 앞새가 얼마나 예쁜데. 이 세상에는 단 한명도
미운 사람이 없는 거야. 다만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지.

자신은 소중한 거란다 .알았지?”

앞새를 보신 엄마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새는 엄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앞새는 계속해서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미워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앞세는 어른이 되었어요.

앞세는 어른이 되어서도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제대로 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곤 하였어요. 하루도 웃음 짓지 않았던 앞세의 얼굴은 점점 미워져만 갔어요.



어느덧 늙어서 할머니가 되어버린 묘새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하늘나라 대왕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하늘나라로 온 사람들이 다음에 태어나서 되고 싶은 것을 이루어주시는 신이었어요.

“너는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

묘새할머니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상상만 해도 기쁜 나머지 앞새할머니께서는 저절로 웃음이 나셨어요.
눈을 지긋이 감으시던 대왕님께서 갑자기 눈을 번뜩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게 좋겠구나!”

앞새가 ‘펑’ 하는 소리에 놀라 잠시 눈을 감았다 떠보니 어느 숲 속이
있어요. 햇빛이 짹짹 내리쬐고 숲 속의 나무들은 온통 초록빛이었어요.
앞새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는데,
아이키!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나뭇잎들은 온통 빨간색인 것 이었어
요. 대왕님께서 앞새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다른 나무들은 모두 새파란
초록빛인데, 앞새만 유독 붉은빛이었으니까요.





옆에 있는 나무가 말했어요. “ 어머, 애는 잎이 빨간색이야.”
그랬더니 잎새 앞에 있던 나무도 말했어요.
“ 지금은 여름인데 애는 왜 빨간색일까?”

앞새는 슬펐어요. 아무도 앞새랑 말하고 싶어하지도 않고, 놀아주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남들과 다르면 뭐해. 아무도 나랑 놀려고 하지 않아.”

앞새는 엉엉 울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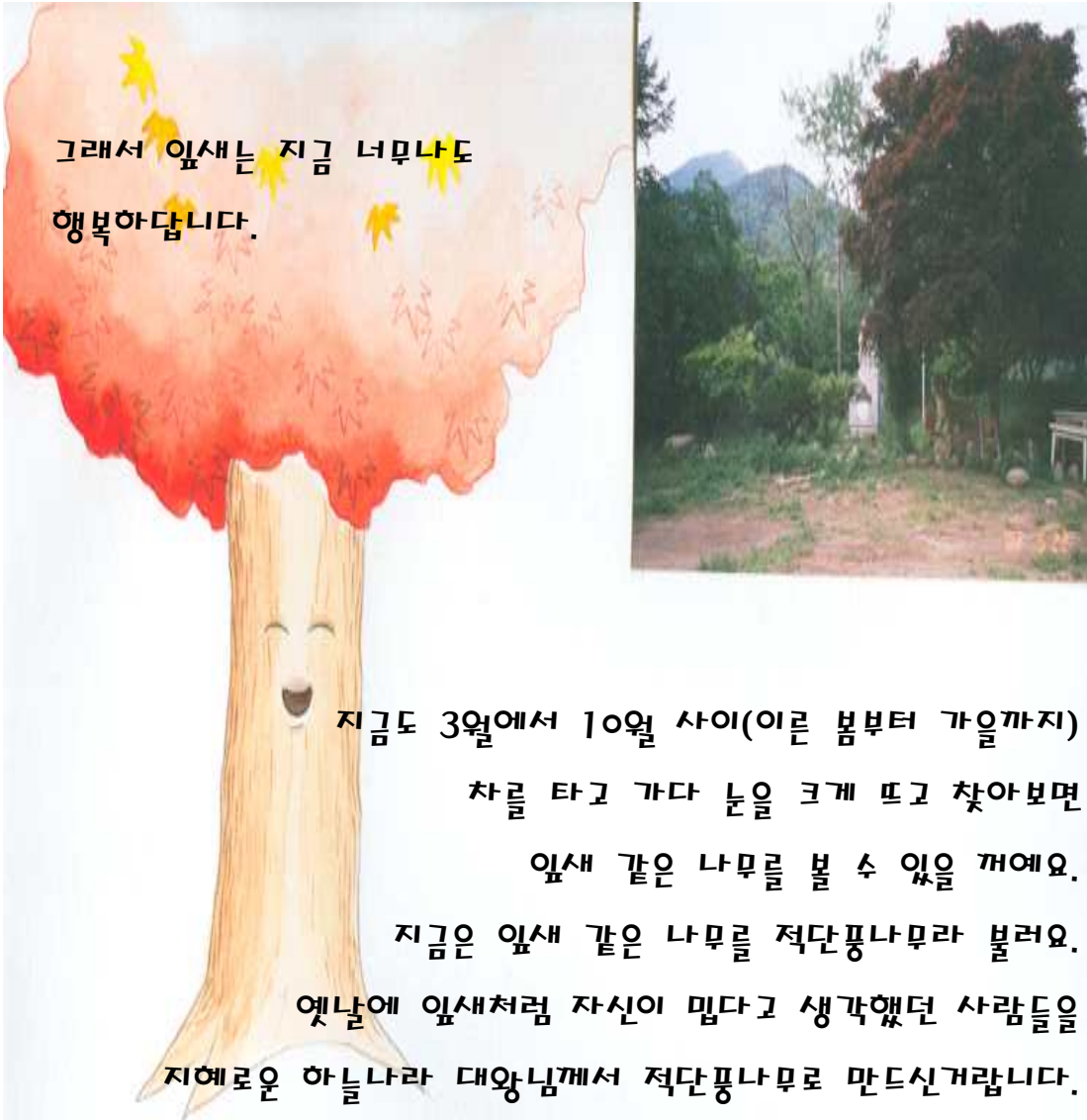




“내가 잘못했어. 왜 나는 옛날에 나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늘 나는 못생기고 평범한 아이라고
생각했을까? “
앞세는 후회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고
아름다웠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부터는 숲속에 놀러오는 사람들마다
“참 신기한 나무야.” “정말 예쁘지 않아요?” 하며
신기해서 잎새는 아주 기뻐어요.
늘 웃는 얼굴인 잎새를 보고 나무들도 잎새와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잎새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지금도 3월에서 10월 사이(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차를 타고 가다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면
잎새 같은 나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잎새 같은 나무를 적단풍나무라 불러요.
옛날에 잎새처럼 자신이 밍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지혜로운 하늘나라 대왕님께서 적단풍나무로 만드신거랍니다.



“내가 잘못했어. 왜 나는 옛날에 나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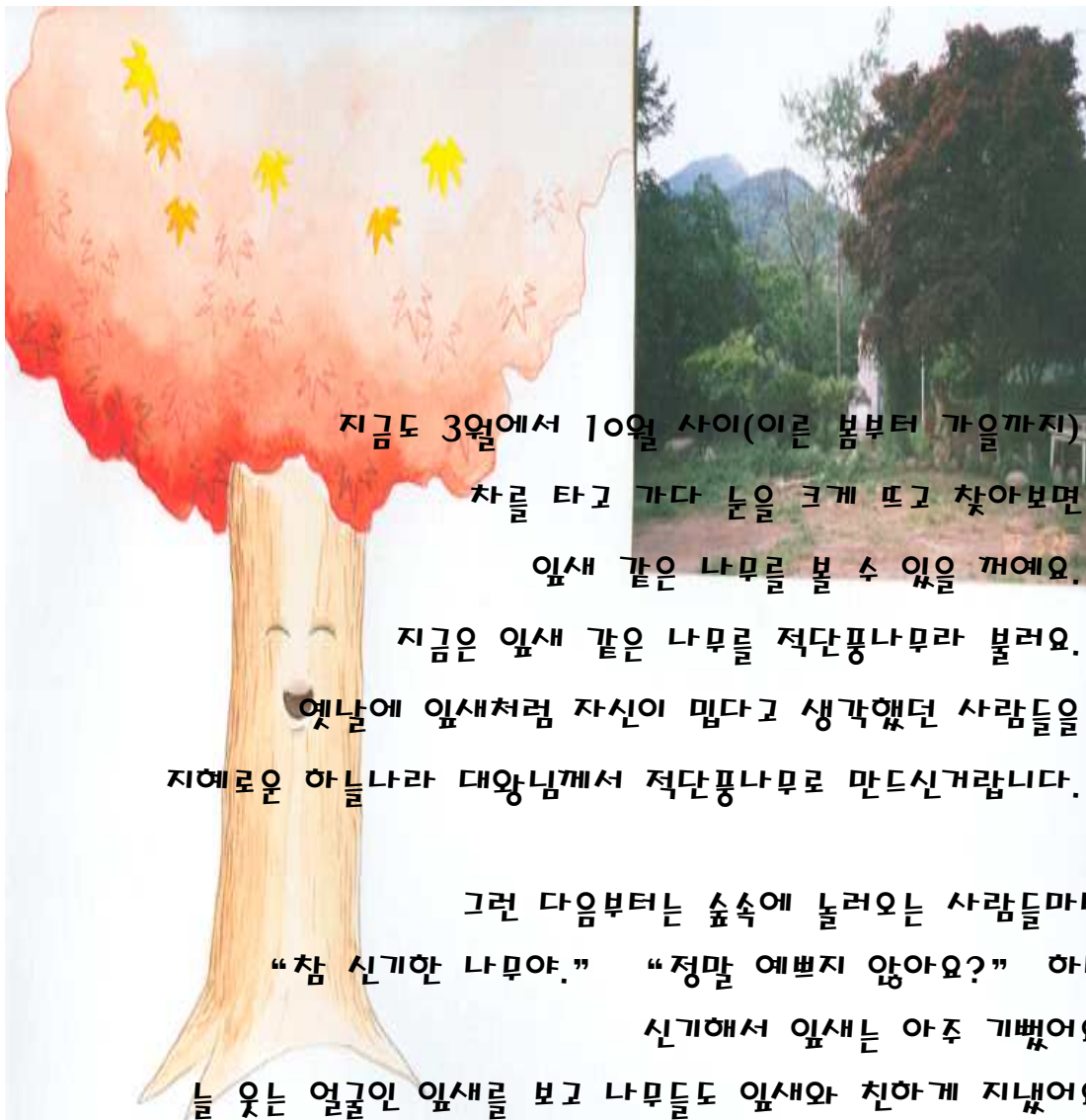
왜 늘 나는 못생기고 평범한 아이라고
생각했을까?”

앞서는 후회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아름다웠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잎새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New Age Music의 사탄성에 대한 연구]

- 김슬기



1989년 김해 출생
무남2녀 중 차녀
실로암유치원-김해동광초등학교-간디중학교
취미 타로카드 깔짝되기, 십자수, 음악듣기, 영화보기, god비판하기
특기 타로카드 점봐주기
별명 동그리, 똥구리, 동글썩기, 감술기
장래희망 한의사
좋아하는 New Age 뮤지션 Yiruma

“나는 뉴에이지 음악을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나는 뉴에이지 음악을 굳이 뉴에이지 운동과 접목시키고 싶지 않다. 뉴에이지 운동은 사탄의 운동이라는 주장이 있다. 신은 없다고 생각하며 사람들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세계 종교 통일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본문 중에서...

***목차**

I. 서론 -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를 알아본다

II. 본론

1. New Age Music이란? - 여기서는 뉴에이지 음악의 기본 정의를 내려볼 것이다.
그리고 뉴에이지 뮤직의 개요를 알아볼 것이며 뉴에이지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겠다.

2. New Age Music 역사와 발전과정 - 역사를 알아보고 80~90년대의 뉴에이지 음악의 발전을 알아볼 것이다.

3. New Age Music이 포함하고 있는 음악적인 장르 - 뉴 에이지 음악이 포함하고 있는 6가지의 음악적인 장르를 알아본다.

4. New Age Music은 사탄의 음악? - 뉴에이지 음악이 왜 사탄의 음악이라 불리는지와 뉴에이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기독교 쪽의 의견을 알아보겠다.

III. 결론 - 뉴에이지 음악에 대한 나의 생각
정말 사탄의 음악인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

I. 서론.

내가 뉴에이지 음악을 처음 들은 것은 초등학교 5학년때 Yuhki Kuramoto의 Romance라는 앨범이 아니었나 싶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클래식을 많이 들으며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뉴에이지 음악을 접하게 되었다.

이 논문을 쓰게된 계기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통해서였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기 위해 뉴에이지를 검색하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것을 보게되었다.

「사탄의 음악 뉴에이지」라는 제목을 가진 글이었는데...

이 글을 읽다가 뉴에이지 음악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이 논문을 쓰게 되었다.

나는 뉴에이지 음악을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나는 뉴에이지 음악을 굳이 뉴에이지 운동과 접목시키고 싶지 않다. 뉴에이지 운동은 사탄의 운동이라는 주장이 있다. 신은 없다고 생각하며 사람들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세계 종교 통일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다른 신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냐고 한다. 그리고 뉴에이지 음악은 뉴에이지 운동의 일부분이며 사탄의 활동이라 한다.

뉴에이지 음악의 특성을 보면 대부분 명상적이고 정적이며 차분한 음악이 대부분인 것이다.

뉴에이지의 음악적 테마나 소재는 대부분 자연과 환경이 많으며 또 추상적인 개념의 감정적 소재들이 대부분이다.

이 논문에서는 주된 중심은 뉴에이지 음악이 사탄의 음악인지 아닌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할 것이다.

II. 본론.

1. 뉴에이지 음악이란?

뉴에이지 음악이란 무엇일까? TV 나 CF, 영화 배경음악으로도 많이 쓰일 정도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뉴에이지 음악 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성격과 정의를 누구에게나 공감의 가도록 명료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뉴에이지 음악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음악전문가나 평론가들조차도 선부르게 단언지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일들은 A면 A, B면 B라는 식으로 단정지어질 수 없다.

뉴에이지 음악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60년대에 이른다. 근데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New age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기는 하다. 그 중 하나는 말뜻 그대로 '새로운 세대가 듣는 음악'이란 뜻에서 New age로 명명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당시 New age 수용층은 소위 '여피'라는 계층으로 대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이었다고 한다. 물론 이들도 새로운 세대라고 할 수는 있으나 당시 10대를 중심으로 팬을 형성하던 Rock 'n Roll 음악을 생각하면 오히려 Rock 'n Roll 음악이 신세대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뉴에이지 음악은 눈에 보이는 규범이나 특별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여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런 뉴에이지 음악을 두고 음악적인 면을 강조한 이가 있는 반면 종교적인 면을 강조한 이도 많다. 보면 좀 예민한 부분도 없지 않다. 단지 듣는 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에 그 정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뉴에이지 음악에 대한 2가지 관점을 소개한다. 하나는 뉴에이지 음악을 순수한 음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1) 뉴에이지 음악에 관한 예술적 관점.

몇몇 다른 의견이 있지만 거의 정설로 굳혀진 뉴에이지 음악의 계보는 프로그레시브 음악에서부터 시작한다. (프로그레시브는 록에 국한되지 않고 재즈, 클래식 등 모든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프로그레시브 Crossover와 흡사하다.) 단어의 원래 의미인 '진보'라는 말만 기억하자. 이 뉴에이지 음악은 여태까지 흐르던 음악사 조와는 약간 다르게 '진보'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대중음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감각적인 락(rock) 계열의 음악에 반감을 느낀 음악인들이 자신의 음악세계를 새롭게 열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동양의 신비적, 즉흥적 음악에 매료되어 융합 일치를 시도하여, 그런 동양적인 신비감과 정적인 분위기를 주로 클래식 음악에 사용되는 순수 어쿠스틱(acoustic)악기나 신서사이저(synthesizer)와 같은 최첨단 전자악기를 이용해 동서양의 고감을 실현코자 노력했다.

(2) 종교적 관점에서의 뉴에이지 음악의 개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뉴이지 음악을 뉴에이지 운동과 결부된 '악마'의 음악이라고 본다. 여기서 뉴에이지 운동이란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단일론에서 출발하는, 한마디로 말하기 곤란할 정도로 동.서양의 여러 종교와 사상, 비밀의식이 융합된 또 하나의 새로운 사상이다. 그들의 주요 세계관만을 소개하면 ① 범신론(汎神論), ② 의식개혁, 초월, 합일사상, ③ 일반 세속주의자보다 더 적극적인 세속적 인본주의 등, 반 기독교적인 사상이 그 핵심이 되고 있다. (참고로 범신론이란 현존하는 모든 것이 신이기 때문에 우주는 완전한 영적인 실체라는 것.)

무드(mood)음악, 또는 환경 음악 그리고 더 나아가 서는 무궁해 음악이라고까지 불리우는 이 음악이 정말 뉴에이지 운동세력의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지의 여부는 세월이 흐르면 명확히 밝혀지겠지만 크리스찬들은 어떤 음악적 해악성을 논하기 전에 그것들 자체의 감미로움과 편안함이 가져다 주는 음악요소가 결국 그들로부터 십자가를 멀리 하도록 하는 뉴에이지들의 '이완(弛緩)요법'에 걸려들게 한다고 주장한다.

뉴에이지 음악은 '이것이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시작은 뉴에이지 운동의 한 방편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뉴에이지 음악을 그 대립되는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면서 접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는지 싶다. 현재 뉴에이지 음악은 하나의 음악장르로서 자리잡고 있다. classic 이라는 좀 무거운 장르를 벗어나서,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이유에서, 자연 친화적이라는 이유에서 이 음악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 두 가지 견해를 내세우며 정의를 운운하는건 거추장스러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다.

(1) 뉴에이지 음악의 역사와 발전과정

뉴에이지 뮤직의 원류는 1960년대 비틀즈를 중심으로 한 락큰롤 세력이 팝 음악계를 지배할 때 여기에 대항해 토니스코트, 폴 혼, 폴 윈터 같은 인물들이 동양 철학 등의 사상을 담아 음악에 의한 정서 치유를 시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클래식 음악과 같이 전통 악기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세미 클래식 풍의 새로운 음악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우리가 흔히 "경음악"이라고 부르는 단순한 묘사 음악의 수준을 넘어선 깊은 사상과 예술적 품격을 담은 음악들이었다. 그러나 이 음악들은 일부 비평가와 소수의 팬들에게만 인정받았을 뿐 일반 대중에게는 소개조차 안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러한 초기 뉴에이지 앨범들은 일반 레코드 점보다는 요가 용구나 명상용 기구를 전문으로 파는 상점에서 팔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비록 대중적으로 큰 반응을 얻지 못했으나 이러한 부류의 음악들은 당시 새롭게 만들어진 신서사이저와 같은 악기의 출현으로 좀 더 새로운 스타일로 변모해 발전하기도 하였고 또한 초기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오면서 재즈나 록 그리고 클래식, 팝은 다른

장르의 음악과 크로스오버(Crossover)되면서 발전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은 뉴에이지음악으로 불리는 음악들이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뉴에이지라는 독립된 장르에 포함되기보다는 컨템퍼러리 재즈, 프로그래시브 록, 클래식 팝, 영화 음악등으로 특색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즉 뉴에이지는 그 특성을 팬들에게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해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현존 뉴에이지 음악 최고 레이블인 <윈담 힐(Windham Hill) > 의 시작과 함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뉴에이지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윌리엄 애커만(William Ackerman)이다. 그는 76년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Windham Hill' 이라는 레코드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 조지 윈스턴의 앨범이 대대적인 히트를 거두고 마이클 헤지스(Michael Hedges)나 리즈 스토리(Liz Story)와 같은 걸출한 뮤지션을 발굴해내는 등 80년대 뉴에이지 돌풍을 일으켰다. 그래서 대부분 이 80년대를 뉴에이지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본다. 본인 역시 뉴에이지 뮤직의 선구자중 한 사람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윈담 힐이 설립되기 전이었던 7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San Francisco Festival In Honor of Comet Kohoutik' 이라는 행사는 뉴에이지의 출발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음악 관계자들은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러한 음악들에서 한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새로운 음악이 가져다준 신비한 느낌이었다. 음악 관계자들이 공유했던 이러한 느낌에는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 새롭고 신비한 음악은 또 하나의 장르가 탄생할 수 있는 기운을 싹트게 했으며 70년대 중반 이후의 그러한 음악적 운동은 결국 여러 아티스트들을 자극, 뉴에이지 뮤직을 낳게 했다.

그러나 80년대 Newage음악은 60년대의 Newage음악과 매우 다르다. 60년대 Newage음악은 '명상과 참선' 이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으나 80년대 Newage는 그렇지 않다. 단지 60년대 Newage음악에서 목적의식은 떼어버리고 음악적인 요소만 빌려와서 만든 음악 그 자체의 음악이다. 또 60년대 NewAge음악은 너무 지루하고 음악적 감흥이 전혀 없는 무미건조한 음악이었고 그래서 대중적인 호소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80년대의 Newage는 Jazz나 Pop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NewAge적인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세련되게 각색하여 대중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뉴에이지 뮤직에 대한 미국 음악 팬들의 관심도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인 CD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후 더욱 더 커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미국 전역에서는 뉴에이지 전문 라디오 방송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들 중 특히 KTWV The Wave(94.7 FM)의 경우는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남부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이들은 24시간 뉴에이지 뮤직을 비록, 관련 아티스트들의 앨범을 폭넓게 소개했는데 지성파 음악 팬들을 위한 지성적인 음악을 소개한다는 이들의 방송 취지가 성인 음악 팬들에게 크게 어필, 미 서해안 지역의 방송가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오기도 했다.

한편 80년대 중반 이후 뉴에이지 뮤직계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뉴에이지 뮤직의 초창기부터 활약했던 기존의 아티스트들 외에 70년대 록계에서 크게 활약했던 뮤지션들이 일련의 뉴에이지 앨범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뉴에이지 계열의 앨범들을 쏟아 내면서 새로운 팬들을 확보했는데 이들의 이러한 놀라운 변신을 두고 음악팬들 사이엔 서로 심한 논쟁이 오고 가기도 했다. 록계 최고의 실력자들이었던 이들이 부드러운 뉴에이지 뮤직으로 음악적인 방향을 수정한 것을 두고 이들에게 록을 저버렸다고 비난을 퍼부었던 음악팬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들이 보여준 다양한 음악성에 큰 지지를 보내준 팬들이 존재하기도 했다.

이처럼 뉴에이지 음악이 독립된 장르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것을 하나의 장르로 승화시킨 뮤지션이 바로 조지 윈스턴이다. 자연에서 받은 인상을 담담하게 피아노의 선율로 옮겨놓은 그의 음악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되자 그의 음악이 출발된 윈드햄 힐 레코드사의 음악들이 주목받게 되었고, 마침내 1987년 그라미 상에서 일렉트릭 하프의 청아한 음색으로 인간적인 약동감과 투명한 자연 세계를 혼돈한 유머니티로 묘사한 스위스 출신의 안드레아스 폴렌 바이더(Andreas Vollenweiger)가 초대 최우수 뉴에이지 연주상을 수상하면서 뉴에이지는 완전히 음악계에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뉴에이지 음악은 80년대 후반부터 그 이전에 발전해온 속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다.

80년대 중반 이후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뉴에이지 뮤직은 미국을 비롯, 유럽과 남미 지역으로 그 열기가 확산되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또한 빌보드지에도 뉴에이지 차트가 신설되며 야니, 엔야, 탠저린 드림, 존 테시 등의 앨범들이 항상 차트의 상위권에 머물며 꾸준한 인기를 얻어왔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도 뉴에이지 뮤직은 꾸준히 발전을 거듭, 새로운 아티스트들과 새로운 레이블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메이저 레이블들도 뉴에이지 시장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뉴에이지 레이블을 사들이거나 그들의 배급을 맡고 있기도 하다고 하니 지금 미국의 음악 시장은 그야말로 뉴에이지 뮤직의 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뉴에이지 뮤직은 이제 겨우 3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출발 당시 비주류 장르였던 뉴에이지가 어느덧 메인스트림으로 자리를 잡았고 여러 아티스트들의 CD 판매고도 타 장르에 비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조지 윈스턴이나 야니, 엔야만이 뉴에이지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 착각이다. 뉴에이지계에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이 나올 것이다.

3. 뉴에이지 뮤직의 유형

뉴에이지음악은 동양적인 사상 기반위에서 태어난 음악이다. 우리가 흔히들 뉴에이지음악은 "서정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용한 음악" 이라고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뉴에이지음악은 처음 태동한 이후에 아주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즉, 사상적인 기반은 하나이지만 여러 음악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어쿠스틱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뉴에이지 음악적인 장르이다. 서정적이고 편안하며 감성적인 어쿠스틱한 멜로디의 음악들이다. 클래식보다는 좀 단순하고, 쉽고 평이한 음악들이라 하겠다. 보통 자연을 노래 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음악들이다. George Winston, David Lanz, Yuhki Kuramoto, Secret Garden 의 음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2) 전자음악

전자음악 장르를 일컫는다.

뉴에이지음악 중에서도 Jean Michel Jarre (70~80년대 음악시대의 중요인물로 전통적인 음계에 기반을 두지 않은 새로운 계명법을 발견 :물체나 기계의 내면을 묘사)나 Vangelis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방불케하는 장중함과 신서사이저라는 전자음향 합성장치가 내는 기계적인 소리를 주로 사용하지만 진한 감정이 배어 있는듯한 호소력,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경지를 추구:인간의 내면적 정서를 작곡)의 음악이 이에 해당된다.

(3) World Music

팝에서는 "월드뮤직" 이라는 말이 "제3세계의 음악" 즉 비영어권의 음악들을 일컫는다. 뉴에이지음악에서 말하는 "월드뮤직"이란 어떤 나라의 민족 또는 민속의 음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음악의 느낌은 음악에 사용되는 악기 뿐만 아니라 멜로디로 인해 이국적이다. 대표적인 음악가 또는 앨범은 바로 쿠스코의 아푸리맥(Apurimac). 그룹의 가장 유명하고 또한 가장 대표적인 앨범이 아푸리맥인데, 잉카제국이나 남미의 정취가 물씬 풍긴다.

또한, World Music의 한 장르로써 빼놓을 수 없는 음악장르가 있는데, Enya(Eithne Ni Bhraon-ain) 등이 속해 있는 celtic(켈틱) music 이다. 북서유럽쪽의 민속 음악을

통칭해서 일컫는다. 현대적인 사운드로 재구성된 celtic music으로 가장 유명한 음악가는 riverdance의 존휠론 (John Whalen)이 있다. 아메리카의 인디언 음악같은 분위기의 음악들(native America)도 있다. 대표음악가로는 카를로스 나카이가 있다.

(4) 환경음악(Environmental Music)

환경음악을 일컫는다. 이 음악적인 특성은 자연의 소리(음향) 등을 샘플링해서 음악으로 만든 것들이다. 맑은 숲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시냇물 소리, 파도소리, 바람 소리 등을 융합하여 하나의 음악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Samuel Reid의 Sanctuary 시리즈는 그 대표적인 것이다.

(5) 명상음악(Meditation)

명상음악 또는 치유음악(마음) 도 뉴에이지 음악에 속한다. 뉴에이지음악이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명상"을 위해 "동양사상"을 결합을 시도해서 태어났다고 한다. 명상을 위한 음악들도 뉴에이지음악에 속한다. 대표적인 음악가로는 국내에선 "김도향"이라는 음악가가 속한다. 유럽의 몇몇 음악레이블(Fonix, Kuckuck)도 이런 명상음악등을 발표하고 있다.

(6) Crossover(= fusion)

크로스 오버란 뜻은 "장르파괴"란 뜻이다. 즉, 원래 달리 분류되던 음악 종류들을 섞어서 만든 음악을 말한다. 뉴에이지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그 난해함이나 또는 보수적인 면들을 벗고 대중과 좀 더 친숙하기 위한 음악들을 크로스오버 음악이라고 한다. 이 크로스오버의 음악도 뉴에이지음악에 포함된다고 한다. 대표적인 음악가는 Andrea Bocelli나 Sarah Brightman 등이다.

지금까지 뉴에이지음악이 포함하고 있는 음악적인 장르에 살펴보았다. 이 음악적인 장르는 amazon.com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에 근거했다. 뉴에이지 음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동양적 자연 친화적 사상 기반 위에서 확립된 음악"이 아닐까 한다.

4. 뉴에이지 뮤직의 사탄 성

지금까지 뉴에이지 음악의 개요를 알아보았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뉴에이지 음악의 사탄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종교계를 비롯해서 여러 계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뉴에이지 음악의 사탄 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종교적 관점

뉴에이지 음악은 반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종교적 관점에서 제기하는 지적이다.

여기서 예를 들어 설명할 앨범은 뉴에이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데이빗 란쯔(David Lanz)의 앨범 중 지평선에서의 불춤(The Skyline Firedance) 이라는 앨범이다.

이 앨범에는 기독교인의 시각에 의하면 반 기독교 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이에 해당한다.

첫 번째로 기독교의 유일신론을 반대한다.

기독교에서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지평선에서의 불춤'에는 사탄과 반인반수의 무리들을 아주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완전성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죄로 인해 불완전한 존재이며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며 내부에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간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데이빗 란쯔는 내면세계에 들어가 자신이 깨닫는 자아각성과 신비를 탄생시키는 두 번째 태양을 보라고 유혹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관하는 질서에 대한 도전.

'하얀 비단에 쌓인 밤'을 데이빗 란쯔가 편곡해서 연주 한다.

은 프로그래시브 록이다. 프로그래시브 록의 어떤 곡에서도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발견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피카소가 사람의 형상을 비대칭적으로 그림으로써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했던 것처럼 프로그래시브 록도 비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빗 란쯔는 '하얀 비단에 쌓인 밤'이 사랑과 희망의 노래라고 하면서 60년대의 이상주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다. 60년대의 이상주의는 사탄의 연출 아래 마약과 히피에 의해 주도되었고, 인도의 구루들과 사상에 의해 각색된 반기독교적인 평화의 시대를 의미한다.

뉴에이지 음악을 그냥 즐기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뉴에이지 음악은 인간의 정서를 치유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탄의 사탕발림이며 인간의 마음의 병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잘 모른다. 교회에서는 성경이라는 기준으로 나쁜 점을 쉽게 설명할 수 있으니 교회 밖에서는 그것이 힘들다.

그리고 음악은 작곡가의 영적 상태, 연주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어떤 의도로 작곡, 연주하는 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뉴에이지들 특유의 명상을 돕기위해 뉴에이지 음악을 사용한다.

뉴에이지 음악이 감미롭기는 하나 그 감미로움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영적으로 갠 사람들은 명상센터에서 뉴에이지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통이 오고 영적인 중압감을 느끼며 불쾌감을 느낀다고 한다.

데이빗 란쯔는 “음악을 이용해 자신의 철학과 영적인 감흥을 청중과 함께 나누기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서 자신의 음악 속에 영적인 요소를 담고있음을 은연중에 시사하였다.

(인용출처:월간 낮은 울타리, 곡목사, 뉴에이지 운동의 정체)

(2) 뉴에이지 음악의 사탄성에 대한 음악적 견해

뉴에이지 음악은 바쁘게 살아가며 점점 인생해져 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와 억압을 음악으로서 풀어주고 이해해 주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맑고 투명한 피아노나 악기소리를 들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게된다. 그리고 뉴에이지 음악적 테마나 소재에는 대부분 자연과 환경이 많다.

현대 사회는 정이 메말라 가고 있고 모두가 바쁜 사회이다. 이런 사회 속에서 느릿느릿한 어쿠스틱 뉴에이지 음악을 듣는 것은 어쩌면 시대 착오적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쿠스틱 뉴에이지 음악을 잠깐씩 들어줌으로서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하고 하루를 돌이켜 볼 수 있을것이다.

이런 자연 친화적인 뉴에이지 음악이 사탄의 음악이라 오해받고 있다. 그 오해 받는 이유를 뉴에이지 라는 말이 널리 통용되는 과정에서 종교적 개념인 뉴에이지와 음악적 스타일의 뉴에이지 용어가 혼용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라고 본다. 90년대에서만 해도 이리도 저리도 기지 못한 음악이 모두 뉴에이지 음악이라는 깃발아래 모여들었다.

현재 지금도 딱히 뉴에이지란 이런 것이다 라고 속 시원하게 말 해줄 사람이 없는 실정이니 종교적 개념과 혼동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해야한다.

가끔 뉴에이지 음악을 들으면 사탄의 유혹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실제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라 본다.

성경의 잣대로 키워맞춘다면 이 세상은 기독교가 하라는 것만 해야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종교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종교적 관념이라 보여진다.

하지만 꼭 뉴에이지 음악중에서 사탄의 사상을 담고 있는 장르를 꼽으라면 Deviation 뉴에이지 음악라는 장르를 꼽겠다. 이 장르는 흔히 사탄의 기호라 알려져 있는 제 3의 눈, 거꾸로 된 별 모양, 피라미드의 눈 등 여러 기호들이 자켓에 표시되어있고 가사 내용 또한 주로 하층민에 반란, 전쟁, SEX, 폭력, 살인, 악마 등의 내용이다. 제3의

새로운 뉴에이지 음악을 만든 것이라고 할까... 그런데 성격이 너무 다양하고 대부분 파행적인 것들이 많다. 그 때문에 무서운 음악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래서 인지 솔직히 같은 뉴에이지 뮤지션들도 이들을 무서워 할 정도다. 그리고 이 음악에 대한 확실한 뉴에이지 뮤지션이라 나서는 사람이 드물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다.
뉴에이지 음악도 내가 보기엔 양지가 더 많은 것 같지만 Deviation New age music같은 장르는 음지쪽에 속하지 않나 싶다.

(인용출처:과학수사 마이너 팀장 박태루수사, 핫 뮤직 편집장 조성진, 뮤직컬트 성성이)

(3) 뉴에이지 음악이 사탄성에 대한 반론

앞의 '(1)종교적 관점' 중 '두통이 왔지만 계속해서 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자 점차 중압감이 사라졌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가 그것이 진실이었다는 절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통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 대해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다.

사례1

『예전 미국에서는 한 실험이 있었다.
사형수들 중 3명을 지원 받아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손목을 그어 피가 얼마나 빠져나가면 죽는지 실험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알았다고 했고 모두 죽을 준비를 했다. 가족들에게는 보상금이 주어졌다.
몇일후, 사형수들을 다시 불러 말했다. 오늘 실험을 할 것입니다. 지금 한 명씩 저 방에 들어가 주세요.
사형수 중 한 명이 먼저 눈을 가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이 사형수를 침대에 눕혀주었다. 사람들이 들어왔다. 사형수는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다. 의사란 사람이 사형수에게 손목을 그었다. 그러고 사형수는 자기 몸에서 떨어지는 피 소리를 들으며 죽었다. 하지만 여기서 사형수에게 손목을 그은 것은 칼등이었다. 그리고 피 소리는 옆에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놓은 것이었다.』

다음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사례2

『어떤 사람이 냉동 창고에 갇혔다. 그런데 모두 퇴근을 하고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음날 동사로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갇혀 있었던 냉동창고는 수리 중이라서 작동이 안되고 있었고 온도는 영상 10도 정도였다.』

사람의 뇌는 단순하다고 한다. 정말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이 예로 보면 절대적으로 믿는 기도를 함으로서 단순한 두통이 사라지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나의 생각이다.

그리고 문제와 마음의 병은 하나님을 통해서 '만' 치유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의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현재 음악 치료는 많이 시행되고 있으면 그 결과도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보고되고 있고 음악 치료사라는 직업이 유망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판국에 마음의 병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만' 치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david Lanz는 “음악을 이용해 자신의 철학과 영적인 감흥을 청중과 함께 나누기 원한다.”

라는 것을 “음악을 이용해 뉴에이지의 철학과 영적인 감흥을 청중에게 주겠다.” 로 이해한 것 같다. 물론 뉴에이지 뮤지션들 중에서는 진짜 뉴에이지의 사상을 담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테지만 그런 몇몇의 뮤지션들 때문에 정말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싶었던 뮤지션들의 말까지 무조건 뉴에이지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좋지않다고 본다.

그리고 위의 글 중에 어느 고인님께서 쓰신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정말 뉴에이지의 사상을 가지고 하는 음악인지 아니면 단지, 하는 스타일이 비슷하다 하여 뉴에이지 음악으로 분류된 음악인지. 여기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라는 것은 아마 내 생각으로는 Deviation New age music 장르 같다. Deviation New age music 장르 같은 경우는 원래의 뉴에이지 음악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다른 뉴에이지 뮤지션들과 못 어울리는 듯 하다.

낙태 동성애 미신조장 등 기존의 윤리관을 파괴하는 요소가 많기에 나쁘다고 설명할 수 밖에 없다면 나는 우리 대중가요가 뉴에이지 음악보다는 더 그런 요소가 많지 않나 싶다. 음악이라면 작곡, 연주 제작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야하고, 누가 어떤 의도로 그 곡을 만들고 연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솔직히 뉴에이지 음악 중 가장 대중적인 것이 어쿠스틱한 음악이며 악기의 선율로 되어있는 음악이 많은데, 작곡 연주 제작자의 영적 상태까지 들먹이는 것은 마치 기독교가 선정해 준 음악만이 좋은 음악이라는 소리로 들린다. 그리고 누가 어떤 의도로 연주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세상 어떤 뮤지션이 연주 할 때 (특히 연주곡) “이것은 사탄의 음악이다”라고 생각하며 연주 하겠는가. 진정한 뮤지션은 자기가 연주하는 음악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연주하는 동안은 심혈을 기울여 연주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입관이 문제인 것 같다. 나쁘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결론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면 뉴에이지 음악은 사탄의 활동이라 하는 것 보다 단지 음악의 한 종류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뉴에이지 음악이 힐링(healing) 뮤직으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사람의 뇌는 단순하다. 정말 그렇다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된다. 뉴에이지 음악을 계속 나쁜 쪽으로 몰아붙인다면 정말 자기 자신에게는 사탄의 계시로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의 문제와 마음의 병은 하나님을 통해서 ‘만’ 치유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억지인 감이 없잖아 있다. 음악치료의 효과는 입증되고 있으며 음악 치료사라는 직업이 유망직종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는 우기는 것 밖에 들리지 않는다.

뉴에이지 음악이 사탄의 음악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이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흘러야 할 것 같다.
기독교 측에서도 조금 더 생각을 열고 뉴에이지 음악 쪽에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할 때까지... 어쩌면 결론이 안 나고 영원한 미제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세계적인 뉴에이지 음악 뮤지션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나마 많이 알려지고 현재 주목받는 뉴에이지 음악 뮤지션이라면 한국계 영국인 yiruma 정도?

현재 일본에서는 뉴에이지 음악을 사탄의 음악이라긴 보다 음악장르로서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진 뮤지션들도 일본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뉴에이지 뮤직을 보면 아직 발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역사가 짧은 만큼 하나의 장르로서 보강해야 할 점도 있다.
아직 뉴에이지 뮤직의 정의조차도 확실하지 않은 만큼 많은 발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나라 뉴에이지 뮤지션들의 공연도 활발해 지고 더 좋은 뮤지션들이 많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뉴에이지 뮤직계도 언젠가는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당당하게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Special Thank You to

간디 식구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논문 쓰는데 도움 주시고 힘을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해요!
(특히 같이 전산실에서 밤새며 새우잠 잤던 라탱.
그리고 힘내라며 맛있는 음식 사주셨던 강산이 아버님...
내 논문표지를 이쁘게 만들어준 난슬양.
논문 요약문 만들어 준재형이.
마지막으로 논문 갈지도 않던 내 논문을 겨우 논문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주신 필선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참고문헌

Newage Sad

<http://www.lighthouse21.co.kr/qna02.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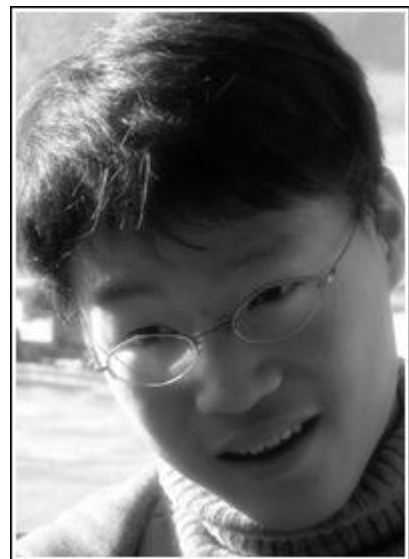
센티메탈워크

뉴에이지 마이너 블루

휘레쉬이모면

[간디company 모델개발을 위한 기초적 연구]

- 하태우



1987년 8월 1일 서산 ○○ 산부인과 출생
선화유치원-좌동초등학교-간디중학교
취미 알까기, 기타치기, 나이트 댄스추기, 주접떨기,
랩하기, 그래피티로 콘테이너 문짝 망치기, 공부, 독서
특기 공부(?), 이상한 춤추기, 가끔 주접떨기
<주]Milk candy[접>, <남중 All star (축구)>, <댄스부 '혈' 지도교사>,
<구렛나루파 행동대장>, <over actors 기타리스트>, <로마나이트>, <신와>,
<기숙사프로젝트>, <인·동·추>, <기타리스트(짱)>, <간·락·연>, <방송부(G.B.S)> 소속
별명 개구리
장래희망 천문학자, 멋진 남편, 멋진 아빠, G.F.T.(Great Father Taewoo)
작우명 “나, 너, 우리”

“간디학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을 만들면 어떠한 기업의 모습이 될까?
공동체적인 기업이 생긴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생각에서 논문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하는 이상적인 기업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에 의문점을
가지고 이런 기초적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문 중에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신

- ① 간디의 생애와 그의 정신
- ② 간디의 정신과 간디COMPANY와의 관련성
- ③ 간디학교

2. 원칙

- ① 모범삼을 공동체(떼제공동체)

3. 구체적인 활동

III. 결론

IV. 참고자료

간디company모델개발을 위한 기초적 연구

7번 하태우

I. 서론

간디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3년 정도 학교를 다니면서 가면 갈수록 학교에 많은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간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논문에서는 간디학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을 만들면 어떠한 기업의 모습이 될까? 공동체적인 기업이 생긴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생각에서 논문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이상적인 기업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에 의문점을 가지고 이런 기초적인 연구를 하게 되었다.

간디company가 걸어야 하는 길은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다. 그래서 매우 무리가 많이 따를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확실히 이 사회 구조에선 기업들은 너무 이익만 생각한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공해사업들을 못사는 나라의 사람들을 낮은 임금을 주며 사람을 종처럼 다룬다. 하지만 낮은 임금을 받고 일 하면서도 가족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 그러다가 결국 몸을 망친다. 강대국들의 욕심에 단지 못사는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학대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의 욕심 때문에 소비자나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기업은 많은 이윤을 남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 진다.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 진다.

간디company는 생태적이고 자급자족하며 공동체적이다. 생태적이란 것은 자연의 진리를 파괴하지 않고 조상들이 그랬듯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대도시들은 자연의 진리를 파괴하며 편안하고 실속을 찾는다. 그 결과는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자연과 순환하는 고리가 너무 넓어지고 먹이 사슬이 끊기기 시작한다.

공동체 정신은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하고 지켜야 하는 정신이다. 조직은 서열이 존재한다. 그래서 조직은 개인의 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확실히 구분된다.

공동체는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역할과 책임이 있을 뿐이다. 공동체에서는 같이 기뻐하고 슬퍼한다. 그리고 공동체 내의 불의는 모두가 같이 책임을 진다. 그것이 좋은 점이다. 서열은 낮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 조직은 낮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높은 사람들은 더 높아지는 형식의 시스템이다.

보통의 기업은 보다 많은 이윤, 더욱 빠른 생산을 원한다. 그러기 위해 회사는 노동자에게 가족이 있던, 사정이 어렵건, 구조조정을 해 버린다. 엘리트 들은 살아남는 것이다. 엘리트 들은 좋은 가정환경에서 생긴다. 정작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거리로 나간다. 기업의 욕심 때문에 노동자들은 피해 받는다.

간디company는 자급자족해야한다. 욕심을 내면 누군가는 피해 입게된다. 반면 자급자족

의 정신은 필요한 만큼만 벌고 쓴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하나를 얻으면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가 끝없이 일어난다.

간디company는 자급자족하며 남는 것은 봉사하고 기증한다. 이렇게 해야만 욕심과 불의의 사회를 아름답고 사랑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II. 본론

1. 정신

①간디의 생애와 그의 정신

간디는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이자 건국의 아버지이며, 마하트마란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다.

인도의 포르반다르에서 1869년에 출생하였고 그의 부모는 힌두교도로서, 간디는 유년 시절부터 종교적인 감화를 많이 받았다. 그는 13살 때에 동갑인 카스투루바이와 결혼하고 1888년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변호사 자격증을 얻어 귀국하였다. 1893년에는 어느 회사의 고문 변호사가 되어 남아프리카로 갔다. 그곳에서 인도인에 대한 차별 대우에 항의하면서 비폭력주의에 입각한 불살생을 기본 사상으로 하는 이른바 '간디주의(반영 항쟁에 내건 비복종, 비협력, 비폭력주의적 무저항 주의)'가 싹 텄다.

1915년에 귀국해서 노동 운동과 인도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인도 국민회의파를 강화시켰다. 1919년에는 로울라트 법에 반대하여 최초의 반항운동을 지도하고, 그 후 1930년에 소금전매법에 반대하여 '소금의 행진'등을 지도하였으며, 가끔 투옥되기도 하였다.

인도의 독립 후에도 이슬람교도와 힌두교의 융화에 힘쓰다가 1948년 뉴델리에서 광신적인 힌두교도에게 암살되었다. 저서로는 '자서전', '비폭력으로부터 오는 힘' 등이 있다.

간디의 명언

-나는 인도의 한 시민으로써, 양심을 존중하는 한 사람으로써 인도를 위해 정의를 행하고자 한다.

이 신념 때문에 처벌된다면 나는 서슴치 않고 중죄인이 될 명예를 얻고자 할 뿐이다.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온갖 눈물을 닦아내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전쟁은 절대악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가지 확실히 좋은 일을 한다. 그것은 공포를 몰아내고 표면상의 용기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②간디의 정신과 간디company와의 관련성

간디의 사상과 정신은 아주 많다. 불복종, 비폭력, 공동체, 진리 등등 중에서 꼭 간디company에게 필요한 정신을 꼽는다면 공동체 정신과 진리를 따르는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간디의 공동체는 영국의 폭력을 이기는 힘이 되었다. 독재는 불만이 생기고 반항의 세력이 생긴다. 하지만 공동체는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이 없

다. 간디company도 그런 간디의 공동체를 본받아야 한다. 공동체에는 조직을 이기는 힘이 있다. 폭력을 이기는 힘이 있다. 탄압을 이기는 힘이 있다.

간디는 진리를 따랐다. 진리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었다. 간디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손수 물레를 돌리고 불편함을 택했다. 기계화 된 세대에 살고있는 우리는 잘 이해가 안가지만 현대사회에도 그런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고집이 필요하다. 진리에는 많은 것이 존재한다 자연의 진리 등등... 기업도 따라야 할 진리가 있다. 그 진리를 지키고 가꿔 나가야한다. 간디company는 그런 기업의 진리를 따라야 한다. 정의를 따르고 비겁하면 안된다. 오로지 진실을 따르고 정직해야 한다.

③간디학교

(ㄱ)간디학교의 교육철학

간디학교의 교육철학은 "사랑"과 "자발성"의 두 원칙으로 표현되고있다.

사랑의 원칙이란 교육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랑의 원칙이란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 사이에 우정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에 대한 믿음, 서로의 행복과 기쁨을 비는 순수한 기도와 축복, 그리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자발성의 원칙이란 모든 가르침과 배움은 자발성을 가질 때만 그 가치가 있다는 원칙이다. 강제적으로나 타의에 의해 마지못해 이루어지는 가르침이나 배움은 결코 기쁨을 낳지 못하며 오히려 불행과 고통을 초래한다고 본다. 순수한 자발성은 진정한 자아의 표현이며 곧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의미한다.

사랑과 자발성은 서로 의존적이다. 사랑에 기초한 교육은 결코 강요되거나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발성을 전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발성에 기초한 교육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배움과 가르침이 순수한 자발성 위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비로소 참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간디학교는 다음과 같은 학교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대형화되어 있는 학교를 탈피하여 작은 학교를 지향하며, 스승과 제자가 가족적인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학교가 되도록 하며,

둘째, 지성, 감성과 인격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교과와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셋째, 학생들의 삶에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과를 편성하며 이것을 통해 인생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지식습득과 인격을 키우고 자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넷째, 학생들의 집중력과 흥미를 위해 여러 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며,

다섯째, 학생의 능력을 고려하여 그 수준에 맞는 여러 단계의 학습을 지도하며,

여섯째, 학생회 활동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클럽 활동은 동아리 방식으로 운영, 성숙된 인간관계와 자기 계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일곱째, 기숙사 생활에서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우정과 사랑의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적극 지원하며,

여덟째, 식구총회를 열어 학교생활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문제점을 대화와 토론

으로 해결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며 학교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하여 실천적인 능력 및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도록 도우며, 아홉제,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의 진정한 탁월성을 발휘하도록 도우며 교사들이 이를 지원하도록 교사 교육도 이루어지도록 한다.

간디학교의 교육철학은 간디의 정신과 흡사한 곳이 많다. 간디학교는 '사랑'과 '자발성'을 가르친다. '사랑'과 '자발성'이라는 말은 개인을 배려해 주고 감싸주며 개인의 자유가 있다. 간디학교는 이렇게 해서 똑같은 인간이 생길 수 가 없다. 자유 속에서 고민하고 사랑하고 느끼면서 삶이 무엇인지 주어진 달란트는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고뇌한다.

이렇게 좋은 간디학교의 정신은 교육만이 아니라 문화로 뻗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디학교도 간디company로 발전해야 한다.

2. 원칙

조직은 언젠간 허물어진다. 그 정신의 기반이 탄탄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동체는 오래 남는다. 현재 간디의 정신은 굉장히 많은 공동체를 낳았다. 간디company가 오래 지속되려면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욕심을 부리면 사람들은 등을 돌린다. 오로지 열심히 일해서 원하는 만큼 얻고 남는 것은 봉사하며 자급자족의 정신을 지켜나가야 진정한 공동체의 정신을 지킬 수 있다. 공해사업은 하면 안 된다.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하여 있는 곳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하여 지구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간디의 정신과 간디학교의 정신을 통합시켜 하나의 공동체로 삶의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 순환모델이어야 한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졸업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사랑'과 '자발성' 자유와 배려의 정신 아름다운 삶을 하나의 문화로 세계에 알릴 수 있다.

①모범삼을 공동체

로제 수사는 그리스도인의 분열과 인류의 갈등을 극복하는 길을 모색하면서 떼제 공동체를 시작했다.

1940년 8월, 스물 다섯 살의 청년 로제는 폐허가 되다시피한 동부 프랑스의 작은 마을 떼제(Taize)에 홀로 와서 정착했다. 당대의 고난 한복판에서 매일 매일 화해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그는 우선 피난민, 특히 나찌 독일의 점령지를 피해 나온 유대인들을 숨겨 주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독일군 포로들을 맞이했다.

떼제의 창설자는 첫 2년간 혼자 지냈다. 그 뒤 차츰 다른 형제들이 공동생활에 동참하여 1949년 일곱 명의 형제들이 독신 생활, 수도원장의 직무 인정, 물질적 영적 재산의 공유 등 세 가지 서약으로 종신 수도 서원을 했다. 1952년 로제 형제는 떼제의 규칙을 작성했다. 첫 수사들은 다양한 개신교회 출신이었지만 오래지 않아 가톨릭 신자들이 입회했다. 떼제의 형제들은 어떤 기부나 현금도 받지 않는다. 심지어 가족의 상속도 받지 않으며 스스로 일해서 번 것으로 생활하고 다른 이들과의 나눔을 실천한다.

1957-1958년 이래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청년들이 떼제를 찾고 있다. 일요일부터 다음 일요일까지 일주일 단위로 연중 계속 열리는 젊은이 모임에는 매주 유럽과 다른 대륙 35-70개국으로부터 참가자들이 모이는데 어떤 주간에는 그 수가 6천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하루 세 차례, 공동체의 수사들과 함께 '화해의 교회'에서 공동기도를 드린다. 한편 1962년부터 떼제의 형제들은 소리없이 동유럽을 방문하거나 준비된 젊은이들을 파견해서 고립된 이들과의 접촉과 나눔을 쉬지 않았다. 그동안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떼제의 언덕을 다녀갔다. 이들은 모임 동안 신앙의 원천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일상 안에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오늘날 떼제 공동체는 25개국 출신 100명 가량의 수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20여 명은 방글라데시, 브라질, 세네갈,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 파견되어 있다. 수사들 중 일부가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떼제는 하나의 공동체로 남아 있다. 공동체에 입회하는 것은 프랑스 떼제에서만 가능하다. 대부분의 형제들은 떼제에서 1년 혹은 그 이상 자원봉사자로 머물면서 국제적인 젊은이 모임을 돕는 과정에서 공동체를 더 가까이서 체험한 다음 입회한다. 프랑스 떼제에는 한국인 수사들도 몇 명 있다.

한국의 떼제공동체

한국에는 서울대교구장 김 수환 추기경의 초청으로 1979년 형제들이 파견되어 현재 다섯 명의 수사들이 서울 화곡동에서 살고 있다.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서울에 사는 형제들도, 비록 한국에 오래 살더라도 여기에 지부를 만들어 정착하거나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업을 벌이는 일도 없다. 그들은 조용히 한국 사회와 교회의 삶을 나누면서 젊은이들이 깊은 기도의 맛을 보고 신자들이 영성 생활의 깊이를 더하도록 한국 교회를 도울 뿐이다. 떼제를 알리거나 "떼제의 모임"을 만들려 노력하는 일은 없다.

모두 유럽 출신인 이 형제들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나누고 갈라진 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한다. 이들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여러 교회와 모임에 초청되어 기도를 인도하기도 한다. 일본인 성직자와 신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더 깊은 이해와 친교를 가지도록 주선하고 뒷받침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화해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수사들 중에는 장기수, 사형수, 외국인 수감자들을 방문하는 데 전심하는 사람도 있다.

떼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떼제는 욕심을 내지 않았다. 단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했을 뿐이다. 떼제는 사회의 버림받은 자들을 적극 수용하고 사랑하였다. 피난민, 특히 나찌 독일의 점령지를 피해 나온 유대인들을 숨겨 주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독일군 포로들을 맞이했다. 떼제는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 였다. 스스로 벌고 스스로 나누었다. 원하는 만큼 얻고 남는 것은 서로 봉사하고 나누었다. 떼제 공동체는 자신을 축으로 한 어떤 '운동'도 조직하지 않았다. 그보다도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속한 교회, 이웃, 마을이나 도시에서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과 더불어 더 열심히 투신하도록 독려했다. 떼제는 어떻게 보면 문화를 가공했다. 그런 떼제의 아름다운 정신이 문화가 된 것이다. 간디 company도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간디 공동체 의 좋은 정신들을 하나의 문화로 완성시켜야 한다. 간디 공동체도 문화가 되면 좋은 것이 아주 많다. 문화가 되기에 모자라지 않는다.

간디company는 꿈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자기의 꿈과 관련 없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40대 남성의 사망률이 높다. 그것은 자아실현과는 관계없이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간디company는 단순히 돈과 관련되어서 자신을 확대하는 기업이 되어선 안된다. 자신의 꿈을 꼭 이루어야 하는 곳이다. 그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3. 구체적인 활동

간디company는 단순히 일회적이고 공해적인 사업이 아니라 전반적이며 정신적인 사업을 해야한다. 국민들의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딱딱한 생활을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간디학교의 졸업생들은 정말 다양한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가진다. 간디학교가 꼭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등등이 되지 않아도 훌륭한 삶,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간디 졸업생들은 정말 제각각의 길로 인생을 걸어간다.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정말 엘리트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음악을 사랑해서 음악가가 되는 사람도 있다. 미술의 매력에 빠져서 하늘빛은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 운동선수가 되는 사람도 있다. 간디company의 장점 중 꼽힐 수 있는 장점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network 가 형성되어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다 공동체에는 꼭 필요한 요건이다. 이 network를 통하여 간디company는 더욱 더 커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있다. 그렇다면 주말학교를 생각할 수 있다. 주말마다 tv에만 빠져있지 말고 맑은 환경에서 가족들과 2박을 보낼 수 있다면 매력적인 일일 것이다. 대화가 잘되지 않는 가정 상담도 하고 숲을 체험 해보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힘껏 소리도 쳐보고 마음의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활력으로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주말학교 같은 것이 있다고 해도 막상 실행으로 옮기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주5일제가 도입된다면 많은 시간이 남게된다. 그렇게 되면 주말학교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와서 많은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절학교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간디학교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계절학교를 하고 있다. 가족 계절학교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체험학습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더 확장해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노인들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문명은 농사와 같이 시작되었다. 농사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결코 무시해선 안되는 소중한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농사는 점점 잊혀져가고, 가치가 떨어져가고 있다. 간디company는 이러한 상황들을 잘 읽어서 농사의 중요성을 손수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먹을만큼 생산하고 남는 것은 봉사하는 자급자족 형태의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는 공해도 안 된다. 그런데도 애써서 자연을 파괴한 필요가 없다.

간디company에선 하나의 생태적인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간디학교의 생태마을처럼 좋은 환경과 좋은 경치에서 살아야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계속 도시에서만 살다 보면 각종 매연, 소음공해 등등으로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 나빠진다.

간디학교 학생들의 생각은 거칠 것이 없다. 주장이 분명하다. 간디학교 학생들은 식구총

회와 주를 여는 시간 등의 시간들을 통해서 듣는 연습과 말하는 연습을 한다. 그래서 하나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도 빠르고 자신의 주장을 말할 때는 거침없이 생각을 말하기도 한다. 간디학교 학생들의 글 역시 강력한 힘이 실려있다. 책은 사람들의 사고를 자극시킨다.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간디학교 학생들의 글을 함께 실어서 책으로 낸다면 사람들의 사고를 자극시키기 충분하다. 사람들은 간디에 대해서 새로이 알게 될 것이고, 새로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변화시킨다. 기분이 상해있을 때도 음악을 들으면 풀린다.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 마음을 차분히 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 간디가 걸어온 길을 음악으로 만들어 음반으로 만들면 그것도 하나의 문화 창조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다.

간디company의 활동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 간디정신 세미나도 개최하고 청소년 국제교류체험 등 갖가지 교류로 간디company의 정신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Ⅲ. 결론

간디company는 간디의 정신과 다른 훌륭한 공동체의 정신을 본보기로 자급자족, 생태적, 공동체적 회사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들은 자연 파괴적 공업, 개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다른 기업들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한다. 그래서 피해보는 쪽은 직장의 일반인들과 소비자들이다. 그래서 간디company는 계급이 없는 공동체적인 회사이다 일정한 역할은 주어지고 책임은 주어진다 하지만 누가 높고 낮음은 없는 공동체다. 그리고 간디company는 물질 자원이 아닌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생태적으로 생산적인 활동도 하고 모두 돕고, 모두 나누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의미보다는 간디 공동체의 성격을 많이 띤다. 그래서 간디company가 필요하다.

간디company는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사회구조상 처음엔 그다지 좋은 시선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도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끼고 있고 의식이 생기고 있다. 과거에 산업혁명 등으로 지구는 말할 것 없이 병들었다. 지금도 과거의 산업혁명 때 같이 여전히 서로 경쟁하며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채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너무 단단히 짜여진 조직으로 상사는 마음대로 명령을 하고 또 더 높은 상사는 마음대로 회사의 앞길을 바꾸기도 한다. 회사는 공동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사의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고 의견이 틀리다면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한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많은 불만을 낳는다.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일은 정말 힘들다. 과거의 독재자들도 문화를 창조해 내진 못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독재자들도 해내지 못한 문화창조를 간디company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예로 들었던 음악이나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화를 알려주고, 주말학교나 계절학교로 문화를 체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알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간디company의 성공가능성에 의문점을 던질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간디company가 걸어가는 길이 더욱 옳은 길이다. 물론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뒤쳐질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기업들은 그

들의 꿈을 짓밟기도 한다. 공동체적이면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다. 애써 지구를 파괴할 필요가 없다. 애써서 공해물질을 만들어 낼 필요가 없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사람이 살만큼만 얻고 남는 것은 봉사하면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이 더욱 도우며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IV. 참고자료

간디 자서전

<http://stormm.hihome.com/gandhi.htm>

<http://org.catholic.or.kr/tejegong/main.htm>

간디학교홈페이지

지금까지 도와주신 양쌤, 재화아버님 그리고 다른 모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나를 도와준 후배님들 정말 감사 드립니다.

[일상생활속의 폐품을 이용한
실용미술]

- 함경우



1987년 부산 탄생
고덕유치원-좌동초등학교
취미 오래된 물건 수집, 요리
특기 안 쉬고 계속 잠자기
좌우명 공부는 인생에 모든 것이 아니다.

“이번 논문을 계기로 얼마나 많은 폐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도 프라모델을 많이 만드는 만큼 폐품 제작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본문 중에서...

목차.

1. 서론.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

2.본론

-가정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폐품들의 종류

-버려진 쓰레기들의 재활용 쓰임새

-재료별 활용방안과 장단점

-제작과정 및 쓰임새

3.결론.

-폐품을 활용할 시의 장단점.

-앞으로의 폐품활용의 전망

4.후기

-논문을 쓰고 난 뒤의 소감.


1. 서론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

평소에 이런 제작 쪽에 관심이 많았고 짜여져 있고 가격도 높은 기성제품 보단 내가 만들고 싶은 걸로, 재료는 버려지는 폐품으로 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논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번 논문은 주제가 처음 결정했던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다. 처음이 가보고 싶은 학교 모형으로 만들거였지만 어쩌다보니 프라모델이란 주제까지 갔다가 이런 주제까지 와버린 그 점이 약간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은 이 주제에 가장 만족하고 있다.

폐품의 사전적 의미:

폐 : 품 (廢品) [폐-/폐-]  못 쓰게 되어 버린 물품. ¶ ~ 활용 / ~ 수집.

2. 본론

1. 일상생활의 폐품을 활용.

일반 쓰레기들로 재활용하기.

보통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쓰레기들을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한번 활용해보자.

내가 생각하는 폐품 활용하여 만들기.

예전부터 학교에서는 미술시간과 환경 캠페인을 통하여 학생들이 많이 접하는 기회가 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2. 활용할 수 있는 재료들의 예

1. PET병으로 만들기.

음료수를 마신 뒤 남은 PET병으로 만들어보자.

2. 찜 종이로 만들기.

길바닥에 찜 종이를 하나들씩 주워서 만들어보자.

3. 양초로 만들기.

다쓴 양초를 몽당 크레파스 곱게 갈아 섞은 뒤 다시 모양을 내어 굽혀보자.

4. 지우개로 만들기.

같은 학급 아이들이 버리거나 흘리고 가는 지우개를 모아서 여러 가지 조각들을 만들어본다.

3. 재료별로 나눈 제작과정.

1) 먼저 폐품인 PET병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주전자를 만들어 봅시다.

①. 준비물

PET병 2개(1.5L), 송곳, 글루건, 만능 톱, 스카치테이프, 가위

②. 제작과정

①. 폐품인 PET병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주전자를 설계한다.

②. 1개의 PET병을 반으로 자른다.

- ③. 위 부분을 대각선으로 잘라 주전자 꼭지 모양으로 만든다.
- ④. 아래 부분의 중앙에 구멍을 뚫고 주전자 꼭지를 글루건 으로 붙인다.
- ⑤. 주전자뚜껑은 다른 PET병의 밑 부분을 오려서 만들고, 손잡이도 만든다.
- ⑥. 병마개 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끼우면 물뿌리개로도 사용될 수 있다.

PET병의 장점: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만들기도 간편해 쓰기에 좋다.

2)뾰족종이로 간단하게 만드는 장식용 거미를 만들어 봅시다.



- ①.준비물
뾰족 종이 2장, 커터 칼

②. 제작 과정

- ①. 껌 종이1장을 길고 가늘게 4쪽으로 찢개고(다리), 나머지 한 장은 직사각형 꼴로 접는다.(몸통)
- ②. 가는 종이들은 양옆으로 얇게 만든다.
- ③. 얇게 만 종이는 몸통 종이에 넣고 푹푹 만든다.
*[빈틈이 많을수록 잘 꾸겨진다.]
- ④. 다 만 뒤에는 거미다리모양으로 조금씩 모양을 잡아준다.
- ⑤. 마지막으로 몸을 납작하게 누르고 모양을 잡아주면 완성.

③. 다음으로 양초로 만든 과일 양초입니다.

- ① 준비물: 양초, 녹일 용기, 과일.(예를 들어 저는 사과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래파스 원하는 색상1개.
- ①. 사과를 등글게 절단한다.
- ②. 속을 말끔히 파낸 후 수분을 건조 시킨다.
- ③. 중탕한 파라핀을 사과 중심에 서서히 부어준다.
- ④. 5분 정도 경과 한 후에 심지를 고정시킨다.
- ⑤. 심지가 옆으로 기울어지는 경우 나무젓가락 사이에 심지를 넣으면 옆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 ⑥. 냉장고에서 5분만 넣어두면 맛있어 보이는 사과양초 완성.

*주의 점

양초에는 나뭇대로 20-30% 정도의 수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움푹 파이는 것입니다. 움푹 파인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파라핀을 부어 주면 윗부분이 편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음방 색이 누렇게 변색되기 때문에 결면에도

붓으로 밀랍(양초)을 발라주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하시긴 힘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렌지나 파인애플에 해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양초를 녹이다 불이 붙으면 큰일 나니 조심!(큰불이 날수 있습니다.)

①양초의 장점: 행사 때 초를 많이 쓰고 다 녹으면 버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회나 성당행사때 다 쓴 뒤 버려지는 양초를 건져서 활용해보자. 그리고 양초에 색을 넣고 싶을 땐 아이들이 쓴 크래 파스를 곱게 가루내어 잘 녹인 양초에 섞어서 쓰면 된다. 그리고 녹여서만 만드는 게 아닌 만지락 왁스란 양초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양초와는 달리 지점토와 같이 반죽을 만지작거리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 나와있는 양초관련서적은 매우 적다. 그중에 <양초 공예교실> 이 책만큼 자세히 설명 되어 있는 책은 드물다.

②양초의 단점: 보통 양초를 녹이다 불이 붙는 경우에는 대개 쇠그릇으로 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쇠그릇에 할 경우에 차갑던 그릇에 갑자기 높은 열이 가해지며 그 열이 양초로 옮겨가면서 불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불붙으면 먼저 젖은 수건을 그릇 안에 넣으면 된다.



* 이것이 만지락 양초로 만든 자료입니다.

4. 지우개로 도장 만들기.

①.준비물: 미술용 지우개(적당히), 커터 칼(수월한 작업을 원하면 조각용 칼도 된다.), 니스.

* 제작 과정

- ①. 먼저 지우개조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설계이다.
- ②. 설계가 끝났으면 연필 으로 잘라낼 부분을 그린다.
- ③. 표시한 부분들을 파내고 보기 싫은 각들은 모두 잘라낸다.
- ④. 마지막 작업으로 니스를 바르면 완성. 원한다면 도색도 가능하다.

지우개의 장단점:

장점으로 미술용 지우개는 아주 다루기가 쉬우며 구하기도 쉬운 편이다.
 하지만 단점으로 지우개는 아이들이 자주 버리는 편이지만 미술용 지우개를
 학급에서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조각을 하기위해 구입을 하는 경우
 가 찾아진다.

③ 결론

1) 폐품을 쓰면 장점.

- : ①. 먼저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 : ②.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 : ③. 버릴 물건들을 작품화 하므로 고정관념과 의식의 전환.

2) 폐품을 이용할 경우 생각해볼 문제점들

: 재료를 재구성할 시 쓰이는 접착제는 인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

3) 앞으로 폐품활용의 전망.

: 단순히 폐품 활용이 아닌 예술로의 승화 *부록 참조

④. 후기

논문을 끝낸 뒤..

논문을 쓰면서 많이 힘들었던 점은 버려진 재료들을 구하기가 힘이 들었다
 기 보단 꾸준히 폐품을 모았다면 개인이 직접 부담할 일은 없었을 텐데..라
 는 생각이 들었고 재료도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재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한번은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문 마지막 작업 시엔 밤도 새웠기 때문에 몸 상태가 평소 때와 달리 아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에서도 자료가 안나와 손으로 일일이 손으로 쓴 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문을 계기로 얼마나 많은 폐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도 프라모델을 많이 만드는 만큼 폐품 제작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신 분들.

먼저 주제에 대한 자료를 많이 제공해주신 태영철 선생님

그리고 논문에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신 김병삼 선생님

디지털 카메라를 빌려주신 노경환 선생님

논문에서 부족한 점을 메꾸어 주신 오영란 쌤.

논문 중에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고쳐주신 김인섭 선생님.

이외에 많은 간디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출처: 양초에 대한 자료: <http://cafe.daum.net/candlehouse>

검 종이 제작: <http://www.ahehheh.com>

부록. -페 품 예술-

*재활용 페 품의 미술사적 관점

- 팝아트(POP-ART) -

팝아트란.

'팝'은 대중적인 미술을 의미한다. 최초의 팝아트 작품은 리처드 해밀턴의 [도대체 무엇이 오늘날의 가정을 이처럼 색다르고 매력 있게 만드는가?](1956)로 간주되는데, 위트가 넘치는 이 콜라주는 잡지광고를 잘라내어 집안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팝아트의 선구자로는 상품과 도시의 쓰레기에 관심을 보인 다다와 1920년대 럭키 스트라이트 상표의 담뱃갑을 주제로 한 미국의 모더니스트 스튜어트 데이비스의 회화와 콜라주가 포함된다. 이런 평론가들은 누보 리얼리즘을 팝의 전초로 여기기도 한다. 사실 팝아트로 요약되는 대중문화와의 연대는 1950년대 영국, 프랑스, 미국의 시대정신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광고와 대중매체를 포함하는 대중문화는 팝 아트에 주제를 제공했다. 앤디 워홀은 마를린 먼로 등 유명한 인사의 초상을 담은 인물회화와 실크스크린 판화를 제작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깊이 연구했다. 로이 리켄 스타인은 만화에서 형상과 표현 방식을 빌려 드로잉과 회화를 제작했다. 클레스 올덴버그는 옷핀과 얼음주머니 같은 일상용품을 위트가 넘치는 대규모 조형물의 주제로 탈바꿈 시켰다. 팝아트는 전후 소비주의에 대한 찬가인 동시에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반동이었다. 팝아트에서는 추상표현주의의 영웅적이며 개인적인 자세와 종교적이거나 심리학적인 내용을 배격했고, 미술과 삶에 대해 보다 장난스럽고 아이러니컬한 접근방식을 취했다. 대중문화와 대중매체와 기호학적 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네오지오, 차용 미술은 선구적인 역할을 한 팝아트가 없었다면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 오브제(Objet) -

미술의 역사는 오브제와 이미지의 대응관계 속에서 그 대립에 대한 해결을 찾고자 끊임없는 방법적 모색과 그 변화의 역사로 점철되어 온 것이며, 따라서 서양회화의 역사는 <오브제>와 <이미지>의 끊임없는 대화로서 <오브제 그 자체>와 <이미지 그 자체>를 양극으로 하는 영원한 진동운동이라 할 것이다.

본래 오브제는 물건, 물체, 객체 등의 의미를 지닌 프랑스어이다. 라루스사전에서는

오브제의 의미를 "사고하는 전체나 주체에 대립하는 것"이라 한다. 오브제에 의한 첫 시도는 피카소 브락크 큐비즘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브락크는 미리 그려진 캔버스에다 나무와 대리석의 무늬를 모조한 벽지조각 하나를 붙임으로써 <빠빠에 끌레>라는 예술형식을 탄생시켰다.

브락크는 나중에 화면상에 실물들을 등장시켜 미술활동에서 물감이라는 재료가 아니라 새로운 재료로 종래 재료의 한계성을 없애버렸다. 큐비스트 에 이어 다다에 나타난 오브제의 선택은 생활과 작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우연적이고 충동적이며 직선적인 모습으로 선택되어진 것들 이었다. 그들은 대상에 대한 모든 합리적인 인식과 해석을 거부하고 새롭게 사물을 보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곧 오브제의 실체를 찾기 위한 운동이자 인간의 실체를 찾기 위한 운동이기도 했다. 다다의 작가로 마르셀 뒤샹은 1971년 뉴욕 앙데팡당 전에 변기<샘>을 출품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것으로부터 이미 존재하는 물체를 새롭게 한 조형적 표현의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만든다"는 것이 아닌 "선택 한다"는 것으로서 현대미술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제작'의 제 2단계로서의 '결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하면 일상 우리가 쓰는 때는 그러한 본래의 용도는 물론 의미까지도 말끔히 박탈당하며 바로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 사물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미처 경험하지 못한 물체 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오브제이다. 즉 예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물건이 본래의 일상 용도에서 벗어나 보는 사람에게 잠재된 욕망이나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를 말한다. 이 방법은 바로 욕망이나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를 말한다. 이 방법은 바로 언어의 무의식적인 함성에 의해서 새로운 시각언어가 형성되는 과정과 일치한다. 즉 사람과 물체의 상호 교통수단으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재하는 물건이나 물체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고와 이미지 사이에 형성된 관계항을 벗어나 현실 속에 존재하는 물건, 물체 그 자체로서 물적인 상태로 환원되어 인간의 주체에 대립하는 객체로서 드러나 시각대상 및 조형적 공간에 위치함으로써 미술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며, 그 공간 속에 산재하는 모든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브제는 "의식의 지향적 대상을 의미하고 우리의 의식과 행위의 대상뿐 아니라 관념적 대상도 포함된다." 오브제는 어떤 형식이나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자율성을 각 시대적인 요구와 함께 그 시대의 환경 또는 일반적인 관심사를 나타내고 인간과 대립하여 존재하는 것의 모든 것, 더 아나가 인간까지도 하나의 던져진 오브제로 취급되어 예술의 폭을 넓혔다.

[간디학교를 배경으로 한 허브이용법]

- 라운하



1988년 수원 출생
현재 구미 거주
구미형곡유치원-구미형곡초등학교-간디청소년자유학교재학중
애칭 라탱, 띨라
음악 듣는 것, 영화 보는 것, 지오디 비판하기, 사랑이에게 울림의 시간하기,
대구시내 우리집처럼 들락날락 거리기 좋아함
<미남의 正石> 소속

“로즈마리의 향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향기라고 해서 달지도 않고 강하지만 산뜻한 솔잎 향입니다. 처음으로 맡은 허브향이 로즈마리의 향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고 또 허브의 향들은 다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계속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본문 중에서...

* 목차

I. 서론

논문의 주제를 허브로 택할 때까지의 이야기, 허브로 택한 이유

II. 본론

1. 허브란?

2. 허브의 역사, 유용성

3. 한국 허브

III. 결론

1. 간디학교 주위의 허브

2. 간디학교에서 허브를 이용해 비상약으로 쓴다면,

3. 간디학교를 배경으로 허브를 심는다면,

IV. 나의 이야기

이 논문을 쓰고 나서 하고 싶은 말, Special Thanks To.

I. 서론

내가 허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간디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이다.

그 전까지는 그냥 초록색하면 풀을 떠올리는 정도였다.

허브라고 특별히 구별되어 있다는 걸 몰랐다.

간디학교에 와서 식물을 접할 기회가 그나마 많아져서 허브라는 단어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랑이가 로즈마리를 사왔다. 그 로즈마리를 기르는 걸 보면서 허브에서 향이 난다는 것을 알았고 허브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에 꽤 유용한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허브에 대해서 약간 알고 있다가 잊혀져 갈 때쯤 논문을 쓰게 되었다.

원래 논문을 유리와 함께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따로 하게 되었다.

주제를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며 인터넷을 뒤지다가 허브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사이트에서 허브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사진을 보니 처음 허브란 걸 알았을 때가 생각났다.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논문까지 오게 되었다.

내가 허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도 없고 허브종류에 대해서는 로즈마리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논문이 전문적이고 화려한 논문이 될 수 없을 것이란 걸 안다. 하지만 이 논문을 통해 허브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될 수 있었으면 하고 우리학교 사람들도 보다 허브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II. 본론

1. 허브란?

허브는 푸른 풀을 의미하는 라틴어 허바(Herba)에 어원을 두고 있다. 흔히 유럽의 방향성 식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고대 국가에서는 향과 약초라는 뜻으로 이 말을 썼다고 한다.

허브라고 하면 흔히 유럽의 방향성식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고대 국가에서는 향과 약초라는 뜻으로 이 말을 썼다고 한다. 기원전 4세기경의 그리스 학자인 Theophrastus가 식물을 교목, 관목, 초본으로 나누면서 처음 허브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잎이나 줄기가 식용과 약용으로 쓰이거나 향과 향미로 이용되는 식물' 을 허브로 정의하고 있다. 또 요즘 사람들은 '꽃과 종자, 줄기, 잎, 뿌리 등이 약, 요리, 향료, 살균, 살충 등에 사용되는 인간에게 유용한 모든 초본 식물' 을 허브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허브는 잎과 꽃, 줄기와 뿌리 등이 식용 또는 약용에 쓰

I. 서론

내가 허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간디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이다, 그 전까지는 그냥 초록색하면 풀을 떠올리는 정도였다. 허브라고 특별히 구별되어 있다는 걸 몰랐다. 간디학교에 와서 식물을 접할 기회가 그나마 많아져서 허브라는 단어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랑이가 로즈마리를 사왔다, 그 로즈마리를 기르는 걸 보면서 허브에서 향이 난다는 것을 알았고 허브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에 꽤 유용한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허브에 대해서 약간 알고 있다가 잊혀져 갈 때쯤 논문을 쓰게 되었다, 원래 논문을 유리와 함께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따로 하게 되었다, 주제를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며 인터넷을 뒤지다가 허브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사이트에서 허브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사진을 보니 처음 허브란 걸 알았을 때가 생각났다,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논문까지 오게 되었다, 내가 허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도 없고 허브종류에 대해서는 로즈마리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논문이 전문적이고 화려한 논문이 될 수 없을 것이란 걸 안다, 하지만 이 논문을 통해 허브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될 수 있었으면 하고 우리학교 사람들도 보다 허브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II. 본론

1. 허브란?

허브는 푸른 풀을 의미하는 라틴어 허바(Herba)에 어원을 두고 있다. 흔히 유럽의 방향성 식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고대 국가에서는 향과 약초라는 뜻으로 이 말을 썼다고 한다, 허브라고 하면 흔히 유럽의 방향성식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고대 국가에서는 향과 약초라는 뜻으로 이 말을 썼다고 한다, 기원전 4세기경의 그리스 학자인 Theophrastus가 식물을 교목, 관목, 초본으로 나누면서 처음 허브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잎이나 줄기가 식용과 약용으로 쓰이거나 향과 향미로 이용되는 식물' 을 허브로 정의하고 있다, 또 요즘 사람들은 '꽃과 종자, 줄기, 잎, 뿌리 등이 약, 요리, 향료, 살균, 살충 등에 사용되는 인간에게 유용한 모든 초본 식물' 을 허브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허브는 잎과 꽃, 줄기와 뿌리 등이 식용 또는 약용에 쓰

이거나 향기나 향미가 생활에 적용되어 효과를 기대하고 이용되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허브에 대한 개념은 외국에서 도입된 식물에 한 정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도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곳에서 이용하여 왔다. 옛 어머니들은 배합, 박하 등 향기로운 들풀을 뒷마당, 장독대 주변에 심어 주변에서 쿼퀴한 냄새가 나는 것을 막았다 하니 허브가 얼마나 일상적인 식물이었는지 알 수 있다. 즉, 산 약초들, 예를 들면 쑥, 갯잎 등과 한방 처방전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식물들도 넓게는 모두 허브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다.

2. 허브의 유용성

허브는 방향성 허브에서 향신허브, 약용허브, 미용허브 등 종류와 쓰임도 다양하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의 선조는 들판의 풀과 열매를 식량이나 치료약재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하여 왔다. 그러면서 식물의 유용성과 효용성에 대해 깨닫게 되어 이것을 정리했다. 인간에게 유용하고 특별한 식물을 구별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특별한 식물을 허브(Herb)라 한다.

원산지가 주로 유럽, 지중해 연안, 서남아시아 등인 라벤더(Lavender), 로즈마리(Rosemary), 세이지(Sage), 타임(Thyme), 페퍼민트(Peppermint), 오레가노(Oregano), 레몬밤(Lemonbalm)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단오 날에 머리에 감는데 쓰던 창포와 양념으로 빼놓을 수 없는 마늘, 파, 고추 그리고 민간요법에 쓰이던 쑥, 익모초, 결명자 등을 모두 허브라고 할 수 있다. 지구상에 자생하면서 유익하게 이용되는 허브는 꿀풀과, 지치과, 국화과, 미나리과, 백합과 등 약 2,500종 이상이 있으며, 관상, 약용, 미용, 요리, 염료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허브는 약용식물로 옛날부터 건강의 유지와 병의 치료에 쓰이는 약초로서 차나 약술 등 평소에 마시는 음료에도 포함된다. 또 방충, 방부제로서 해충구제와 식료품이나 의류의 보존에도 귀중한 역할을 하며 염색에도 쓰인다.

또 허브를 음식물의 부향제나 향수의 원료로 쓰이는 식물이라고 관념지어서 좁은 뜻의 허브로만 알기 쉽다. 물론 허브에는 향기가 좋은 것이 많아서 이 방향(芳香)을 이용하여 날것(生)으로 또는 건조시키거나 기름을 추출하여 포플리, 부향제로도 쓰인다.

허브를 채소라 하는 것은 요리에 쓰이는 향미 초를 일컫는다. 채소도 처음에는 풀에 불과했지만 개량을 거듭하면서 영양원이 되었다. 따라서 허브는 향미를 지닌 채소라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향신료는 Spice 또는 Herbs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이는 식물성물질 즉, 식물의 꽃, 열매, 씨, 수피, 뿌리 등 방향 자극성이 있고 음식물에 향미를 첨가하여 식용을 촉구증진 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향신료는 허브의 하나이면서도 독립된 것

로 인식되어 왔다.

3. 허브의 역사

허브는 고대인들에게 약초로서 큰 힘을 발휘하였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5,000년경부터 허브를 사용하였으며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2,800년경에, 그리고 바빌로니아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 허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고대에 여러 가지 이용법이 체험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병이나 상처에 달여서 먹거나 외용으로 바르기도 하고 때로는 태워서 연기를 흡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몸에 지니고 있어서 향기를 맡거나 몸에 발라 염색하기도 했다. 그래서 불쾌한 냄새와 동물이나 물고기가 썩는 등 나쁜 냄새는 사악한 것으로 여기고 달콤하고 상쾌한 싱그러운 향기를 청정한 것, 선한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허브는 나쁜 병을 고치고 아픈 것을 물리치는 향기로운 제물로서 부정한 것을 물리쳐 신들을 즐겁게 한다 하여 제사의식의 훈향으로 쓰였다.

방부작용을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라에 이용하였다. 특히 왕후귀족이 죽으면 그 내장을 꺼내 버리고 각종 수지류와 정유, 향유 등 향기로운 향품으로 깨끗이 씻고 시체의 몸에 발라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미라를 만들어 보존해 언제든지 죽은 사람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고대의 허브의 발전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B.C 1,700년경에 만들어진 바빌론의 함무라비(Hammurabi)법전에 "만약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외과의사에게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수술한 외과의사의 손목을 절단 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외과수술을 피하고 식물을 약으로 써서 치료하게 되어 많은 유용식물들이 개발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당시 무덤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에는 식물의 치료 효과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또한, 허브의 향을 이용하여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승태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중세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르만족의 이동은 허브의 세계에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원래 중부유럽의 음울하고 한랭다습한 고층습원의 삼림지대에서 수렵과 목축으로 생활하던 민족으로서 그곳은 식용식물이나 채소, 과일 등이 거의 없다시피한 열악한 자연조건이어서 자연히 식량은 수렵에 의존해서 잡은 고기의 방부보존은 중요했다. 여기에 쓰인 허브나 스파이스의 역할은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했다.

게르만민족의 대이동 후 그들이 새로운 문화에 접하면서 형성된 중세의 문화 속에 허브나 스파이스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항해시대를 열고 식민지획득 전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이 말해주고 있다.

로마제국이 멸망하고 중세의 암흑시대 때도 허브만은 그들이 퍼트린 곳에서 쇠퇴

가에서도 가꾸어지게 되어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굳혔다. 그 당시는 유럽이나 지중해연안, 서남아시아 등의 모든 허브가 식용을 위해 재배했다.

근대를 연 항해시대와 그 뒤를 이어 식민지 획득 경쟁시대를 연 허브의 역사는 바로 스파이스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 스파이스의 대표는 후추(Pepper)를 꼽을 수 있다. 후추는 인도가 원산지고 어원은 산스크리트어에서 비롯된 것인데 인도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조미료로 쓰고 있다.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전해진 후추는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유럽에서는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며 손은제 향아리에 넣어 보관했다. 후추를 비롯한 스파이스를 찾아떠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등 열강이 대항해는 동양을 지배하는 식민지 획득으로 변하고 뜻밖의 신대륙 발견의 신기원을 만들어냈다. 미 대륙의 원주민 인디언들의 허브와 스파이스에 대한 지식을 배워 새로운 수많은 식물들이 유럽으로 전해졌으며 이 새로운 식물들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가 미 대륙의 고추가 오늘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향신료가 되었다.

그리스에서 허브연구가 시작되면서 서양에서는 식물성분의 병에 대한 효력의 유무를 연구했다. 갖가지 병이나 상처에 듣는 성분들이 밝혀지자 그 성분을 합성하려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18C부터 시작된 합성화학공업, 약품 제조공업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에 의해 화학 공업이 발전이 화려해 지자 자연에 바탕한 허브는 잊혀져 갔다. 그러나 20C 후반부터 월남전쟁을 계기로 과학만능에서 이야기되는 합성조미료, 보존제, 첨가제 등 화학물질에서 일어나는 부작용과 공해문제가 생기자 사람들은 반성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지금은 유럽 각국에서부터 일본에서도 허브이용 붐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고대에서부터 전해오는 치료목적의 약초의 역할도 있지만 지금은 요리나 미용, 장식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강화하는 하도록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병을 이겨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다.

3. 허브의 유용성

허브는 방향성 허브에서 향신허브, 약용허브, 미용허브 등 종류와 쓰임도 다양하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의 선조는 들판의 풀과 열매를 식량이나 치료약재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하여 왔다. 그러면서 식물의 유용성과 효용성에 대해 깨닫게 되어 이것을 정리했다. 인간에게 유용하고 특별한 식물을 구별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특별한 식물을 허브(Herb)라 한다.

원산지가 주로 유럽, 지중해 연안, 서남아시아 등인 라벤더(Lavender), 로즈마리(Rosemary), 세이지(Sage), 타임(Tyme), 페퍼민트(Peppermint), 오레가노(Oregano), 레몬밤(Lemonbalm)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단오 날에 머리에 감는

데 쓰던 창포와 양념으로 빼놓을 수 없는 마늘, 파, 고추 그리고 민간요법에 쓰이던 쑥, 익모초, 결명자 등을 모두 허브라고 할 수 있다. 지구상에 자생하면서 유익하게 이용되는 허브는 꿀풀과, 지치과, 국화과, 미나리과, 백합과 등 약2,500종 이상이 있으며, 관상, 약용, 미용, 요리, 염료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허브는 약용식물로 옛날부터 건강의 유지와 병의 치료에 쓰이는 약초로서 차나 약술 등 평소에 마시는 음료에도 포함된다. 또 방충, 방부제로서 해충구제와 식료품이나 의류의 보존에도 귀중한 역할을 하며 염색에도 쓰인다.

또 허브를 음식물의 부향제나 향수의 원료로 쓰이는 식물이라고 관념지어서 좁은 뜻의 허브로만 알기 쉽다. 물론 허브에는 향기가 좋은 것이 많아서 이 방향(芳香)을 이용하여 날것(生)으로 또는 건조시키거나 기름을 추출하여 포플리, 부향제로도 쓰인다.

허브를 채소라 하는 것은 요리에 쓰이는 향미 초를 일컫는다. 채소도 처음에는 풀에 불과했지만 개량을 거듭하면서 영양원이 되었다. 따라서 허브는 향미를 지닌 채소라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향신료는 Spice 또는 Herbs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이는 식물성물질 즉, 식물의 꽃, 열매, 씨, 수피, 뿌리 등 방향 자극성이 있고 음식물에 향미를 첨가하여 식용을 촉구증진 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향신료는 허브의 하나이면서도 독립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허브는 고대인들에게 약초로서 큰 힘을 발휘하였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5,000년경부터 허브를 사용하였으며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2,800년경에, 그리고 바빌로니아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 허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4. 허브의 종류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허브의 종류이다.

식물명	성상	높이 (cm)	개화기	꽃 빛	관상	이 용 법	향기
라벤다	상록 관목	60-120	여름	청, 진보라, 백	솜털잎	약용, 향료, 포플리	0
금잔화	1년초	30-50	봄-가을	오렌지	-	약용, 요리, 염료	X
로즈마리	상록관목	100-180	봄-가을	백, 청	가는 잎	요리, 약용, 차, 향료	0
레몬 글래스	속근초	100	-	-	역새 잎	차, 약용, 요리, 향료	0
딜	1년초	60-150	초여름	황	-	요리, 약용	0
세이지	다년초	30-70	여름	보라색	회록색	요리, 약용, 차, 포플리	0

마조람	다년초	30-50	여름	백색	달콤향	요리, 약용, 향료	0
오레가노	다년초	30-80	여름	핑크	-	요리, 약용, 향료	0
히습	상록관목	30-50	여름	핑크, 백, 청	-	요리, 차, 양봉, 약용	
페퍼민트	다년초	30-90	여름	핑크	자색잎	요리, 차, 향료, 약용	0
페니로얄	다년초	10-30	여름	핑크	-	약용, 염색, 포플리	0
치커리	다년초	30-150	여름	청	-	요리, 차, 약용, 염료	X
캐모마일	다년초	30-100	여름	백, 황	-	차, 약용, 포플리, 목욕	0
차이브	속근초	20-30	초여름	핑크, 자주	-	요리, 드라이플라워	0

5. 한국 허브

보통 허브라고 하면 서양에서 들여온 식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옛날부터 써오던 마늘, 파, 고추 등 이런 것들도 모두 허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이다.

식물명	성상	높이 (Cm)	개화기	꽃 빛	관상	이 용 법	향 기
참비비추	다년초	40-50	여름	연보라	꽃	식용	X
참나리	다년초	150	여름	황,적	꽃	식용, 약용, 절화	X
할미꽃	다년초	40	초봄	적,자	꽃	약용, 유독	X
패랭이꽃	다년초	30	여름	진분홍	꽃	약용	X
타래붓꽃	다년초	40	봄	청,자	꽃	관상	X
초롱꽃	다년초	30-40	여름	자주	꽃	관상	X
도라지	다년초	100	여름	청,백	꽃	식용, 약용	X
구절초	다년초	70	여름	백	꽃	약용	X
감국	다년초	50-70	가을	황	-	식용, 약용, 약술	X
뽕명	1년초	100	여름	황	-	약용, 차	X
둥글레	다년초	40	늦봄	백	-	약용, 식용, 지피	X
금낭화	다년초	60	봄	분홍	-	관상, 유독	X
진황정	다년초	30-40	늦봄	백	-	식용, 약용	X
제비붓꽃	다년초	50	봄	보라	-	관상	X
지치	다년초	30-70	봄	백	-	약용, 염료	X

청나래고사리	양치류	40-80	-	-	-	식용, 지피	X
투구꽃	다년초	60	여름	보라	꽃	약용, 유독	X
진범	다년초	60	여름	자주	꽃	약용, 유독	X
쥐오줌풀	다년초	60-90	봄	분홍	-	약용, 향료	X
톱풀	다년초	50-110	여름	백	꽃	약용, 식용	X
절굿대	다년초	100	여름	분홍	-	약용	X
정향나무	낙,활,관목	200	봄	백	꽃	향료, 정원수	0
해당화	낙,활,관목	100	여름	진분홍	꽃	약용, 향료, 조경	0
치자나무	상,활,관목	120	여름	백	꽃,잎	약용, 염료, 화목	0
조팝나무	낙,관목	120	여름	백	꽃	화목	X
접골목	낙,관목	200	여름	백	열매	약용, 화목	X
황벽나무	낙,소,교목	200	여름	백	열매	약용	X
초피나무	낙,활,관목	120	-	-	열매	약용, 식용, 향료	0
썰레나무	낙,덩굴	-	여름	백	열매	약용, 식용, 향료	0
제주조릿대	상,관목	40	-	-	잎	지피, 차, 약용	X
꺽	1년초	50-60	가을	홍	-	약용, 염료	X
참나물	다년초	30-60	여름	백	-	식용, 약용	X
향등골나무	다년초	50-100	여름	분홍	꽃	약용, 향료, 식용	0
차조기(지소)	1년초	50-100	여름	백	-	식용, 약용	0

6. 허브 키우기

현재 알려져 있는 2,500여 가지의 허브들 중 우리나라에서 계절의 특성상 100여종 정도가 기르기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허브 가든을 비롯하여, 허브관광농원, 허브음식점, 허브전문shop, 허브향기방 등이 늘고 있다.

요즘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대체요법으로 각광 받는 허브를 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자신의 취향과 허브를 키울 장소, 또는 이용하려는 목적에 적당한 허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참고 한 후 신중이 생각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키우면서 수시로 허브에 관한 정보를 쌓아가는 것이 허브를 키우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허브는 키우는 장소에 따라서 선택 할 수가 있다. 하루 4-5시간 정도 태양이 닿는 장소라면 허브를 기를 수 있다. 세이지, 향제라늄, 타임, 마리골드, 레몬딜, 차이브, 민트 등은 다소 해밭이가 안 좋더라도 기를 수가 있다. 한여름의 배란다의 태양의 복사열에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발이나 인공 잔디 등을 깔아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허브는 분이나 플랜터에서 자랄 수 있다. 화분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서부터 옹기분, 토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크기는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적응을 시켜가면서 점점 큰 것을 사용해야 한다. 딸기 상자 등에도 키울 수 있지만 이동하기 쉬운 것으로 골라서 심어야 한다. 주로 화분이나 플랜터에서 기를 수 있는 식물은 케모마일, 세이지, 타임, 타라곤, 차이브, 파슬리, 바질, 민트류, 하벤더, 레몬밤, 로즈마리입니다.

허브는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 품종이 많으므로 그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은 지중해 쪽에서 온 허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월동 가능 온도를 파악하여 대비해야 한다. 주로 화단에서 기를 수 있는 식물은 파인애플세이지, 타임, 페퍼민트, 차이브, 저먼케모마일, 히드코튼 라벤더, 오레가노이다.

대부분의 허브는 묘목에 직접 가까이 하더라도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묘목을 살짝 문질러 그 손가락을 코에 가까이 해본다. 그렇게 하면 어떤 향기가 나는지 알 수 있다. 또 묘목과 악수를 하는 듯한 기분으로 가볍게 감싸듯이 쥐었다가 그 손을 코에 가까이 해보는 방법도 있다.

익은 향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나 잘게 찢기 전에는 향기가 나지 않는 것도 있다. 자신의 취향에 따라 묘목을 고르는데 묘목이 많이 출하되는 것은 초봄부터 초가을 무렵까지이며 겨울철에는 종류가 많이 나지 않는다.

묘목 중에서도 향기가 좋은 것, 잎의 색이 짙고 윤기가 나는 것, 줄기가 굵고 색이 진한 것 새싹이 나오고 있거나 꽃봉오리가 붙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허브는 기본적으로 생육이 매우 강하여 어느 곳에서나 무리 없이 잘 자라지만 대부분이 양지바른 곳을 좋아하며 통풍과 보온성, 배수성이 양호하고 유기질이 많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 넓은 노지나 상록수와 낙엽수가 어우러진 정원 중 어느 장소이든지 햇빛이 충분하고 배수가 양호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브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허브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 ◎ 늘 푸른 허브 — 라벤더, 로즈마리, 타임, 히습 등.
- ◎ 화분에 기르는 허브 — 민트, 오레가노, 제라늄, 스위트 바이올렛 등.
- ◎ 습기에 약한 허브 — 로즈마리, 라벤더, 타임, 타라곤 등.
- ◎ 발아에 빛이 필요한 허브 — 바질, 민트, 차빌, 야로우, 딜 등.
- ◎ 빛이 있으면 발아가 힘든 허브 — 차이브, 로켓, 머스터드 등.

- ◎ 춘화 하는 허브 — 안젤리카, 스위트바이올렛, 로즈마리 등.
(휴면하고 있는 씨앗이 저온이 적당하게 되어 발아를 개시하는 것)
- ◎ 여름에 잠시 휴면하는 허브 — 타라곤, 차이브, 마조람, 페퍼민트 등.
- ◎ 추위에 강해 직파하는 것이 좋은 허브 — 차빌, 딜, 캐모마일, 안젤리카, 로켓, 코리안더, 단델리온, 치커리 등.
- ◎ 고온에서 잘 발아하는 허브 — 바질, 세이지, 타임, 민트, 라벤더, 루, 레몬그래스, 타라곤, 마조람, 로즈마리, 차이브 등.
- ◎ 휴면이 긴 허브 — 콩과, 수련과의 허브는 보존 상태가 좋으면 100년이 지난 뒤에도 발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 음지와 반음지에서 생육이 좋은 허브 — 레몬밤, 민트, 레르가모트, 세인트존스우트, 스위트바이올렛, 안젤리카, 야로우, 제라늄, 차빌 등.
- ◎ 가을에 뿌리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은 허브 — 로즈마리, 라벤더, 레몬그래스, 타라곤 등.
- ◎ 3월 상순에서 하순에 포기 나누기 하는 것이 좋은 허브 — 타라곤, 타임, 치커리, 차이브, 히습, 레몬그래스 등.
- ◎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한 허브 — 라벤더, 히드코트, 캐모마일, 레몬밤, 오레가노, 페퍼민트, 스피어민트, 베르가모트, 안젤리카, 탄지, 히습, 타임, 퍼플, 세이지, 야로우, 루, 타라곤, 펜넬, 세이보리, 런던, 캣트닙, 산토리나, 피버퓨, 세인트존스우트, 소프트, 치커리, 차이브, 보리지, 차빌 등.

8. 허브를 이용한 건강과 미용

허브를 이용해 생활에 적용시켜보았다.
이용법에 따라 고를 수 있다.

차	페퍼민트, 캐모마일, 레몬밤, 바질 등.
요리	오레가노, 바질, 세이지, 타임, 딜, 타라곤, 로즈마리, 마조람 등.
미용	라벤더, 로즈마리, 야로우, 레이디스 맨틀, 소프트, 단델리온 등.
약용	피버퓨, 에크니시아, 히습, 야로우, 머쉬멜로우, 세이지, 타임 등.
공예	호프, 베이, 라벤더, 캣트닙, 로즈 등.
방향	레몬버베나, 매리골드, 타임, 라벤더, 로즈마리, 레몬그래스, 캐모마일 등.
염색	다이스캐모마일, 단델리온, 탄지, 캄프리, 매리골드, 터메릭 등.
방충	라벤더, 민트, 산토리나, 세이지, 탄지 등.

또 효과에 따를 수 있다.

두통	민트류, 캐모마일, 타임, 런던, 마조람, 라벤더, 레몬밤 등
코 막힌데	민트계, 레몬계의 향기를 가진 것
감기	캐모마일, 런던, 엘다 플라워 등
원기 회복	캐모마일, 리코리스, 단델리온, 바질, 로즈마리, 라벤더 등
이노 효과	단델리온, 히프스, 로즈마리, 로즈히프스, 라즈베리 잎 등
기침	리코리스 뿌리, 히습, 라벤더, 오레가노, 마슈마로우 등

고른 허브를 통해 생활 속 소품을 만들 수 있다.

(1) 차

보통 허브차를 만들려면 허브잎이나 꽃 약간, 포트, 꿀이나 레몬 약간이 필요하다. 우선 철분이 없는 유리나 도자기 포트를 미리 따뜻하게 준비해 놓고 1인분일 때는 프레스 허브는 1큰술, 드라이 허브는 1작은술 정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다. 프레스 허브는 4-5분, 드라이 허브는 3분정도 우려내고 입맛에 따라 좋아하는 꿀이나 레몬 등을 첨가한다.



허브 종류	이용 부위	
캐모마일	생화, 건조화	물을 끓여 넣은 뒤, 뚜껑 덮고 1분정도 약한 불에 끓인다.
컴푸리	생잎, 건조잎	차게 하면 먹기 쉽다.
레몬 밤	생잎, 건조잎	-
오렌지	꽃, 잎, 나무껍질	오렌지 재배에 살충제,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
레몬 버베나	생잎, 건조잎	-
민트	스피아민트, 페퍼민트	청량감, 스피아민트는 향긋하나 강함
파슬리	생잎, 건조잎	날씬해 지고픈 사람들에게 좋다
로즈마리	생잎, 건조잎	-
세이지	생잎	-

타임	생약, 건조약	-
라벤더	생약, 건조화	-

(2) 소품

1. 포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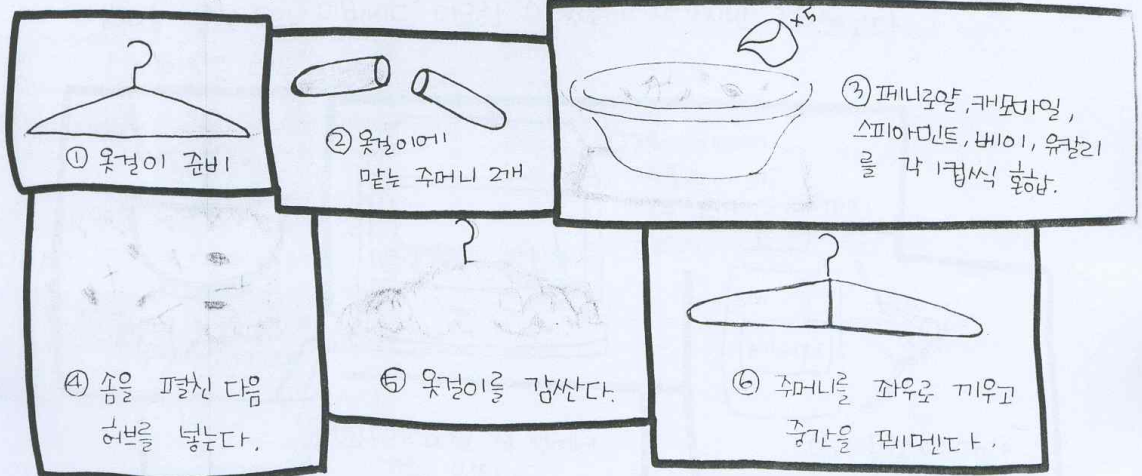
포푸리는 프랑스어로 'pot-pourri'로 방향시킨 허브란 뜻이다.
 향기가 좋은 꽃잎, 허브, 향료를 혼합해서 1개월 정도 숙성시켜 만든다.
 포푸리는 자연건조인 드라이 포푸리와 모이스트 포푸리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건
 드라이 포푸리이고 모이스트 포푸리는 소금을 이용해서 만든다.

2. 향주머니

건조한 허브믹스를 잘게 썰어 넣고 주머니 입구를 리본이나 끈 따위로 묶는다.
 필요한 곳에 놓아두거나 장식용 하거나 끈을 길게 달아 문 따위에 걸어 둘 수 있
 다.

3. 방충용 옷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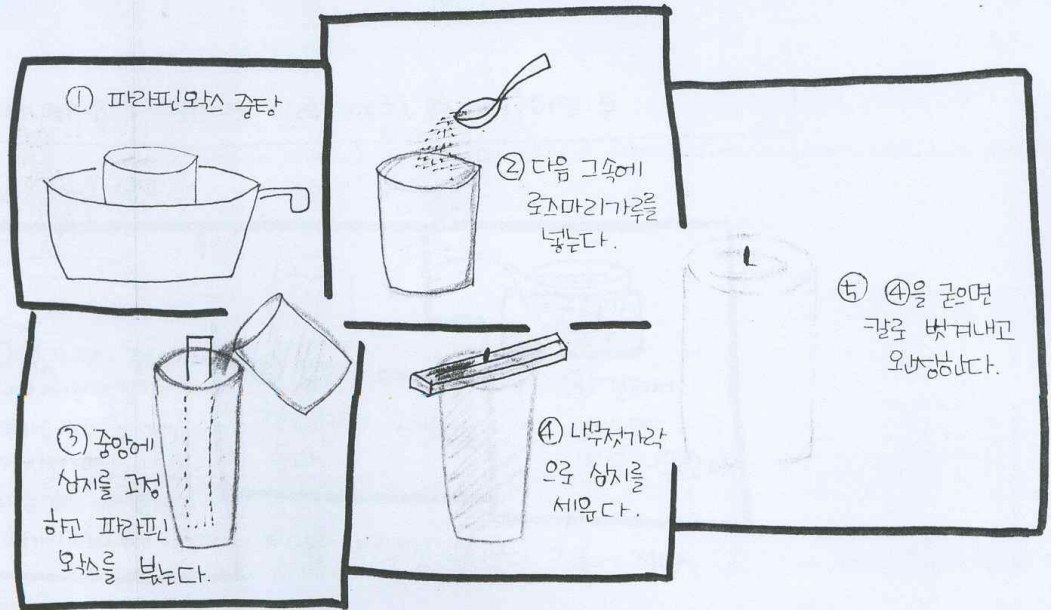
이 방법을 응용하여 쿠션, 바게, 방석 등을 만들 수 있다.



4. 로즈마리 캔들

로즈마리의 향은 개뿔하고 상쾌하여 누구나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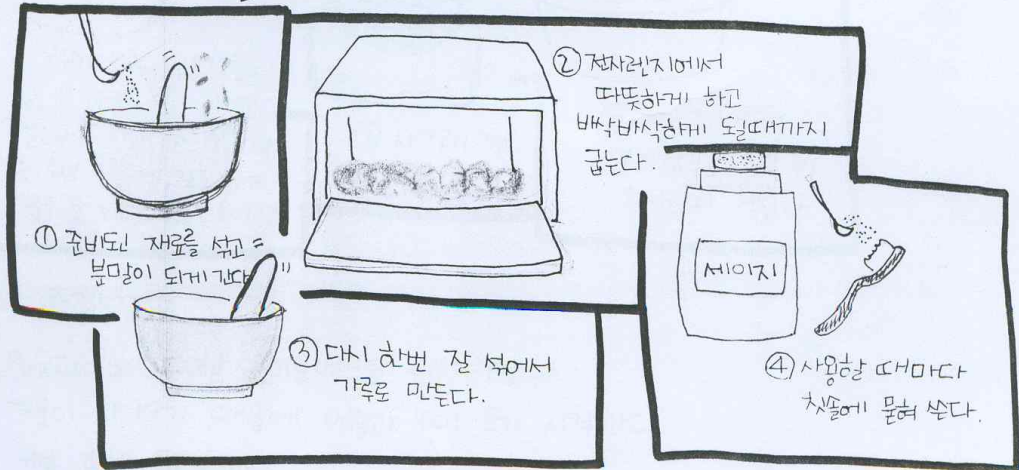
양초를 만들어 불과 향을 피우기엔 로즈마리가 저격이다.



(3) 미용

허브를 생활 속의 미용에도 이용할 수 있는데 몇가지만 적어보았다.

1. 세이기로 만든 치약



2. 헤어 케어

① 헤어 케어용 허브

건성모발	머리를 감고 나도 윤기가 나지 않고 부서진 느낌이 들 때는 컴프리, 엘더 플라워, 파슬리, 세이지 등
지성모발	매일 머리를 감는데도 피지선의 활동이 활발해서 모발에 기름기가 생길 때는 머리카락, 레몬 밤, 라벤더, 민트, 로즈메리 등

비듬 제거용 | 캐모마일, 갈리, 파슬리, 루즈마리, 타임 등

② 소프워드 샴푸

① 소프워드의 줄기나
잎 하나씩 또는
뿌리를 30g을 잘게
잘라써 모양이 질과
맛은 허브 한 주먹과
함께 냄비에 넣는다.

② 끓는 물 500ml를
추가해서 30분정도
끓인다.

③ 걸러서
식으면
바로 사용한다.

* 얼을 사용하면 뿌리보다 거품이 적다.

③ 허어 린스

① 냄비에 맞는 허브 1큰술,
끓는 물 3컵을 붓고 식으면
걸러서 사과식초 1큰술 추가.
또, 허브 2큰술에 끓는 물에
끓는 물 3컵을 붓는다

② 차가워지면
거른다.

③ 세숫대야에
넣고 샴푸로 감은 뒤
문지르며 헹군다.

3. 트리트먼트

입술과 손에 대한 트리트먼트를 얘기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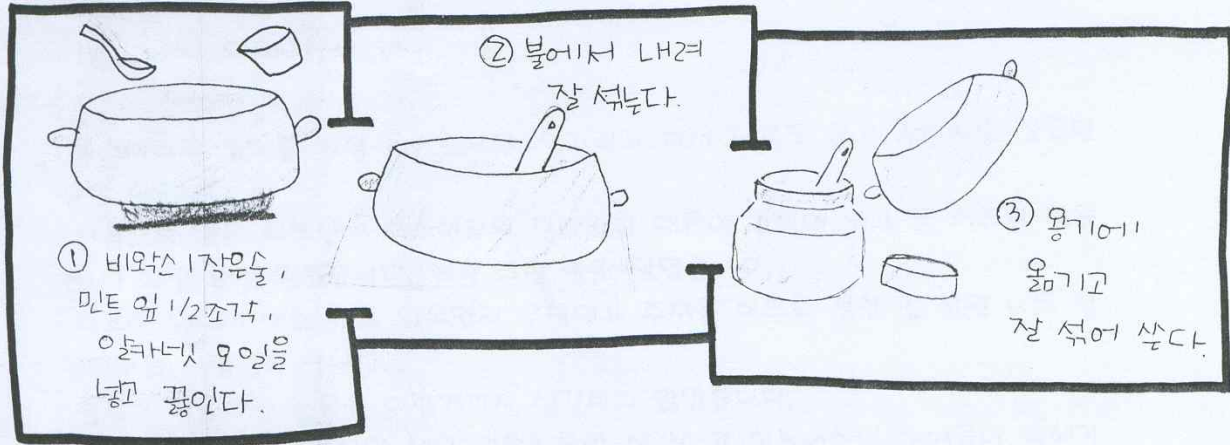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입술과 손이 트기 시작한다.

우선 허브 트리트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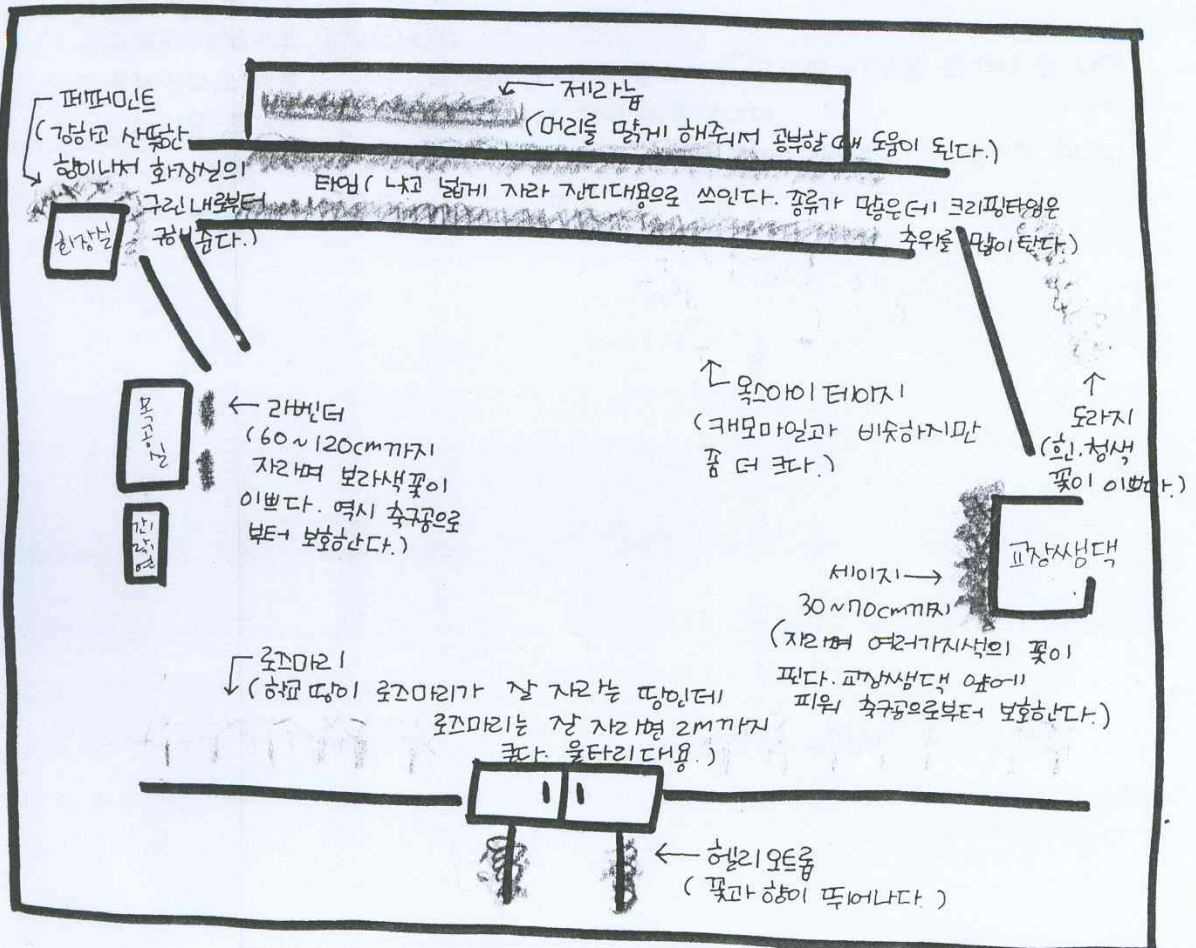
리블린 허브,
오트밀, 아몬드밀
별꽃 1큰술

손에 비르고 장갑을 끼고
자면 다음 날 아침 손이
매끈매끈해진다.

다음은 입을 트리트먼트. 리글로스이다.



2. 간단히 학교에 허브를 심는다면.



IV , 나의 이야기

로즈마리의 향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향기라고 해서 달지도 않고 강하지만 산뜻한 솔잎 향입니다.

처음으로 맡은 허브향이 로즈마리의 향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고 또 허브의 향들은 다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계속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허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주제를 허브로 정한 걸 보면 나도 참 막나가는 사람인가 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논문을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제에 대한 조사와 느낀 점 정도로만 생각하고 힘들어하던 선배들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주제를 허브로 정해서 이번 기회에 허브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감히 허브를 건드렸는데 정말 크게 한방 먹었습니다. 허브향기를 지독하게 한번 맡고나니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래도 한편으론 고맙습니다.

공부한다고 이틀을 연속으로 밤도 새보고 평소에는 공부할 시간을 쪼개서 놀 내가 놀 시간을 쪼개서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정말 기특합니다.

다시는 이런 거 안 해야지 하면서도 다시 생각해 보면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나 스스로 논문을 다시 쓰는 일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체질로 알아본 간디학교 학생들의
성향과 간디학교의 성향비교]

- 김난슬



1989년 부산 출생
부산꿈동산유치원-부산사하초등학교
최우수논문상 수상
<2002년 간디학교 학생회> 소속
취미 지은이 갈구기, 인형 만들기
특기 음식 예찬론 쓰기
좌우명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므로 써 이세상이 더 좋아졌다”라는 말을 듣는 것

“간디학교 학생들의 체질적 성향과 간디학교의 성향을 비교해서 간디학교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장점을 파악해서 간디학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적을 수 있는 것이 내 논문의 목적이다.”

-본문 중에서...

목 차

서론

본론

I. 사상의학과 그 배경

- ㄱ. 사상의학의 창시자 이 제마 선생
- ㄴ. 사상의학의 배경
- ㄷ. 사상의학의 개념
- ㄹ. 사상의학의 쓰임

II. 사상체질의 특성

- ㄱ. 사상체질마다의 특성
- ㄴ. 체질분류의 기준

III. 간디학교 학생들의 체질적 성향과 간디학교의 성향비교

- 1. 간디학교 학생들의 체질 알아보기
- 2. 간디학교의 사상체질 분포도
- 3. 간디학교 학생들의 체질적 성향과 간디학교가 가지고 있는 성향 비교

결론

부록. 내가 각 체질에게 해주고픈 말들

서론

이 논문의 목적

- 내가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는 이 논문을 통해 사상의학을 이해하고 그 이해함을 바탕으로 간디학교 학생들의 체질을 파악하여 그 체질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리고 또한 간디학교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간디학교 학생들의 체질적 성향이 크게 관련이 있을 까도 궁금했었다. 간디학교 학생들의 체질적 성향과 간디학교의 성향을 비교해서 간디학교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장점을 파악해서 간디학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적을 수 있는 것이 내 논문의 목적이다.

본론

1. 사상의학과 그 배경

ㄱ. 사상의학의 창시자 이 제마 선생

- 이 제마 선생은 1837년 조선 말 아버지 이반오의 넷째 부인의 아들로 함흥에서 태어났다. 즉 서출로 출생했다. 13살 되던 해에는 집을 나왔다. 그러다 27살 되던 해에 함흥에서 정평으로 가던 객사에서 양명학¹⁾ 계열의 학자로 추정되는 한석지의 <명선록>이라는 책(이 책은 사상의학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을 발견하게 된다. 그 이후 두만강 주위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39세 되던 해에 서출이라 관직을 가질 수 없었으나 서서히 양반과 상놈의 뚜렷한 구분이 흩어지고 혼란스럽던 시기인진 몰라도 무과에 오르고 1년 후에는 별선군관에 입위 한다. 그 이후

1) 중국 명나라 중기에 태어난 양명(陽明) 왕수인(王守仁)이 이룩한 신유가철학(新儒家哲學). 양명학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맹자의 선천적인 도덕심과 마음의 발양을 통해 타인을, 나아가 인간세계와 우주를 성실하고 바르게 하자는 이상을 형이상학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격치고>, <동의수세보원>(여기서 사상의학의 기본 개념 등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다), <동무유고>등을 집필한다. 6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이 제마 선생은 기존의 중국의학에 많이 의존하고 있던 한의학에 한의학만의 독창적인 큰 길을 열었다. 사상의학이란 그 전에 없던 개념으로 이 제마 선생이 서민을 돌보시며 발견해서 창조해 나가신 독창적인 학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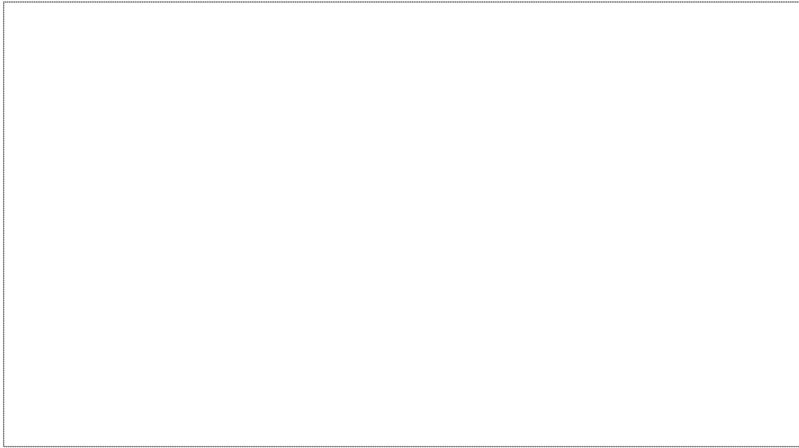
ㄴ. 사상의학의 배경

- 사상의학 탄생의 배경은 이제마 선생의 여러 의학서적을 접하면서 환자를 보기 시작했는데 같은 증상의 환자들에게 각각 같은 약을 쓰더라도 다른 효과가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 개인마다 특이한 체질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보시면서 나름대로의 기준 (4장의 기능, 외모, 체형 등)을 토대로 4가지의 체질로 나눴다. 물론 오랜 시간 환자를 돌보시면서 쌓인 경험으로 나눈 것이다. 사상의학의 배경이 유교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사상의학과 유교는 노자, 맹자 등의 유교사상에서부터 비롯된 근본에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상의학의 내용 중에 인의예지에 관한 내용이 나올뿐더러 마음을 다스리면 병에도 걸리지 않고 성인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을 미루어보아 사상의학의 근본은 유교사상이라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ㄷ. 사상의학의 개념

- 사상의학의 근본은 유교라고 앞서 말했다. 총괄적인 것으로 보아 사람은 4장국의 기능과 성과 정 등을 기준으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4가지 체질로 나눈다. 체질을 나누는 기준 중의 성과 정 등 사상체질의 가장 기본 개념을 이야기하겠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과 정을 타고난다. 성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고 정은 자신만을 생각

하는 마음이다. 이 성과 정이 체질마다 각각 다르다. 그리고 이 각각의



성과 정이 띄고 있는 성질은 그 사람의 성격에 관련된다. 애성은 서로 속이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큰 마음가짐을 말하며, 노성은 서로 업신여기지 않고 살아

가고자하는 큰 마음가짐을 말하며, 희성이란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고자 하는 큰 마음가짐을 말하고, 락성은 서로 보호해주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반대로 애정은 자신만은 속임을 받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지님으로써 남에게 속임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감정을 말하며, 노정이란 자신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지님으로써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감정을 말하며, 희정이란 자신만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지니며 남에게 도움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을 말하며, 락정이란 자신만 보호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지님으로써 남에게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을 말한다.

▶인의예지

- 유교적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인의예지란 선비로써 갖추야 할 부분으로 이 부분을 사람의 신체와 관련지어서 본 이제마 선생의 사상학의 발생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자신의 타고난 것들을 갖고 닦아 인의예지를 하나하나 갖추면 선인이 된다는 부분이다. 조금 자세히 말하자면 사람마다 인의예지 중 하나를 천성으로 타고나고 정명을 갖추었을 때 또 다른 요소를 갖추게 되고, 신명을 갖추었을 때 얻게 되는 요소, 심성을 갖추었을 때 얻게 되는 요소가 각각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를 갖추게 되면 인의예지를 갖추게 되니 선인이 되는 것이다. 선인이 되면 병에도 걸리지 않으며 거의 완벽해진다. 그러나 이렇게 모

든 요소를 갖추기 힘들어서 선인이 되기 힘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마음을 다스리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천성

- 천성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선한 마음가짐을 말한다. 서로를 위하여 올바르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좋아하는 것이 견줄 바 없이 큰, 서로를 위하여 살아 가고자하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천성의 능력을 널리 펼치는 선인들에 의하여 예로부터 세워져 대대로 내려온 '인간세상의 궁극적인 기틀'을 천기(天機)라 말한다.

체 질	선심	부위	기틀	기틀에 대한 설명	사단	크기
태양인	애성	이	천시	인간세상의 궁극적인 기틀 중 지혜로운 기틀	지	12
소양인	노성	목	세회	인간세상의 궁극적인 기틀 중 예의바른 기틀	예	12
태음인	희성	비	인륜	인간세상의 궁극적인 기틀 중 가장 의로운 기틀	의	12
소음인	락성	구	지방	인간세상의 궁극적인 기틀 중 가장 어진 기틀	인	12

※자세한 설명

사단 : 천성을 갖추었을 때 얻게 되는 인의예지 중 하나의 요소다.

크기 : 천성을 갖추었을 때 얻게 되는 인의예지 요소의 크기이다.

부위 : 천성을 갖추으로써 그 부분의 능력이 활성화되는 부위

▶정명

- 정명이란 사심인 정을 후천적으로 극복하여 각기 수립한 성력²⁾으로 말미암아 폐비간신에 갖추게 된,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여 올바르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2) 정(애정, 노정, 희정, 락정)을 후천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서로를 위하여 올바르게 살아 가야된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善心)을 지니게 됨으로 말미암아 각기 수립한, 서로를 위하여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哀力, 怒力, 喜力, 樂力)을 말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 정명을 갖추게 되면 유학의 네 가지 실천사상인 크기가 10정도인 인의예지를 갖게 된다.

체질	사심	성력	부위	정명	정명에 대한 설명	사단	크기
태양인	노정	노력	비	교우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사교 생활 능력	예	10
소양인	애정	애력	폐	사무	각자가 하는 일	지	10
태음인	락정	락력	신	거처	거주하여 생활하는 곳	인	10
소음인	희정	희력	간	당여	군종과 더불어 서로 의지하는 것	의	10

▷ 극복 ▷

※자세한 설명

노력 : 노력으로 말미암아 비에 갖추게 된, 세상 사람들이 서로 업신여기지 않으면서 사랑가게 할 수 있는 예의바른 교우능력

애력 : 애력으로 말미암아 폐에 갖추게 된, 세상 사람들이 서로 속이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무능력

희력 : 희력으로 말미암아 간에 갖추게 된, 세상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의로운 당여능력

락력 : 락력으로 말미암아 신에 갖추게 된, 세상 사람들이 서로 보호해주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어진 거처 능력

▶신명

- 신명이란 정명을 수기신입기명³⁾ 함으로 말미암아 천성의 능력을 널리 펼치는 선인과 더불어 하게 됨으로써 두견요둔(頭肩腰臀)에 지니게 된, 남을 위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실천능력을 말한다.

체질	정명	수기신입기명	선인	천성	부위	신명	사단	크기
태양인	교우	수기신입기명	소음인	지방	둔(臀)	방략(方略)	인(仁)	9
소양인	사무		태음인	인륜	요(腰)	재간(才幹)	의(義)	9
태음인	거처		소양인	세희	견(肩)	위의(威儀)	예(禮)	9
소음인	당여		태양인	천시	두(頭)	식견(識見)	지(智)	9

3) 정명을 자신의 안일만을 위하여 쓰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그리고 후손을 위하여 부지런히 실천하는 몸가짐을 지니도록 노력하여 천명(天命)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설명

- 태양인은 정명(교우)을 수기신 입기명함으로 말미암아 천성의 능력(지방)을 널리 펼치는 어진 소음인(=善人)이 이와 더불어 하게 됨으로써 눈에 지니게 된,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진 방략(方略:무슨 일을 하는 방법과 둘러대는 꾀)을 실천능력으로 갖게 된다.
- 소양인은 정명(사무)을 수기신 입기명함으로 말미암아 천성의 능력(인륜)을 널리 펼치는 의로운 태음인(善人)이 이와 더불어 하게 됨으로써 요에 지니게 된,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재간(才幹:재주와 간능)을 실천능력으로 갖게 된다.
- 태음인은 정명(거처)을 수기신 입기명함으로 말미암아 천성의 능력(사회)을 널리 펼치는 예의바른 소양인(善人)이 이와 더불어 하게 됨으로써 견에 지니게 된, 남을 업신여기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의바른 위의(威儀:위엄이 있는 의용)를 실천능력으로 갖게 된다.
- 소음인은 정명(당여)을 수기신 입기명함으로 말미암아 천성의 능력(천시)을 널리 펼치는 지혜로운 태양인(善人)이 이와 더불어 하게 됨으로써 두에 지니게 된, 남을 속이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식견(識見:사물을 식별하고 관찰하는 능력)을 실천능력으로 갖게 된다.

▶심성

- 사심이란 태아시기에 태교를 통하여 부모로부터 받아서 배운 마음 중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견줄 바 없이 큰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이 사심을 책망하여 없애고 선심(善心:착한 마음)을 지녀 이를 길러감으로써 함억제복(頤臆臍腹)에 있게 된, 남을 위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심성(心性)이라 한다.

체성	본성	사심	부위	심성	사단	크기
태양인	노성	벌심	제	행검	의	8
소양인	애성	과심	복	도량	인	8
태음인	락성	교심	함	주책	지	8
소음인	희성	공심	억	경륜	예	8

>>>덕 >>> 혜각

※자세한 내용

- 태음인은 턱에 주책(籌策:이리 저리 타산한 끝에 생각한 꾀)이 있게 되어 남을 속이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며, 소음인은 가슴에 경륜(經綸: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이 있게 되어 남을 업신여기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의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되며, 태양인은 배꼽 부위에 행검(行檢:자신의 행동을 검토하는 것. 즉 품행이 좋아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있게 되어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며, 소양인은 아랫배에 도량(度量:너그러운 마음과 깊은 생각)이 있게 되어 남을 보호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진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

ㄷ. 사상의학의 쓰임

- 실제로 사상의학은 한의원에서 주로 쓰인다. 주로 한의원에서 한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할 때 체질을 알아보고 그 체질에 따라 분류해서 약을 처방하거나 침을 놓으면 더 효율적으로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꼭 한의원이 아니더라도 체질을 이용해서 한의원에 가지 않더라도 자신이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 몸에 맞는 음식이 다르므로 몸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여 더더욱 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명상 같은 것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면 더욱 좋다.

II. 사상체질의 특성

ㄱ. 체질마다의 특성

- 체질마다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 할 범위는 크게 얼굴형, 체형, 머리카락과 음성, 성격, 천성을 갖추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요소, 정명을 갖추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요소, 신명을 갖추었을 때 얻는 요소, 심성을 갖추었을 때 얻는 요소 총 8가지로 분류 할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몸에 좋은 음식을 서술해 놓았다. 천성, 정명, 신명, 심성을 갖추었을 때 얻는 요소들은 표를 만들어 묶어 제시 할 것이고 그 이외에 얼굴형, 체형, 머리카락과 음성, 성격 등은 서술해서 번호로 하나씩 설명할 것이다. 얼굴형, 체형, 머리카락과 음성, 성격의 부분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 된 부분이 많으니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천성, 정명, 신명, 심성을 갖추었을 때 얻는 요소들이 나올 때는 생소한 단어들 많이 나올 것이다. 앞 5.사상 의학의 개념에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므로 반복해서 자세히 서술하지 않겠다. 그럼 이 다음 페이지부터 4가지 체질의 특성을 각각 설명하겠다.



▷ 태양인

- 얼굴형 : ①몸통보다 머리가 크다. ②귀가 크고 길다.
 ③인중이 짧다. ④얼굴은 약간 붉은 빛을 띤다.
- 체형 : ①머리가 크고 몸통이 작은 역삼각형체형이다.
 ②머리가 잘 발달되어있다. ③하체가 약하다.
 ④새끼손가락이 약하거나 구부러진 경우가 많다.
 ⑤왼쪽 손발이 약하다.
- 머리카락과 음성 : ①대머리가 많다. ②머리카락은 굵고 단단하다.
 ③나이가 들어서도 새치 없이 까만 머리를 유지하거나
 온통 백발일 수 있다.
 ④이마가 넓다. ⑤팔다리에 털이 많다.
 ⑥매우 경쾌하고 강한 어조이다.
- 성격 : ①한 번 정한 일은 물러서지 않는 황소고집 형이다.
 ②사물을 식별하는 관찰력이 뛰어나다.
 ③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는 지도자형이다.(나쁘게 말하면 독재자형)
 ④사무능력은 뛰어나지만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⑤예스, 노가 분명하다.
 ⑥굉장히 솔직하고 자기의견에 반대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 몸에 좋은 음식
 곡식류 : 메밀
 반찬 류 : 청포묵, 대합조개, 붕어, 버섯류
 과실류 : 머루, 다래, 앵두, 포도, 사과
 음료수 : 포도주스, 사과주스
 보신 류 : 오가피, 모과, 솔잎, 영지버섯

천성(타고난 능력) 능력의 크기:12	정명을 갖추었을 때/능력의 크기:10	신명을 갖추었을 때/능력의 크기:9	심성을 갖추었을 때/능력의 크기:8
이(耳) 천시(天時)	목(目) 세회(世會)	구(口) 지방(地方)	비(鼻) 인륜(人倫)
함(頤) 주책(籌策)	억(臆) 경륜(經綸)	복(腹) 도량(度量)	제(臍) 행검(行檢)
폐(肺) 사무(事務)	비(脾) 교우(交遇)	신(腎) 거처(居處)	간(肝) 당여(黨與)
두(頭) 식견(識見)	견(肩) 위의(威儀)	둔(臀) 방략(方略)	요(腰) 재간(才幹)
지(智)	예(禮)	인(仁)	의(義)

▶ 태음인

얼굴형 : ① 몸통도 크고 머리통도 크다. ② 코, 눈, 입 모두 큼직하다.

③ 산타할아버지 얼굴 상.

체형 : ① 삼각형 모양의 체형이다.

② 얼굴은 둥글고 코와 입술, 귓볼이 두툼하다.

③ 배, 허리, 엉덩이가 두툼하다. ④ 걸음걸이가 안정되어 있다.

⑤ 손발이 큼직하고 부드럽다.

머리카락과 음성 : ① 머릿결이 곱고 부드럽다.

② 만약 대머리라면 앞 대머리일 가능성이 높다.

③ 눈썹 솔이 많고 짙은 경향이 있다.

④ 목소리가 조급한 느낌이 들거나 목이 쉬 가라앉는다.

성격 : ① 과묵하고 표정의 변화가 없다.

② 침착하게 맡은 일을 꼭 성취하는 타입이다.

③ 의리가 두텁다.

④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고집이 세다.

⑤ 불쾌한 일은 곧 잊어버린다.

⑥ 몰욕이 강하고 비슷한 취미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몸에 좋은 음식

곡식류 : 멥쌀, 수수, 울무, 콩

반찬 류 : 쇠고기, 감자, 무, 열무, 연근, 도라지, 호박, 치즈, 버터, 설탕, 오징어, 명태, 북어, 낙지, 문어

과실류 : 수박, 배, 살구, 옥수수, 밤, 은행, 잣, 호도

음료수 : 우유, 울무 차, 칩 차, 커피(하루에 한두 잔정도)

보신 류 : 녹용, 사슴, 마, 사골

천성(타고난 능력) 능력의 크기:12	정명을 갖추었을 때/능력의 크기:10	신명을 갖추었을 때/능력의 크기:9	심성을 갖추었을 때/능력의 크기:8
비(鼻) 인륜(人倫)	구(口) 지방(地方)	목(目) 세회(世會)	이(耳) 천시(天時)
제(臍) 행검(行檢)	복(腹) 도량(度量)	억(臆) 경륜(經綸)	함(頤) 주책(籌策)
간(肝) 당여(黨與)	신(腎) 거처(居處)	비(脾) 교우(交遇)	폐(肺) 사무(事務)
요(腰) 재간(才幹)	둔(臀) 방략(方略)	견(肩) 위의(威儀)	두(頭) 식견(識見)
의(義)	인(仁)	예(禮)	지(智)

▷ 소양인

얼굴형 : ① 얼굴형이 역삼각형이다. ② 눈썹이 굵고 눈빛이 강렬하다.

③ 입술이 얇고 콧대가 날카롭다.

체형 : ① 상체보다 하체가 약하다.

② 피부가 하얗고 윤기가 없으며 병약한 느낌을 준다.

③ 소양인이 비만해 진다면 엉덩이와 넓적다리 쪽이다.

④ 어깨를 앞뒤로 출랑출랑,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며 걷는다.

⑤ 왼쪽 손발이 약하고, 손끝이 가는 편이며 수족이 따듯하다.

머리카락과 음성 : ① 머리카락이 새까맣고 윤기가 있으며

② 대머리가 잘 안된다.

③ 일자형 눈썹이 많고 턱수염과 콧수염이 적다.

성격 : ① 충동적 정열가요, 기본을 무시하는 성격이다.

② 순간순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다.

③ 손재주와 창조력이 뛰어나지만 끝마무리가 엉성하다.

④ 순발력과 재치, 두뇌회전이 빠르다.

⑤ 잘난 체를 잘 하지만 자신을 스스로 비하시키기도 한다.

몸에 좋은 음식

곡식류 : 메조, 팥, 녹두

반찬 류 : 돼지고기, 녹두빈대떡, 숙주나물, 참깨, 참기름, 더덕, 상추, 배추, 가지, 오이, 시금치, 우엉, 새우, 새우젓, 복어, 골뱅이, 아나고와 오징어를 제외한 회, 가물치, 굴, 한치, 조개류(단, 대합조개와 홍합은 제외), 해삼, 멧게, 달팽이, 파래, 게, 다시마, 셀러리, 아욱, 치커리

과실류 : 딸기, 산딸기, 참외, 키위, 토마토, 파인애플, 바나나, 아몬드

음료수 : 파인애플주스, 토마토주스, 구기자 차, 홍차, 동규자 차

보신 류 : 숙지황, 구기자, 산수유

천성(타고난 능력) 능력의 크기:12	정명을 갖추었을 때/능력의 크기:10	신명을 갖추었을 때/능력의 크기:9	심성을 갖추었을 때/능력의 크기:8
구(口) 지방(地方)	비(鼻) 인륜(人倫)	이(耳) 천시(天時)	목(目) 세회(世會)
복(腹) 도량(度量)	제(臍) 행검(行檢)	함(頤) 주책(籌策)	억(臆) 경륜(經綸)
신(腎) 거처(居處)	간(肝) 당여(黨與)	폐(肺) 사무(事務)	비(脾) 교우(交遇)
둔(臀) 방략(方略)	요(腰) 재간(才幹)	두(頭) 식견(識見)	견(肩) 위의(威儀)
인(仁)	의(義)	지(智)	예(禮)

▶ 소음인

얼굴형 : ① 달걀형의 미남, 미녀가 많다. ② 뒤통수가 납작하다.

③ 입술이 잘 튼다. ④ 눈가에 주름이 잘 생긴다.

⑤ 귀가 작다. ⑥ 코가 잘 생겼다.

⑦ 피부가 부드럽다.

체형 : ① 키가 작고 아담하며 엉덩이가 풍만하다.

②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달리기도 잘한다.

③ 손발이 큰 느낌을 주지만 손끝이 가늘고 손톱이 작다.

머리카락과 음성 : ① 머리카락이 검고 술이 많으며 가늘고 부드럽다.

② 눈썹이 가늘고 부드럽다. ③ 구레나룻이 근사한 편이다.

④ 여성적이고 감미로운 목소리이다.

성격 : ① 격조 있으면서도 명쾌한 성격이다.

② 감미롭고 개성적인 삶을 추구한다.

③ 공상을 잘하고 적극성, 추진력이 약하다.

④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절약형이다.

⑤ 소극적이고 짜증도 잘 내고 질투심도 강하다.

⑥ 가정적이고 자기자기한 면이 있다.

⑦ 기억력이 좋고 논리적이며 분석력이 뛰어나다.

몸에 좋은 음식

곡식류 : 찹쌀, 차조, 찰수수, 찰옥수수, 현미찹쌀

반찬 류 : 닭고기, 계란, 들깨, 들기름, 들깻잎, 고구마, 쑥갓, 미나리, 토란, 냉이, 달래, 피망, 고추, 파, 양파, 마늘, 후추, 부추, 소금, 마요네즈, 미역, 겨자

과실류 : 귤, 복숭아, 오렌지, 레몬, 자몽, 여름 귤, 자두, 땅콩

음료수 : 오렌지주스, 복숭아주스, 인삼 차, 꿀 차, 생강 차, 코코아, 대추 차

보신 류 : 인삼, 꿀, 흑염소, 개고기, 꿩, 오리, 뱀탕, 자라, 잉어, 삼계탕, 황기

천성(타고난 능력) 능력의 크기:12	정명을 갖추었을 때/능력의 크기:10	신명을 갖추었을 때/능력의 크기:9	심성을 갖추었을 때/능력의 크기:8
구(口) 지방(地方)	비(鼻) 인륜(人倫)	이(耳) 천시(天時)	목(目) 세회(世會)
복(腹) 도량(度量)	제(臍) 행검(行檢)	함(頤) 주책(籌策)	억(臆) 경륜(經綸)
신(腎) 거처(居處)	간(肝) 당여(黨與)	폐(肺) 사무(事務)	비(脾) 교우(交遇)
둔(臀) 방략(方略)	요(腰) 재간(才幹)	두(頭) 식견(識見)	견(肩) 위의(威儀)
인(仁)	의(義)	지(智)	예(禮)

ㄴ. 체질분류의 기준

ㄴ-1. 이제마 선생식

- 이제마 선생식 체질 분류의 기준은 앞에서 내가 제시했던 체질, 성격, 체형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천성, 정명, 신명, 심성까지도 생각한 것이 이제마식 체질분류의 기준이다.

ㄴ-2. 김명철 원장식

- 현재 부산 다대포에 위치한 청담한의원장 이신 김명철 원장님의 체질분류기준으로 아래 아이들의 체질을 분류하였다. 이제마 선생의 분류법도 포함이 되어있고 다른 분야들도 접목해서 체질을 분류한다. 그 기준은 대충 이러하다.

· 생일 30% · 혈액형 10% · 체격 20% · 성격 20%
· 음식취향 10% · 자기 자신의 Feel 10%

자세히 얘기하면 생일이 사주를 기준으로 계절을 분류해서 봄에는 태음인, 여름에는 소양인, 가을에는 태양인, 겨울에는 소음인으로 보고 이 계절의 구분은 년도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혈액형은 A형이 태음인, B형은 소음인, O형은 소양인, AB형은 태양인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내 생각인데 이 기준은 우리나라에 태음인이 약 50%, 소양인이 30%, 소음인이 20%, 태양인은 매우 극히 드물다. 그리고 이런 걸로 비추어 보아 가장 흔한 혈액형인 A형이 태음인, B형이 소음인, O형이 소양인, 드문 AB형이 태양인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그리고 체격과 성격 등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나누어지고, 음식취향으로 본 것은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태음인, 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소음인, 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소양인, 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태양인 이렇게 나누어진다.

Ⅲ. 체질로 알아 본 간디학교학생들의 성향과 간디학교의 성향비교

1. 간디학교 학생들의 체질 알아보기

지난 간디학교 가정학습이 끝마친 후 설문지를 간디학교 학생들에게 돌린 후 응답결과로 체질을 분류하여 그 체질의 특성으로 간디학교 학생들의 성향을 알아본다. (총 67명 중 46명 설문지 조사에 응하였음.)

· 설문지 조사 결과

번호	이름	태음인성향	소양인성향	소음인성향	태양인성향	결과
1	박도일	20.5%	20.5%	50%	9%	소음인
2	이새벽	7%	35%	32%	25%	소양인&소음인
3	김소은	24%	35%	30%	11%	소양인
4	박하은	18.5%	33.3%	26%	22.2%	소양인
5	김도현	29%	21%	21%	29%	태양인&태음인
6	양해은	7.4%	37.1%	33.3%	22.2%	소양인&소음인
7	이수연	11.1%	25%	41.7%	22.2%	소음인
8	장인혜	33.3%	24.2%	27.3%	15.2%	태음인
9	이나경	31.6%	18.4%	34.2%	15.8%	소음인&태음인
10	노영규	21%	31%	17%	31%	소양인&태양인
11	신현우	24.4%	29.2%	31.8%	14.6%	소음인
12	민한별	22.7%	18.2%	50%	9.1%	소음인
13	김주나	17.9%	35.7%	25%	21.4%	소양인
14	한수민	33.3%	20%	20%	26.7%	태음인
15	하태우	33.3%	29.2%	29.2%	8.3%	태음인&소양인&소음인
16	김강산	25%	20.8%	37.5%	16.7%	소음인
17	한수현	26.7%	23.3%	33.3%	16.7%	소음인
18	정진	25%	33.4%	20.8%	20.8%	소양인

번호	이름	태음인성향	소양인성향	소음인성향	태양인성향	결과
19	김한솔	24%	28%	32%	16%	소음인
20	배이삭	21.7%	21.7%	43.6%	13%	소음인
21	김보경	22.2%	38.9%	11.1%	27.8%	소양인
22	정사랑	13%	26%	21.8%	39.3%	태양인
23	라윤하	34.8%	21.8%	26%	17.4%	태음인
24	윤재형	25%	25%	29.2%	20.8%	소음인&소양인&태음인
25	김진우	30%	20%	35%	15%	소음인
26	양원중	20.8%	29.2%	33.3%	16.7%	소음인&소양인
27	김범린	12%	44%	24%	20%	소양인
28	김재훈	36%	40%	8%	16%	소양인&태음인
29	김성근	24%	16%	24%	36%	태양인
30	이안	40%	16%	32%	12%	태음인
31	이병우	14.3%	42.9%	33.3%	9.5%	소양인
32	박기범	16%	24%	40%	20%	소음인
33	김태규	20.8%	20.8%	54.2%	4.2%	소음인
34	이에스더	19.2%	26.9%	20.8%	23.1%	소양인
35	김가람	20%	28%	40%	12%	소음인
36	김성기	25%	16.7%	16.7%	41.6%	태양인
37	홍창우	16.7%	33.3%	16.7%	33.3%	소양인&소음인
38	김승안	52.2%	17.4%	13%	17.4%	태음인
39	김진아	33.3%	33.3%	20%	13.4%	태음인&소양인
40	김민기	52.2%	13%	21.7%	13.1%	태음인
41	지혜	11.8%	35.3%	17.6%	35.3%	소양인&태양인
42	강지혜	23.8%	28.6%	33.3%	14.3%	소음인
43	오현민	44%	17.5%	24.5%	14%	태음인

번호	이름	태음인성향	소양인성향	소음인성향	태양인성향	결과
44	김나눔	27%	21%	45%	7%	소음인
45	최용안	22%	30%	36%	10%	소음인

※설문지의 응답문항이 그리 많지 않아 약간 부정확할 수 있다.
 그래서 퍼센트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은 그 체질 2가지 성향을 모두
 띄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분포도에도 2가지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2가지
 모두를 포함시켜서 계산 하였으므로 실제 조사해 준 인원보다 조금 많
 을 것이다.

1-1. 설문지 첨부 (태양인 이제마의 사상체질 한방요법(지은이 : 신
 재용 출판사 : 학원사) 에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였음)

체질 알아보기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2,3개씩 선택하셔도 됩니다.

()학년 이름:()

- 얼굴형은 어떻습니까?----- ()
 - ①둥근 형, 또는 타원형이며 머리통이 체구에 비해 작다.
 - ②턱이 가늘프게 뾰족한 달걀형이며 앞뒤쭉구이다.
 - ③미남미녀 타입으로 dif상하고 가름하며 오밀조밀하다.
 - ④머리가 크고 둥근 편이며 목덜미와 뒷머리가 발달해 있고 하관이 빠르다.
- 이목구비는 어떤가요?----- ()
 - ①눈, 코, 귀가 크고, 콧불이 두터운 편이며 시원한 눈매에 안광이 순하다.
 - ②입이 작고 입술은 얇으며 눈매가 예쁘다.
 - ③눈, 코, 입이 크지 않고 입술이 얇다.
 - ④귀가 크고 잘 생겼으며 눈이 작고 카리스마가 있다.
- 체형은 어떤가요?----- ()
 - ①근육, 골격이 큰 편이며 상체보다 하체가 충실하다.
 - ②상체보다 하체가 약해 엉덩이 부위가 빈약해 보이고 어깨는 일자며 가슴이 넓다. 골격마
 다 연약하여 병약한 느낌을 준다.
 - ③근육이 적으나 골격은 굵은 편이며 키, 몸집은 적되 균형 잡힌 몸매다.

4. 가슴은 어떤가요?------()

- ①가슴이 넓고 큰 편이다
- ②가슴이 크게 발달해있거나 아예 편평하다.
- ③가슴이 빈약하거나 다소곳하게 예쁘다.
- ④가슴이 근육질이다.

5. 비만도는 어떤가요?------()

- ①어릴 때 토실토실했었고 비대한 편이며 특히 허리가 굽은 편이다.
- ②팔다리는 가늘지만 엉덩이에 먼저 살이 오르고 넓적다리 안쪽에 살이 찐다.
- ③살이 안 찌는 체질로 마른 편이지만 살이 찐다면 허리가 등글고 엉덩이가 넓어진다.
- ④갈끔, 깐깐한 편이며 마른 편이지만 살이 찐다면 상체비만형이다.

6. 손발은 어떤가요?------()

- ①손발이 큰 편이며 두툼하고 따뜻하다.
- ②손아귀에 힘이 있고 항상 뜨거운 편이다.
- ③손이 작고 손이 차다.
- ④다리가 약해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걷지 못한다.

7. 걸음걸이는 어떤가요?------()

- ①팔자걸음으로 느리고 배를 내밀고 안정성 있게 걸지만 굼뜨다.
- ②상체를 흔들면서 가슴을 펴고 어깨를 젖힌 채 먼 곳을 보고 가볍고 빠르게 걷는다.
- ③자연스럽고 얌전하나 힘이 없고 앞으로 굽은 채 밑을 보며 걷는다.
- ④걸음걸이가 어색하고 하체에 힘이 없어 걷기 어렵고 잘 넘어진다.

8. 장기기능은 어떤가요?------()

- ①폐 기능 저하로 쉽게 피로하다.
- ②방광 생식 기능이 약하다.
- ③신장기능이 좋고 비위기능이 약하다.
- ④간 기능이 약하며, 여성은 자궁이 약하다.

9. 피부는 어떤가요?------()

- ①피부가 검은 편이고 거칠며 두껍다.
- ②피부가 희면서 붉거나 누런 편이며 윤기가 적다.
- ③피부가 흰 편이고 부드러우며 윤기가 있지만 약하다.
- ④피부가 매우 건강 색이며 모발도 풍성하다.

10. 땀은 어떤가요?------()

- ①땀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면 몸이 가뿐하다.
- ②땀이 거의 없고 소변을 자주 본다.
- ③땀이 별로 없고 땀을 흘리면 피곤하다.
- ④땀은 적으나 소변 양이 많다.

11. 감각 발달은 어떤가요?----- ()

- ①후각이 발달해 있다.②시각이 발달해 있다.
- ③미각이 발달해 있다.④청각이 발달해 있다.

12. 목소리는 어떤가요?----- ()

- ①목소리가 의젓하고 굵고 힘 있지만 무뚝뚝한 편이고 침묵하는 경향이다.
- ②목소리가 급하고 높고 가늘며,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잘한다.
- ③말에 힘이 없고 말수가 적지만 화술에 뛰어나고 가까운 사이와는 말이 많고 애교 있다.
- ④누구와도 거리낌 없이 말하지만 말 속에 뼈가 있다.

13. 수면은 어떤가요?----- ()

- ①잠이 많고 어떤 상황에서도 편히 잘 잔다.
- ②얕은 잠을 자며 주위환경에 따라 잘 깬다.
- ③늦게 잠자거나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한다.
- ④잠깐 잠을 자도 숙면한다.

14. 체질적 특징은 어떤가요?---- ()

- ①점액질로 침착, 냉정하며 아기자기한 맛이 없다.
- ②다혈질로 몸에 열이 많고 화끈한 편이나 말이 앞서고 생활이 불규칙하며 통속적이다.
- ③우울질로 지난 일을 곱씹고 연민에 빠지며 소견 좁은 허약체질, 냉성체질이다.
- ④담즙질로 자기애가 지나쳐 교만, 자만하며 안하무인의 카리스마적 체질이다.

15. 자신의 성격 중 좋은 점은?-- ()

- ①가정을 중시하고 너그럽고 묵묵히 실천하는 집념과 끈기가 있다.
- ②재치 있고 다정다감하며 판단이 빠르다.
- ③사색적이며 치밀, 착실하고 총명하며 예의 바르다.
- ④자존심이 강하며 진취적, 창의력이 있다.

16. 자신의 성격 중 나쁜 점은?-- ()

- ①도박성이 있으며 외곬 고집이며 속마음을 안 드러낸다.
- ②성격이 급하고 경솔하며 지기 싫어하고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울분을 못 참는다.
- ③내성적이며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받는 걸 싫어하고 자기 분위 적이다.
- ④독선적이며 의욕과잉으로 주위와 화합이 잘 안된다.

17.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나요?-()

- ①보수적이고 부끄러움을 잃기 쉽다.
- ②앞뒤 생각 없이 말하며 판단력을 잃기 쉽다.
- ③뽀뽀함이 지나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기 쉽다.
- ④책임을 남에게 돌리며 사양하는 마음을 잃기 쉽다.

18.이런 성격은 없는 가요?-----()

- ①세밀함이 부조하며 거짓꾸밈이 많아 음흉하며 게으르고 겁이 많다.
- ②사치스러우며 가정일보다 밖의 일을 더 좋아해 남의 일에 발 벗고 나선다.
- ③온순하고 내성적이어서 오래된 친구하고만 어울린다.
- ④몰인정한 경향이 있고 공상적 사고를 잘한다.

19.생활 태도는 어떤가요?-----()

- ①리더십을 겸비해 경영에 자질 있고 명예와 재물 욕심이 많다.
- ②열정적, 손재주, 창조력이 있으나 일의 마무리가 부족.
- ③조직적, 사무적이지만 추진력이 부족하고 완벽주의이며 질투 성향이 있다.
- ④독창적, 영웅적이며 남과 잘 사귀지만 독선적이고 물러서기 싫어한다.

20.평상시 어떤 병이 잘 걸리나요?-()

- ①호흡기 질환, 피부병에 잘 걸리고 고혈압, 중풍 등이 염려된다.
- ②요통, 비뇨 생식기에 잘 걸리고, 협심증 등이 염려된다.
- ③소화기 질환, 상습복통, 우울증 신경성 질환 등에 잘 걸린다.
- ④간장 질환, 소화불량, 불임증, 근육 무기력 증 등에 잘 걸린다.

21. 이런 증상은 없는 가요?-----()

- ①가슴 울렁거림이 잦다.
- ②저혈압인데도 건강상태를 유지한다.
- ③무의식적으로 한숨을 쉬며 손발이 떨리고 쥐나며 저리다.
- ④변비인데도 건강상태를 유지한다.

22. 이런 조짐이 있고 병이 납니까?-()

- ①대변이 굳거나 땀이 없으면 병이 난다.
- ②구토, 설사가 있거나 피부가 건조해지면 병이 난다.
- ③땀이 나거나 인후가 아프거나 대변이 굳지 않으면 병이 난다.
- ④소변 색이 짙고 양이 적거나 땀을 흘리면 병이 난다.

23. 식성은 어떻습니까?-----()

- ①폭음 폭식하거나 가리지 않고 잘 먹으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잘 먹는다.
- ②찬 음식, 채식, 커피를 즐기며 음식을 빨리 먹는다.
- ③더운 음식을 좋아하고 미식가이며 편식하거나 음식을 늦게 먹는다.
- ④찬 것, 날것을 좋아하며 기름기 없는 담백한 음식을 즐긴다.

24. 이런 식습관도 있나요?-----()

- ①밀가루 음식을 잘 먹는다.
- ②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싫어하고 채식을 즐겨 먹는다.
- ③비린 것, 지방이 많은 것을 피하고 청량한 음식을 싫어한다.
- ④육식을 과식하면 소화 장애를 일으키거나 몸에서 열이 난다.

25. 이런 음식을 좋아하나요?----()

- ①쇠고기, 견과류, 생선, 해조류 등을 좋아한다.
- ②돼지고기, 해삼, 게, 야채, 과일류 등을 좋아한다.
- ③닭고기, 개고기, 꿀, 인삼, 부추, 파 등을 좋아한다.
- ④모과, 꽃감, 호두, 조개, 굴 등을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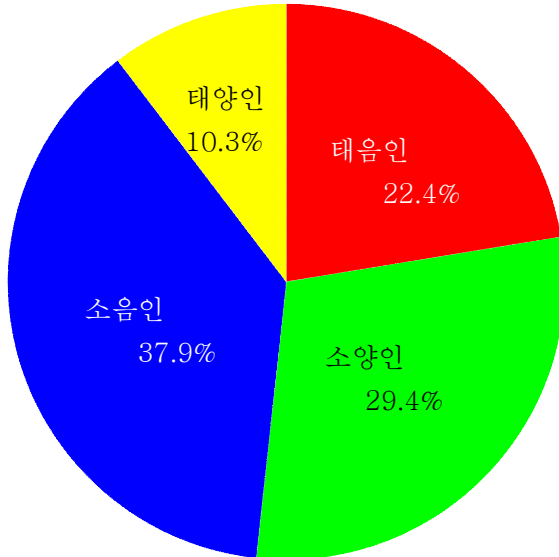
1-2. 이 설문지로 어떻게 체질을 분석 하였나

- 1번은 태음인 유형의 특징을 2번은 소양인 유형의 특징을 3번은 소음인 4번은 태양인 유형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총 응답 개수 분에 번호의 응답 개수 X 100 으로 해서 비율을 나타내었다. 양쪽의 차이가 약 5~10%가 나지 않으면 그 성향을 양쪽 다 띄고 있는 다고 보았다.

2. 간디학교의 사상체질 분포도

앞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간디학교학생들의 체질을 알아보았다. 이

사상체질분포도



체질 알아본 것을 가지고 간단한 원그래프를 그려보았다.

총 58명중 (2가지인 사람들은 2가지를 다 생각해서) 태음인은 13명, 소양인은 17명, 소음인은 22명, 태양인은 6명이었다. 우리나라에 태양인은 극소수로 분포하는 반면에 우리학교 학생의 10.3% 라는 것은 놀라운 통계이지 않을 수 없다. 약 100명중에 한

두 명이 있을까 말까한 상황에서 58명(2가지인 사람들은 2가지를 다 생각했을 경우)중 6명이 이런 상황이라니 놀라운 통계이다. 그리고 소양인이 상당히 많은데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 학교가 띄고 있는 성격은 양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소음인을 꼽을 수 있겠다. 이 두 가지 체질의 성향과 간디학교의 성향이 무슨 관련이 있

올까 알아보도록 하겠다.

3. 간디학교 학생들의 체질적 성향과 간디학교가 가지고 있는 성향 비교

대다수의 간디학교 학생들의 체질은 소음인과 소양인으로 나왔다. 이 두 가지의 체질적 성향을 7. 체질마다의 특성에서 알아보았던 것을 바탕으로 중요한 성향을 적어보겠다.

소양인의 체질적 특성

- 불같은 면이 있다. 기본을 무시하며 다혈질 적인 면이 있고 손재주가 뛰어나지만 끝마무리가 엉성하다. 순발력과 재치가 있다.

소음인의 체질적 특성

- 명쾌한 성격이다. 개성적인 삶을 추구하며 공상을 잘하고 적극성이 약하다. 소극적이고 짜증도 잘 내고 질투심도 강하다. 기억력이 좋고 논리적이며 분석력이 뛰어나다.

간디학교의 성격적인 면의 특성

아래의 특성들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앞서 말하는 바입니다.

① 고정관념을 무시한다.

- 간디학교 자체가 기존의 틀을 깨는 특이한 학교이며 간디학교 자체의 분위기 또한 기존의 다른 학교들과는 달리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리고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 편한 선생님과의 제자의 관계 열려있는 자연환경 등으로 보아 기존의 틀을 무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② 끝마무리가 엉성하다.

- 이 부분은 내가 여태껏 3년 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점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간디학교의 안 좋은 점 중 한 부분인데 꼭 시

작하면 뭔가 대단한 것들이 이루어 질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보게 된다면 뭔가 허전하거나 끝마무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엉성한 점이 많았다.

③개성적인 삶을 추구한다.

- 간디학교에는 상당히 개성적인 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개성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지금 졸업생들을 보면 기존의 대학교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위해서 각자의 확고한 생각에 따라 진로를 선택 하였다. 이런 면으로 비추어 보아 개성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내 생각에 간디학교는 개성적인 분위기와 개성적인 학생들이 모여 조화를 잘 이룬 것 같다. 개성적인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조금 덜 개성적인 사람들의 숨어있는 개성적인 면을 이끌어 내주는 것 같다.

④활동에 적극적이다.

- 자신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간디인들이 요즘 들어 부쩍 늘어 나고 있다.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하면 뭐든지 열심히 한다. 학생 자치회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동아리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아도 활동에 적극적이란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학생들의 체질적 특성과 간디학교의 성격적인면의 특성 비교

- 내가 적은 4가지 중 3가지는 소양인과 소음인의 특성이 포함되어있다. 이런 면으로 간디학교학생들의 체질적 특성과 간디학교의 성격적인면 상당히 같은 것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한다. 간디학교의 구성원이 학생인 만큼 간디학교 학생들의 체질적 특성과 간디학교의 성격적인면의 공통점이 많은 것 같다.

결론

1. 간디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체질적 특성 비교

- 간디학교의 성격적 특성과 간디학교 학생들의 체질적 특성과 닮은 점이 많은 것 같다.

간디학교의 구성원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설문지로 풀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던 것 같다. 간디학교는 소양인이다. 혈액형도 모르고 정확한 생일도 모르지만 성격적으로 보았을 때 소양인이다. 하지만 소양인이 띄고 있는 장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점도 같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천성을 널리 펼치고 정을 극복하여 정명을 띄고 심성과 신정을 갖추게 된 다면(자아실현)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오래오래 남을 것이다. 간디학교의 문제점 즉 단점도 소양인이 띄고 있는 것들과 거의 흡사하다. 소양인이 가지고 있는 재치라든가 불타는 정열을 잘 살리고 끝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잘 고쳤으면 한다. 모두가 사랑하는 간디학교가 이번 내 논문을 통해 더욱더 고칠 점들을 많이 찾아가면서 더욱더 사랑스러운 간디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1-1. 내가 본 간디학교의 장점

- 기존의 틀(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즉 폭넓고 자유로운 사고를 많이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같은 성격이다. 꼼꼼한 면이 있어서 작은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디학교에서 자라난 간디인 들과 선생님들이 장점이다.

1-2. 내가 본 간디학교의 단점

-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생각을 많이 해서 인지 몰라도 진행 속도가 더디다. 그리고 소양인의 특징인 일의 끝마무리가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향이 크며 소음인의 특징인 꼼꼼하지만 그 꼼꼼함이 지나쳐 가끔은 너무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1-3. 내가 생각한 간디학교의 단점에 대한 대안

- 조금은 관대하게 생각하고 한 번 일을 추진할 때 확실하게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 그리고 그 꼼꼼함이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내가 생각하기에 꼼꼼한 것일지도 모른다.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1시간 정도 회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꼼꼼함이 간디학교 발전이 된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끝이 흐지부지 되는 점은 자주자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평가가 정기적으로 지속되어서 마지막에는 흐지부지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따끔한 충고 또는 벌칙을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지은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었으면 한다.

2. 하면서 느낀 점

- 아빠가 한의사 이셔서 많이 접했던 소재를 이렇게 간디학교에 적용시키면서 새롭게 알아나가는 것이 즐거웠다. 중간에 하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많았다. 하지만 여기까지 해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된 거 같다. 힘들지만 곳곳이 참아가면서 해보니까 역시 얻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앞으로는 힘든 일이 닥치면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서 나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간디학교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생각해본다는 것이 기뻐다. 내 논문이 작지만 간디학교의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체질마다의 처방전 같은 것을 주어서 사상체질에 알맞은 학습방법, 몸에 맞는 음식, 운동방법들을 알려줄 예정이다. 이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 그리고 제 논문에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3. 참고자료

1. 제목 : 예언 / 지은이 : 최형주 / 출판사 : 장문산
2. 제목 : 운명을 바꾸는 이제마의 사상의학 / 지은이 : 이수환 / 출판사 : 차림
3. 제목 : 태양인 이제마의 사상체질 한방요법 / 엮은이 : 신재용 / 출판사 : 학원사
4. 제목 : 모든 10대는 엘리트가 될 권리가 있다 / 지은이 : 송재희 / 출판사 : 넥서스

부록. 내가 각 체질에게 해주고픈 말들

내가 태양인에게 해주고픈 말들

- 태양인은 정보파악 능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듣는 것에 강한 것이죠. 정보 흡수능력 배출능력 모두 빠르고 강합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전반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약간 독재자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좋게 보면 Leadership 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어 나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승부욕이 강한 점을 잘 이용하면 원하는 목표를 잡고 라이벌을 한 명두어서 경쟁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성취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친구로 두면 좋은 체질로는 소음인 일 듯 합니다. 소음인을 친구로 두어서(단, 천성을 실천한 善人) 어진 방략을 갖추게 되면 좋을 듯 합니다. 하면 좋은 운동으로는 하체가 약한 태양인에게 적합한 운동으로는 조깅, 달리기 등이 좋을 듯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머루, 다래, 앵두, 포도, 사과주스, 포도주스, 메밀 등이 좋습니다. 몸보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가피, 모과, 영지버섯, 솔잎 등을 드시면 좋을 듯하네요.

내가 태음인에게 해주고픈 말들

- 태음인은 매사에 느긋하고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 일을 맡으면 꾸준히 묵묵하게 그 일을 끝까지 해 나갑니다. 그리고 정보 흡수능력 배출능력이 모두 강하기 때문에 약간은 산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흡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한꺼번에 공부하면 다른 공부 방법보다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욕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사치에 빠지면 헤어 나올 줄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로 두면 좋은 체질로는 소양인 일 듯 합니다. 소양인을 친구로 두어서 (단 천성을 실천한 善人)을 친구로 두어서 더불어 지내면 위의(威儀:위엄있는 의용) 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폐가 약한 태음인이 하면 좋은 운동으로는 폐활량을 키워주는 달리기 수영 등이 좋을 듯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멥쌀, 수수, 울무, 콩, 쇠고기, 감자, 무, 열무, 연근, 도라지, 호박, 치즈, 버터, 설탕, 오징어, 명태, 북어, 낙지, 문어, 수박, 배, 살구, 옥수수, 밤, 은행, 잣, 호도 등이 좋습니다. 몸보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녹용, 사슴, 사골, 마등을 드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내가 소양인에게 해주고픈 말들

- 소양인은 새 같은 사람입니다. 성격 중에는 불같은 면이 있어 다혈질 적으로 보이기 쉽고 한가지일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집중하면 무서운 속도로 일을 처리하고 재치가 아주 많습니다. 한번 집중하기가 어려워져서 문제인데요. 흥미를 가지려고 노력해서 그 쪽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방법도 이런 면을 살려서 영어를 공부할 때도 문법 보다는 회화를 위주로 공부하고 토론식 수업에 강합니다. 그리고 친구로 두면 좋은 체질로는 태음인 일 듯 합니다. 태음인을 친구로 두어서(단, 천성을 실천하는 善人) 더불어 지내면 재간(才幹:재주와 간능)을 갖추게 됩니다. 하체가 약한 소양인이 하면 좋은 운동으로는 태양인과 비슷한 달리기, 조깅 등이 좋을 듯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으로는 메조, 팔, 녹두, 돼지고기, 녹두빈대떡, 숙주나물, 참깨, 참기름, 더덕, 상추, 배추, 가지, 오이, 시금치, 우엉, 새우, 새우젓, 복어, 골뱅이, 딸기, 산딸기, 참외, 키위, 토마토, 파인애플, 바나나, 아몬드, 파인애플주스, 토마토주스, 구기자 차, 홍차, 동규자 차 등이 좋습니다. 몸보신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숙지황, 구기자, 산수유 등을 드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내가 소음인에게 해주고픈 말들

- 소음인은 꼼꼼한 면이 있고 감미롭고 개성적인 삶을 추구하며, 기억력이 좋고 분석력과 논리적인 면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꼼꼼함이 지나쳐 소심할 때가 많고 생각의 폭이 좁습니다. 정보 흡수능력, 배출능력 등이 다른 체질에 비해 상당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꼼꼼한 면이 있어서 생각의 폭이 좁긴 하지만 한 분야에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정해서 깊이 공부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외우기보다는 이해해서 공부하려고 해야 합니다. 친구로 두면 좋은 체질로는 태양인 일 듯 합니다. 태양인과 더불어 좋은 일들을 하면(단, 천성을 실천한 善人) 식견(識見:사물을 식별하고 관찰하는 능력)을 갖추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체가 약하고 전체적으로 약간 허약한 사람이 많은 소음인에게 적합한 운동으로는 수영이나 마라톤 유산소 운동이 적합할 듯 합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으로는 찹쌀, 차조, 찰수수, 찰옥수수, 현미찹쌀, 닭고기, 계란, 들깨, 들기름, 들깻잎, 고구마, 썩갓, 미나리, 토란, 냉이, 달래, 피망, 고추, 파, 양파, 마늘, 후추, 부추, 소금, 마요네즈, 미역, 겨자, 굴, 복숭아, 오렌지, 레몬, 자몽, 여름 굴, 자두, 땅콩, 오렌지주스, 복숭아주스, 인삼 차, 꿀 차, 생강 차, 코코아, 대추 차 등입니다. 몸보신하고 싶은 분들은 인삼, 꿀, 흑염소, 개고기, 꿩, 오리, 뱀탕, 자라, 잉어, 삼계탕, 황기 등을 드시면 좋을 듯하네요.

[천동설과 지동설 시대

연표에 따른 생활 모습 비교]

- 김한솔



1988년 마산 파티마 병원 출생
꿈나무유치원-마산여향초등학교-마산진동초등학교
JSL 축구리그 우승팀 주장
취미/특기 주접
<촌닭>, <남중 All Star(축구)>, <기숙사 Project(화산중)>,
<남중최고주접동아리(지구평화선봉대)회장>, <구렛나루파(행동대장)>,
<댄스부 “쌩~!” 지도교사>, <호국당 김길수 밀어주기 project>, <방송부(G.B.S.)> 소속
장래희망 세계재벌
좌우명 “황금은 돌이 아니다.”

“지동설과 천동설에 대해 전혀 새로운 각도로 바라볼 수 있었으며 예술, 문학 등을 역사를 살펴보며 왜 그토록 오랫동안 천동설이 사람들에게 믿겨져 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 나갈 수 있었으며, 지동설이 나올 때 즈음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그 시대의 생활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본문 중에서...

I. 머리말

많은 주제 변화에서 찾아온 아주 힘든 고난 이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택했다라면 무난히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하다보니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자료를 찾으면서 여러 가지 연표 들을 보았는데 지금 조사한 연표 이외에도 철학사, 과학사 연표를 보았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음악, 문학, 건축물과 그림들로 조사하게 되었다.

연표를 보면서 알게 된 사실도 많이 있고 다시 한번 아는 것도 짚어 보게 되었다.

그리고 국어 선생님(재화네 아버지)께서 주제를 정해 주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었다.

우주의 시작이라는 주제는 자료의 범위가 매우 광범히 해서 바꾸게 되었다. 그리고 천동설과 지동설의 비교는 결론을 쉽게 내기 힘들었다. 그리고는 국어 선생님과 지도 교사 선생님의 지적 때문에 보다 더 빠르게 주제를 바꿀 수 있었다.

이번주제에 대하여 담임선생님, 지도교사 선생님, 국어 선생님,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드린 결과 매우 좋은 답변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 덕분에 힘내서 짧은 기간 동안 완성 해낼 수 있었다고 본다.

II. 서론

나는 어려서부터 우주에 관심이 많았을 뿐더러 장래희망도 우주과학자이다. 그래서 이번 논문을 통해 우주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으며 이러한 나의 논문주제는 나의 장래희망을 더욱 이어주는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천동설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리스의 프톨레마이오스가 체계를 세운 지구 중심설 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세에 아라비아를 거쳐서 유럽에 전파되어서 그리스도교의 교리로서 공인받았다. 이 체계는 15세기 N.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타나기까지 천문학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받았다.

태양중심설이라고도 한다. 150년경 그리스의 K.[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제안되었던 천동설은 중세까지 거의 1400여 년간 [태양계](#)의 운동을 설명하는 유일한 이론으로 존속되었다. 그 후 폴란드의 N.[코페르니쿠스](#)는 1543년 출판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De Revolutionibus Orbium Coelestium》에서 태양중심설을 제창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만했다. 그때 갈릴레이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주장의 증거가 되는 증거품인 천체 망원경을 제시하여 우주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지동설

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나는 왜 1400년 동안이나 천동설이 사람들에게 믿겨져 왔는지 상당한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사 비교와 그 시대적 상황에 따른 미술, 문학 등을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

Ⅲ.본론

본론에서는 천동설과 지동설 시대에 일어났던 미술사, 음악사, 문학사등의 자세한 자료를 통해 두설에 따른 비교를 해보았다.

i. 미술사 연표에 따른 비교

-천동설시대 때의 미술사-

80년 콜로세움 완성

천동설 시대의 미술사를 보면 대표 적인 것이 이 콜로세움이다.



콜로세움은 변덕스러운 로마 시민들에게 오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원형경기장으로 플라비우스 왕조의 첫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건축하였다.

-지동설 시대의 미술사-

1506년 로마의 산피에트로대성당



바티칸에 있는 대성당으로 유럽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기원은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4세기의 바실리카식 성당으로 올라간다. 1506년 교황 율리시우스는 중단되었던 구당의 개수계획을 재개하기 위해 D.브라만테에게 명하여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보면 건물 양식이 원형 건물에서 네모난 건물로 변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ii. 음악사 연표에 따른 비교

150년경 프톨레마이오스, 7개의 선법 진 대성

천동설을 내세운 프톨레마이오스는 150년경, 몇 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복잡다단한 음계를 7개로 정리하였다.

그렇지만 조사를 해보니 그냥 지금의 음계로 바꾼 것밖에 나오지 않았다. 단하나 밖에 없는 천동설 시대의 음악사 이지만 이것이 아주 큰 소재이다. 비교는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음악이 나오게 되었고 지금도 이 7음계만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동설이 나왔을 때의 음악사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1550년 바이올린 탄생



유럽의 대표적인 찰 현악기로 바탕이 된 악기는 레벡·리라다브라치오·피들 등이다. 바이올린이 오늘날과 같이 4개의 현으로 된 것은 1550년 무렵이다.

1597년 조반니 가브리엘리, <악함과 강하의 소나타>

주요한 작품으로는 2중 합창과 코넷 3대, 바이올린 1대, 트롬본 2대인 6성부의 악기로 이루어진 비전 레용 모테트, 복수의 코넷, 트롬본 4대에 의한 2개의 합주와, 바이올린 1대, 트롬본 4대에 의한 하나의 합주로 이루어진,

제2합주에 바이올린 1대와 트롬본 3대가 포함된 다를 위한 《약함과 강함》의 소나타를 들 수 있다.

1597년 오페라의 시작



르네상스 말기인 1597년 이탈리아 피렌체의 바르디 백작 저택에서 고대 그리스극의 부활을 목표로 그리스신화에서 취재한 새로운 음악극 《다네프》를 만들어 상연한 것이 오페라의 효시이다. 이 악보는 지금 남아 있지 않으며 가장 오래된 오페라는 1600년 상연된 《에우리디케》이다.

앞의 천동설 시대의 음악 자료가 없는 관계로 비교는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시대부터 소나타 형식의 음악과 오페라가 등장 하게 된다.
이제 문학사 비교를 마지막으로 해 보겠다.

iii. 문학사 연표에 따른 비교

먼저 천동설 시대의 문학사를 보겠다.

124년경 아풀레이우스, <변형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한가지 이지만 이것은 확실한 것이 라서 가능하리라고 본다.

아풀레이우스(124?~170?)는 고대 로마의 저술가로 각지를 여행한 후 시인, 철학자, 수사가로 활약하였다. 그의 전기소설 황금당나귀는 라틴어로 씌어진 세계 최고의 완전한 소설로 마법의 기름을 잘못 발라 당나귀로 변한 주인공 루키우스가 온갖 고초를 겪으며 인간을 관찰하는 풍자적인 내용이다.

아마도 <쿠스코 쿠스코>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본다.

이제 지동설 시대의 문학사를 보기로 하자.

1534년 라블레,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

프랑스의 설화 작가 라블레(1534~1564)가 쓴 전5권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희극적이고도 풍자적으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풍부한 어휘, 다양한 기법, 온갖 언어 표현을 구사한 이 대작은 프랑스 르네상스기의 걸작으로 평가되지만, 작품이 외설스럽고 반종교적이라는 이유로 라블레는 당국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았다.

1601년 셰익스피어, <햄릿>

1601년경의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은 5막 비극으로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와 함께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하나이다. 왕위를 빼앗긴 부왕의 원수를 갚는다는 내용으로 당시 유행한 복수 비극의 형태로, 왕자 햄릿의 인간적인 고뇌를 주제로 한 비극이다.

여기서 보면 16세기의 명 작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나온다.

이제 교훈을 주는 극작 보다는 비극이 많이 나오게 된다.

이 시대 사람들은 눈물 꽤나 흘렸을 것이라고 본다.

작품 햄릿은 5막 비극으로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와 함께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하나이다. 왕위를 빼앗긴 부왕의 원수를 갚는다는 내용으로 당시 유행한 복수 비극의 형태로, 왕자 햄릿의 인간적인 고뇌를 주제로 한 비극이다.

이 작품을 보면 이시대의 왕위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부정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그것을 비난하고 바로 잡기 위해 셰익스피어는 많은 비극들을 남겼다.

그리고 천동설 주장당시 시절에는 교훈을 주는 극작들이 많이 나오고 지동설 시대로 넘어 오면서 비극으로 많이 바뀌었다.

또한 지동설이 나타나기 직전에도 비극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동설이 나타난 이 후에는 정치에 대한 비난을 삼은 비극이 많이 나왔다.

iv 시대에 따른 동양사

-천동설 시대의 동양사-

220년 중국, 삼국시대

중국 후한이 멸망한 후 위(魏)·오(吳)·촉한(蜀漢) 등 삼국이 정립했던 시대. 220년 조조의 아들 조비(曹丕)는 후한의 헌제를 강압하여 제위를 양위하게 하고, 뉘양에 도읍하여 위국이라 칭하였다.

-지동설시대의 동양사-

1560년경 명, 일조편법 실시

명은 16세기 말 세와 요역을 은값으로 추산해 총액을 내도록 하는 일조편법을 실시하였다.

1565년 에스파냐, 필리핀 점령

필리핀은 마젤란의 비사얀 제도 항해 이후 1565년부터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였다. 에스파냐는 16~17세기 필리핀의 지방행정제와 종교를 강제 개편하고 노동력을 수탈하였다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점령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0년 오다와라·오우슈를 제압하고 일본 전 지역을 통일하였다. 당시 국내의 힘을 하나로 모으려는 데서 중국 명과의 전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조선을 침략하였다(임진왜란).

중국의 경우에는 천동설시대는 전쟁이 시작되고 지동설 시대에는 무역을 시작하게 되는 오히려 서양사와 반대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지동설 시대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점점 서양강대국에게 식민지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도요토미가 일본을 통일하게 되어 전쟁을 마치게 되었지만 결국 도요토미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그것이 '임진왜란' 이다.

IV. 결론

이상, 나는 미술사, 음악사, 문학사에 따른 결론을 내려 보고자 한다.

먼저 미술사의 경우 자신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천동설 시대에는 중심을 향해 바라보게 되는 원형 경기장들이 생겨나고 지동설시대에는 내가 중심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자유자재로 많은 형태의 건물이 건축되었다.

그리고 음악사에 따른 비교를 본다면 천동설 시대에 7개의 선법 진 대성으로 인해 음계가 줄어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동설 시대에는 소나타 형식, 오페라가 등장 하였으며 아주 훌륭한 음악가들을 낳기도 했다.

음악사를 본다면 비교라기보다는 천동설 시대의 7개의 선법 진 대성을 발판 삼아 지동설시대에는 훌륭한 음악을 낳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학사를 본다면 두 가지 설이 바탕이 된 시대의 여러 가지 면이 보이게 된다.

천동설시대에는 로마제국의 최고 영토였던 시대이다.

그리고 우주의 중심이 로마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우주의 으뜸이고 황제의 말은 우주 속에 사는 사람들로써는 누구도 거역 할 수 없는 말이 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동설이 중심이 된 시대에는 나라가 분단되고 전쟁이 계속 되는 시대인데 황제의 자리라고 하더라도 우주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이 뒤집어엎어지면서 왕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속출되고 그것에 대한 비난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비극이 나온다. 햄릿이 대표적 작품인데 본론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나는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 내면서 지동설과 천동설에 대해 전혀 새로운 각도로 바라볼 수 있었으며 예술, 문학 등을 역사를 살펴보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천동설이 사람들에게 믿겨져 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 나갈 수 있

었으며, 지동설이 나올 때 즈음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그 시대의 생활을 통해 알 수 있었다.

V. 자료 출처 & 도움을 주신 분들

자료출처 : http://www.encyber.com/hist_main.html

도움을 주신 분들 : 아버지, 국어 선생님, 지도 교사 선생님, 담임선생님,
김 병삼 선생님이 도와 주셨습니다.

[향토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성과
경남향토음식의 오해, 편견에 대하여]

-윤재형



1988년 02월 15일 부산 어느 병원 산부인과 출생
리라유치원-○○유치원-꿈나무유치원-양주초등학교-간디중학교
취미 피아노치기, 공부하기, 책보기, 궁상떨기,
내가 신이라 자부하기, 화려한 댄스~♪
특기 피아노, 드럼, 공부, 책읽기, 춤추기, 자주 주접떨기
<주>Milk candy[접], <남중 All star(축구)>, <2002년 학생회>, <기숙사 프로젝트 화산中>,
<인·동·추(인혜, 꿈동 커플추진위원회)>, <드러머>, <로마나이트>, 지구특공대>,
<영화감상부>, <구렛나루파 두목님 왼팔>, <신와>, <over acters>
별명 말새끼
장래희망 고고학자
좌우명 “태양은 언제나 날 위해 뜨고, 날 위해 진다!!”

“향토 음식에 대해서도 처음 접해봐서 재밌고 흥미로운 사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 법을 깨달았고 병은 자연에서 멀어질수록
많이 생긴다는 것도 깨달았으며, 그래서 간디학교가 학생들에게 좋다는 것도 깨달았다.”

-본문 중에서...

1. 머리말

가장 맛있는 지방 음식이라고 하면 보통사람들은 전라도지방의 음식이 가장 맛있다고들 한다.

그리고 가장 맛있는 지방 음식이라고 하면 경상도지방의 음식이 가장 맵고 짜고 자극적이라 맛이 없다고들 한다.

나는 이번 계기를 통하여 경상도 음식에도 맵고 짜게 변화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경상도 음식도 의외로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알리고 싶어서 이 논문을 택하게 되었다.

각 지방 음식은 다 맛이 틀리기 마련이다.

옛날에는 각 지방의 재료들을 다른 지방으로 이동이 쉽지 않아 그 지방만의 고유의 재료와 향신료 등으로 음식을 만들곤 했다.

그리고 그 지방 고유의 엑기스를 만들어 고유의 재료와 조합하고 삶아보고, 찌고, 구워보는 등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 그 지방 특유의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향토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향토음식은 그 지방사람들에게 적합한 음식이다.

만약 경상남도 음식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먹이면 아프리카사람들은 그 즉시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기 마련이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직도 개미를 먹기도 하는데 우리가 만약 개미를 먹는다면 역시 똑같은 증상을 보일 것이다.

이처럼 향토음식은 그 지방 사람들에게 딱 맞는 음식이며, 그 지방음식들의 맛이 다 제각각인 것에도 그 이유가 다 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거나 기형아를 출산하는 등 몸이 많이 약해지고 질병 등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 논문을 통하여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경상도 음식이 아니라 몸에 좋고 맛있는 음식이란 걸 설명해 보이겠다.

2. 논문 목차

1. 향토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을 알아본다.
2. 향토음식과 경남음식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3. 일부 음식의 요리법을 쓰고 내가 만들 때의 요리법을 쓴다.
4. 내가 만든 음식의 평을 내리고 분석해본다.

3. 본론

1) 향토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

보통 사람이 아프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온다.

서양 의학은 병의 치료를 주로 약과 메스에 의존한다. 심리요법이나 물리요법을 병행하거나 호르몬제나 영양제를 보조제로 사용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찢고’, ‘죽이고’, ‘태우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민족의학은 세상에서 가장 흔한 공기, 햇빛, 물, 채소, 씨앗(곡물), 소금 등을 치료제로 사용한다.

우리가 가장 자주 앓는 감기를 예로 들면, 감기는 과식이나 수분, 염분, 비타민C의 부족이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체내 신진대사가 부진하여 여러 가지 노폐물이 쌓인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다시 말하면 감기란 피를 맑게 하고,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한 인체의 자구행위라고 할 수 있다.

시인 괴테가 ‘병은 사람이 자연에서 멀어질수록 가까워지고 자연에 가까워질수록 멀어진다’고 말했듯이 현대병은 사람이 자연을 멀리하고 파괴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조상들의 향토음식 식생활은 병을 낮게 하는데 약보다 훨씬 좋은 효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병은 의사의 의술이나 약만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인체 스스로의 치유력 또는 자연요법에 의해 치료된다. 질병의 증상이란 현대의학이 규정하듯이 무조건 억제해야 할 이른바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깨어진 균형을 바로잡아 건강한 몸을 회복하려고 하는 신호이고 치료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몸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해 우리 몸이 상실하는 것들, 예를 들어 물이나 소금이나 비타민 C 같은 것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 곧 치유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질병의 문제를 이해한 것이 자연의학, 즉 자연건강법이다.

향토음식은 우리 조상들이 연구와 연구 끝에 거듭한 가장 우리에게 알맞고 영양가 많은 약과 같은 음식이다.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은 그 건강법을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스스로 깨고 있고 실제로 인스턴트 식품으로 인해 많은 질병과 수명 단축 등에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요즘 슈퍼에서 대충 가공된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우리 식생활에 무척이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끊임없이 연구한 향토음식을 기본 식생활로 삼음으로써 몸을 더 건강하게 보살피고, 인스턴트 음식을 멀리함으로써 식생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조상들이 직접 연구해서 최상의 영양가와 맛을 갖춘 향토음식엔 간장, 고추장, 된장을 직접 담가 장만하는 음식의 기본 양념으로 함으로써 생명의 살리는 명약, 병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거리가 곧 치료법이며 건강법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한다.

2) 향토음식과 경남음식 특징

ㄱ. 향토음식의 특징.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중앙에는 척추와 같은 산맥이 남북으로 뻗으며,

동·서·남 삼면이 바다를 면하고, 큰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크고 작은 강이 바다로 흘러 그 사이사이에 평야가 펼쳐져 있다. 각 고을마다 자연환경이 다르고 남북 사이의 기후도 다르므로 고을마다 서식하는 생물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특히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19세기 후반 까지에는 각 고을의 특산물로 만드는 향토색 짙은 음식 법이 많았다. 고을마다에 토착된 이러한 음식 법을 향토음식 또는 향토요리라고 한다.

교통의 발달, 산업의 발달은 풍속상의 많은 상호교류를 가져왔다. 특히, 50여 년 전 6·25전쟁으로 인하여 북쪽으로부터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북쪽의 여러 문화가 함께 전파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북쪽의 음식 법이 많이 전파되어 대중화되었다.

향토음식의 형태에는, 첫째 그 지방에서만 생산되는 식료품을 그 지방 사람들만이 전승하고 있는 조리법으로 요리하는 순수한 향토음식이 있고, 둘째 타지방에서 특산 되는 식료품을 도입하여 조리법을 특별히 마련해서 만드는 향토음식이 있으며, 셋째 각 지방마다 만드는 음식이지만 그 조리법에 특색이 있어 묘미를 자랑하는 향토음식이 있다.

최근 지방의 음식 법을 도시로 진출시키는 경향이 활발하여 전문음식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서울의 도시 풍의 음식이 시골로 전파되어 똑같은 이름의 음식을 파는 음식점이 많아졌다. 따라서 경향간의 교류가 빈번해질수록 향토음식은, 그 특색을 잃어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향토음식은 그 생성과정이 자연발생적인 것과 문화의 교류에 따라 전파 또는 재현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음식 법은 완전히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또 사람의 손에 따라 그 조리법이 변하고 음식의 맛도 달라진다.

ㄴ. 경남음식 특징.

동해와 남해를 끼고 있어 해산물이 풍부하고 낙동강 주위의 기름진 농토가 형성돼 있어서 농산물 또한 넉넉하다.

경상도 음식은 대체로 고춧가루와 마늘을 많이 사용하여 얼얼하고 맵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성향은 김치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이는 경상도의 지리적 특성상 따뜻한 지역에 속하므로, 기후 때문에 김치가 쉽게 시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금간을 짜게 하고, 국물을 적게 하고 양념을 비교적 적게 넣는 지혜를 발휘했다. 주위의 풍부한 자원을 잘 이용하여 김치도 진한 젓갈 맛과 매운맛이 강한 편인데, 김치에 들어가는 젓국으로는 멸치젓을 달여서 삼베로 걸러 국물만 쓰고 갈치속젓 등을 넣어 맛을 내기도 한다. 경상도를 대표하는 별미김치로는 부추김치와 우영김치, 콩잎김치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비늘김치, 쪽파김치, 속세김치, 무수김치, 들깻잎김치 등이 유명하다.

경상도 음식은 또한 생선회를 즐겨 먹는데, 이는 바다와 가까운 위치로 풍부한 해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음식은 짜고 매운 편인데, 음식에 모양을 별로 내지 않는 소박함이 특징이다.

내륙지방은 계절별로 생산되는 채소, 과일을 건조가공 저장하여 겨울을 대비하였으며, 해안지방은 젓갈류와 신선한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즐겨 먹었고, 산간지방은 나무열매로 만든 떡, 묵 등 식량대용식과 산채를 이용한 음식이 발달했다.

경상도의 특미요리는 부산의 미나리강회와 통영의 대구맑은국을 들 수 있다. 부산의 언양미나리는 연하고 향기롭고 정갈하기로 이름이 나서 진상품으로 바칠 정도였다. 미나리논에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이 특색이며, 미나리강회 · 미나리김치 등은 향미가 좋다. 또한 통영 앞바다의 대구는 특산물의 하나로서, 대구맑은국이 시원하다.

3) 체험일지

첫 번째 음식은 보양 식만을 골라 만들고 먹어보았다.
재료 설명과 만드는 법은 우선 향토음식 연구회 기준으로 하였고,
만드는 것은 우리 집 방식으로 만들어 보았다.
여기에 우리 집 방식과 향토음식 연구회 자료를 둘 다 적어 놓았다.

추 어 탕



[향토음식연구회 자료]

◆ 재 료

미꾸라지 400g, 삶은 고사리 30g, 삶은토란대 30g, 숙주 20g, 단 배춧잎 20g, 다진 마늘 10g
다진 풋고추, 홍고추 각 10g, 고춧가루, 된장, 방앗잎, 천초가루, 소금 등

◆ 만드는 법

1. 미꾸라지는 소금을 뿌려 해감을 시킨 후 다시 소금물에 여러 번 헹구어 끓는 물에 넣고, 푹 삶아서 체에 내려놓는다.
2. 고사리, 토란 대, 숙주는 삶고, 단 배춧잎은 데쳐서 찬물에 헹궈 5cm 길이로 썰어 둔다.
3. 미꾸라지 물에다 물을 더 붓고 된장을 풀고 2의 재료를 넣고 푹 끓이다가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다진 풋고추, 홍고추를 넣고 끓인다.
4. 한소끔 끓인 후 간을 맞추고, 먹을 때 방앗잎, 천초가루를 넣어서 먹는다.

[실 습]

◆ 재 료

미꾸라지, 숙주, 다진 마늘, 다진 풋고추, 홍고추, 된장, 방앗잎, 천초가루, 소금, 부추, 배춧잎

◆ 만드는 법

1. 미꾸라지는 소금을 뿌려 여러 번 헹궈낸 후 끓는 물에 넣어 삶아서 체에 내려놓는다.
2. 숙주나물, 부추, 배춧잎 등을 씻어두고 파, 양파는 어슷썰기하고 고추, 홍고추는 다진다.
3. 1을 팔팔 끓이고 배춧잎에 된장을 버무려서 1에 넣는다.
4. 3이 끓으면 썰어둔 파, 양파, 고추, 홍고추와 숙주나물, 부추, 마늘 다진 것을 넣는다.

5. 한소끔 끓인 후 간을 맞추고, 먹을 때 방앗잎, 천초가루를 넣어서 먹는다.

장 어 구 이



[향토음식연구회 자료]

◆ 재 료

장어 4마리, 양념고추장(고추장 5큰술, 물엿 3큰술, 생강 1작은술, 마늘 2작은술, 사과즙(계절에 나는 과일) 1컵)

◆ 만드는 법

1. 장어는 배를 가르고 내장을 제거한 후 머리와 꼬리를 잘라낸다.
2. 1을 뼈를 바르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물기를 제거한다.
3. 2를 초벌 구워낸다.
4. 고추장에 물엿을 넣고 녹인다.
5. 생강, 마늘, 사과즙, 정종을 함께 넣고 한소끔 끓여둔다.
6. 1과 2를 함께 섞어 1/2정도 되게 걸쭉하게 졸인다.
7. 초벌구워낸 장어를 6의 양념장을 끼얹어 석쇠에 구워낸다.
8. 7의 과정을 한번 더 반복하면 감칠맛이 난다.

[실 습]

◆ 재 료

장어 3마리, 양념고추장(고추장, 설탕, 생강·마늘 다진 것)

◆ 만드는 법

1. 장어는 배를 가르고 내장을 제거한 후 머리와 꼬리를 잘라낸다.
2. 1을 뼈를 바르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물기를 제거한다.
3. 2를 초벌 구워낸다.
4. 생강·마늘 다진 것과 고추장, 설탕을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5. 초벌 구워낸 장어에 양념장을 끼얹고 다시 한번 더 초벌 구워낸다.



아귀찜

[향토음식연구회 자료]

◆ 재 료

말린 아귀 100g, 콩나물 300g, 미나리 50g, 대파 50g, 된장 3큰술

양념 : 들깨, 찹쌀가루 각2큰술, 고춧가루, 마늘, 소금 등

◆ 만드는 법

1. 마른 아귀를 적당한 크기로 토막내어 5시간정도 물에 불린다.
2. 콩나물은 머리와 뿌리를 따서 준비하고 미나리는 깨끗이 씻어 5cm길이를 자르고 대파는 큼직하게 어슷썰기를 한다.
3. 된장에 물을 붓고 (된장의 5배) 잘 저은 후 체에 거른다
4. 걸러놓은 된장국물에 불린 아귀를 넣고 그 위에 콩나물, 대파를 얹은 뒤 뚜껑을 닫고 김이 오르면 3~5분 더 익힌다.
5. 갖은 양념한 후 한번 더 끓인 다음 뜨거울 때 미나리를 곁들여 얹어낸다.

[실 습]

◆ 재 료

생아귀, 콩나물, 마늘·생강 다진 것, 간장, 고춧가루, 청고추, 홍고추, 파, 찹쌀가루, 들깨가루, 통깨

◆ 만드는 법

1. 생 아귀를 토막내어 깨끗이 씻고 콩나물은 머리를 따서 씻는다.
파, 홍 고추, 청 고추 역시 깨끗이 씻어둔다.
2. 마늘과 생강은 다져둔다.
3. 생 아귀와 콩나물을 1/2 비율로 넣고 물을 조금 넣고 끓인다.
4. 3이 끓는 동안 간장, 고춧가루, 마늘·생강 다진 것으로 양념장을 만든다.
5. 청 고추, 홍 고추, 파는 어슷썬다.
6. 3이 다 끓으면 준비해둔 양념장을 넣고 한 소끔 끓인다.
7. 6이 끓으면 어슷썰기 한 홍 고추, 청 고추, 파를 넣고 또 한 소끔 끓인다.
8. 7이 끓으면 찹쌀 가루와 물을 섞어 넣는다.
9. 다 끓인 아귀찜에 들깨가루를 넣고 통깨를 뿌린다.



재첩국

[향. 음. 연, 실습]

◆ 재 료

재첩 1되, 물5되, 고춧가루 2큰술, 부추 100g, 소금 3큰술

◆ 만드는 법

1. 재첩을 하루정도 물에 담궈 속을 토하게 한 후 깨끗이 씻어 소금을 약간 넣고 푹 끓인다.
2. 먹을 때 소금으로 간하고 잘게 썬 부추, 고춧가루를 넣어 먹는다.

※ 재첩껍질을 쉽게 제거하려면 끓어오를 때 주걱으로 세게 저어주고 찬물을 한 사발 붓고 다시 끓여 끓어오르면 한 번 더 세게 저어 준다.

더덕구이

[향토음식연구회 자료]

◆ 재 료

더덕 500g, 두부 100g, 어린 배추 100g, 양파 100g, 밀가루 100g, 식용유약간
고추장양념(고추장, 참기름, 물엿)

◆ 만드는 법

1. 더덕은 껍질을 벗겨 손질하여 고추장 양념에 재워둔다.
2. 어린 배추와 양파는 채 썰고 두부는 으갠 후 밀가루 반죽을 해둔다.
3.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②의 야채를 얇게 편 후, 그 위에 더덕을 놓고 구워낸다.

[실 습]

◆ 재 료

더덕, 두부, 깻잎, 양파, 밀가루, 식용유약간, 고추장, 마늘, 설탕

◆ 만드는 법

1. 더덕 껍질을 벗기고, 양파와 깻잎을 채 썬다.
2. 더덕을 망치로 두드려 납작하게 만든다.
3. 양파와 깻잎과 두부를 밀가루에 넣어서 섞는다.
4. 고추장, 다진 마늘, 설탕을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5. 4에 더덕을 버무린다.
5. 프라이팬에 불을 붙여 달아오르면 3을 부침개 굽듯이 조그만 동그라미 모양으로 만들어

그 위에 더덕을 올려 같이 구워낸다.

삼 계 탕



[향토음식연구회 자료]

◆ 재 료

중간닭 1마리, 찹쌀 100g, 수삼 3뿌리, 밤 3개, 대추 5개, 마늘 50g

◆ 만드는 법

1. 삼계용 닭을 준비하여 뱃속을 깨끗이 씻어 놓는다.
2. 찹쌀을 씻어 일어서 물에 불려 놓는다.
3. 간 밤은 물에 불려 둔다.
4. 수삼과 대추는 깨끗이 씻는다.
5. 닭의 뱃속에 불린 찹쌀과 수삼, 마늘을 넣고 쌀이 나오지 않도록 껴맨다.
6. 두꺼운 도가니에 닭이 충분히 잠기도록 물을 붓고 닭과 밤을 넣고 푹 고운다.
7. 소금, 후춧가루로 간을 맞춘다.

[실 습]

◆ 재 료

중간닭 1마리, 찹쌀, 수삼 1뿌리, 밤 1개, 대추 2개, 마늘 1개

◆ 만드는 법

1. 삼계용 닭을 준비하여 뱃속을 깨끗이 씻어 놓는다.
2. 찹쌀을 씻어 일어서 물에 불려 놓는다.
3. 닭을 압력밥솥에 물과 넣고 15~20분 정도 푹 삶는다.
4. 3이 다 삶아지면 찹쌀과 수삼, 마늘, 대추를 넣고 또 15~20분 정도 푹 삶는다.
5. 소금, 후춧가루로 간을 맞춘다.

메기 매운탕



[향토음식연구회 자료]

◆ 재 료

메기 1마리(1kg정도), 육수 5컵, 썩갓 200g, 깻잎 200g, 무 100g, 감자 100g 호박 100g, 건 대추 7개정도, 수삼 20g(1뿌리), 다진 마늘 1큰술, 검정콩 1큰술 들깨가루 1큰술, 제피가루 ½작은 술, 표고버섯 100g, 된장 1큰술, 대파 100g 미나리 200g, 고추장 1큰술, 고춧가루 2큰술, 속음 배추(여름용;150g) 또는 시래기(겨울용;150g)

◆ 만드는 법

1. 메기는 깨끗이 씻어 적당한 크기로 토막을 낸다.
2. 육수에 고추장, 들깨가루를 풀고 무, 감자, 호박을 깍둑썰기 하여 넣는다.
3. 살짝 끓인 후 거품을 걷어내고 건 대추, 인삼, 검정콩, 표고버섯과 메기를 넣고 중불에서 끓인다.
4. 먹기 전에 썩갓과 깻잎, 속음 배추, 대파, 미나리, 다진 마늘, 제피가루를 넣고 익혀서 먹는다.
5. 간은 고춧가루를 간장에 풀어놓은 것으로 적당량 식성에 맞게 넣고 마지막 뒷간은 된장으로 한다.

[실 습]

◆ 재 료

아귀, 썩갓, 깻잎, 무, 감자, 호박, 건 대추, 다진 마늘, 들깨가루, 제피가루, 대파, 미나리, 고추장, 고춧가루

◆만드는 법

1. 콩나물을 냄비 밑에 깔고 깍둑썰기한 무, 호박, 감자를 그 위에 아귀와 같이 얹고 끓인다.
2. 고추장을 풀고 소금을 뿌려 간을 한다.
3. 대추, 미나리, 청·홍고추, 깻잎, 파를 2가 끓을 때까지 다듬고 2가 끓으면 고춧가루와 마늘을 넣는다.
4. 또 적당히 끓으면 다듬은 미나리, 청·홍고추, 대추, 파, 깻잎을 넣고 끓인다.
5. 제피가루, 들깨가루를 넣고 끓인다.

갯잎소박이



[향. 음. 연 자료, 실습]

◆ 재 료

갯잎 30장, 밤 30개, 당근 2개, 부추 100g. 멸치액젓 1컵, 진간장 5큰술, 물엿 3큰술, 고춧가루 1컵, 마늘 1큰술, 생강 1/2큰술, 찹쌀풀 1/2컵, 통깨, 실고추

◆ 만드는 법

1. 중간크기의 갯잎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다.
2. 멸치액젓은 약불에서 끓인 다음 고운 천에 내려 맑은 액것만 걸러 식힌다.
3. 진간장에 물엿을 넣고 졸여 식히고, 찹쌀 풀도 끓여 식힌다.
4. 밤, 당근, 부추는 같은 크기로 채 썰어 준비한 후 ②,③에 고춧가루 갖은양념을 하여 김치 속을 만든다.
5. 갯잎 끝이 위로 오게 하여 반으로 접어 깔고 ④를 넣고 갯잎으로 잘 만 다음 끝을 풀리지 않도록 끼운다. 통깨와 실고추를 위에 뿌린다

4) 실습에 대한 평가

▶추 어 탕

추어탕은 손질이 가야 하는 곳도 많고 무척이나 까다롭기 때문에 처음 하는데 많은 고생을 했었다. 미꾸라지 하나하나를 씻기에도 거부감이 들었고, 워낙 미끄러워 잘 잡히지도 않았다.

보통 추어탕은 너무 까다로워서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다, 미꾸라지에 거부감이 들어서 하지 못하는 주부들도 많다. 시식을 해봤을 땐 좀 싱거운 감이 있었지만 처음 만든 것과 추어탕이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잘 만든 편이었다.

위쪽지방에선 미꾸라지가 많이 나지 않아 민물고기를 많이 쓰지만 경남 지방에서는 미꾸라지가 특히 많이 나서 추어탕엔 꼭 미꾸라지를 쓴다.

추어탕에서 가장 중요한 추어탕 특유의 향이 방아에서 나는 것이라는 것도 추어탕을 만들면서 깨달았고, 입맛이 없거나 좀더 특색 있는 음식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추어탕을 추천해드리고 싶다.

우선 미꾸라지는 뼈를 바르지 않고 통째로 갈아서 만들어서 추어탕을 먹을 때도 뼈가 씹히는 맛이 있었다. 뼈 씹히는 맛을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도 생각 외로 많다.

추어탕의 오독오독 거리는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이라면 뼈를 바르지 말고 통째로 갈아서 드시는걸 추천한다.

그리고 천초가루와 방앗잎은 추어탕의 필수 요소이다. 추어탕의 향을 방앗잎과 천초가루가 좌우하기 때문이다.

▶장 어 구 이

장어구이는 다들 보양 식이라고도 한다. 맛도 좋지만 몸에 좋은 것도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어구이는 보통 익은 정도와 양념장이 맛을 좌우하는데 우선 장어구이는 위쪽지방에는 보통 고추장을 발라서 구워 먹거나 그냥 구워 소금에 찍어먹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남에서는 특이 양념장을 만들어 발라서 구워 먹는다.

경남의 유명 장어구이 음식점에서는 전부다 양념장에 하나씩 비법이 있다.

그만큼 장어구이의 양념장은 맛을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

장어구이는 비싼 음식이라 많이 만들지를 못했다.

전에 했던 추어탕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이 쉬운 편이라 큰 어려움은 들지 않았다.

특히 시식했을 때 장어만의 단백한 맛과 장어구이 양념장 특유의 맛이 정말 맛있었다.

누구나 장어구이는 대부분 다 좋아할 것이다.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 생각한다.

▶ 아귀 찜

아귀찜은 음식의 걸보기와는 다르게 많이 쉬운 편이었다.

나물을 하나하나 씻어내는 것을 제외하곤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았다.

소금과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서 많이 짠 면이 있었다. 이점에선 조금 아쉬움이 있다.

국자에 그냥 대충 고춧가루와 소금을 풀어 넣어서 정확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리고 맵고 짜면서 또 탕류와는 다른 얼큰함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 술안주용으로 적합한 것 같았다.

입이 예민하거나 맵고 짠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고춧가루와 소금을 조금만 넣고 먹길 바라며 술이 고프시거나 조금 땀을 빼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추천음식이라 생각한다.

아귀찜은 많은 어른들이 술 한잔 할 때 안주용으로도 많이 먹는데 조금은 맵고 짜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직접 내가 만들 땐 아귀찜을 마른 아귀보다는 생 아귀를 써서 물에 불리는 과정을 없애고 즉석으로 만들었다. 콩나물을 넣지 않고 숙주나물을 넣기도 하는데 그리 상관은 없다.

▶ 재첩 국

우선 재첩 국은 시작하는데 하루가 기본적으로 소요된다.

재첩 안의 모래를 다 빼기 위해 물에 불려두는데 하루가 소요되지만, 그 뒤엔 무척이나 쉬운 조리방법에 나도 깜짝 놀랐었다.

재첩 국은 그냥 술에 끓이면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만 하면 그게 끝이다.

아마 경남 향토 음식 중에 가장 간단한 조리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국은 어른들 술 드시고 난 뒤 아침에 속 풀이용으로 아주 좋은 국이다.

보통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겐 입맛이 잘 안 맞지만 어른들은 아침에 속 풀이용으로 아주 좋다고 한다.

그 외 간단하면서도 영양가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겐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 삼계탕

이 음식은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음식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 삼계탕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닭백숙으로 아는 사람이 더 많다.

삼계탕과 닭백숙은 엄연히 다르다. 삼계탕은 닭 배속에 갖가지 재료를 넣고 요리하는 것이지만 닭백숙은 냄비에 그냥 닭과 재료를 넣고 요리하는 것이다.

삼계탕은 여러 연령층이 고루고루 즐길 수 있으며, 산이나 계곡에서 먹어준다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보통 여름에 더위를 “이열치열”로 이기기 위해서 먹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몸을 보신하기 위해 먹는 사람들도 많고 닭고기 특유의 단백한 맛 때문에 찾는 사람들도 많다.

닭백숙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삼계탕은 닭 배속 안에 닭 외의 재료를 넣어서 삶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이 닭백숙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까다롭다. 또 배속에 재료를 넣은 뒤 배를 실로 꿰매야 하기 때문이 더더욱 까다롭다. 나는 실로 꿰매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만들었다.

▶ 더덕 구이

더덕구이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난 개인적으로 이번에 처음 만들어 봤는데 고추장을 쓰지 않고 장어구이 양념 조금 남은걸 썼더니 더더욱 감칠맛이 났다.

조금은 맵고 짜고 많이 먹으면 질리는 면이 있지만 가끔 색다른 반찬을 원하실 땐 이 음식을 한번쯤 만들어서 먹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더덕이 영양가가 많고 생산지가 많아서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기도 하다.

다음 번에 해 먹을 땐 고추장으로 만드는 더덕구이를 해 먹어보고 싶다.

그리 어려운 조리법도 아니어서 간단히 해먹을 수 있었다.

단, 주의할게 있다면 더덕구이를 굽기 시작할 때 열을 잘 조절해야 타지 않고 노릇노릇한 더덕구이가 나올 수 있다.

더덕구이는 금새 타 버리기 때문에 잠시라도 한눈 파는 건 금물이다.

▶ 메기 매운탕

얼큰하다면 매운탕을 절대 빼놓을 수 없다.

매운탕은 얼큰한 맛이 일품이라 어른들이 술 드실 때 많이 애용한다.

여러 가지 해산물과 나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양가 또한 일품이며 맛도 그리 맵고 짜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 같은 경우도 매운탕만 있으면 밥 몇 공기를 똑딱 해치울 정도다.

매운탕은 보통 민물고기를 넣는 매운탕도 있고 그 외 생선을 넣어 끓이거나 뼈만 넣어 끓이는 매운탕도 있는데 각 지방마다 각자 매운탕이 있다.

나는 메기가 시장에 잘 팔지 않아 아귀찜을 만들 때 하다 남은 아귀를 메기 대신 사용했다.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간도 잘 맞춰 졌으며, 나물과 아귀가 골고루 배합된 거 같았다.

아귀와 메기는 그리 별 차이가 없어 대신 넣어도 그리 상관은 없다.

매운탕은 간을 잘 맞춰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싱겁거나 짜거나 매우면 재료를 다 버리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요하는 어려운 진수성찬 음식이다.

▶ 깻잎 소박이

깻잎소박이는 오이소박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곁에 둘러져 있는 게 오이가 아니라 깻잎이라는 점이 다른 점이다.

오이와 깻잎은 영양가에서도 다르지만 맛에서도 많이 차이가 난다.

오이는 시원하면서 두터운 느낌을 주며 오이소박이 속의 맛이 그리 잘 느껴지지 않지만 깻잎은 얇기 때문에 양념이 베여도 그리 많이 맛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얇아서 소박이 속의 맛이 훨씬 잘 느껴진다고 할 수 있겠다.

만약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깻잎소박이를 먹어보는 것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한다. 깻잎이 냉장고에서 얼어버려서 약간 실패하긴 했지만 그리 간도 잘 맞았고 깻잎이 시든 것만 아니면 요리는 성공한 편이라고 본다.

4. 결론

ㄱ. 경남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

보통 사람들은 경남음식이 맵고 짜기만 하여 다 맛이 없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경남음식을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고 맛있는 음식은 먹어보지도 않고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무조건 맛없다고 여기고 전주 음식만 취급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맛있는 음식만 찾고 무조건 영양가 풍부한 음식만 찾으려면 자기 몸의 균형이 깨지기 마련이다. 자기에겐 딱 맞고 맛없지만 영양가가 골고루 잘 배합된 음식을 찾는 게 바람직한 우리 식생활 문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경남음식은 맛이 없다기 보다 경남 지역은 기후가 따뜻하기 때문에 음식이 빨리 상하는걸 방지하기 위해 우리 조상들은 소금으로 저려 오래 저장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했다.

경상남도 음식이 다 맵고 짠 것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 지방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적응해 나간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각 지방에는 그 지방사람들에게만 맞도록 만들어진 음식이 있으며, 그 음식은 전부 소중한 것이다.

각 지방 조상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발명해낸 향토 음식들을 비판할 권리는 아무도 없고 오히려 그 정신을 본받아야 되는 것 같다.

ㄴ. 우리 식생활 문화 개선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담그는 조상들의 지혜를 보면 놀랍다. 천연소금을 독에 담아 햇빛에 쬐여 핵비소를 중화시킨 데다가 콩, 밀가루 등의 곡식을 섞어 만든 간장, 된장, 고추장은 최상의 염분과 단백질을 우리 민족에게 보급해 왔다. 사실 이 간장, 된장, 고추장만 담가먹을 줄 알아도 건강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이다. 간장, 된장, 고추장의 영양가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담그는 정성이 있다면 결코 건강을 해치는 식생활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실제로 슈퍼에서 대충 가공된 인스턴트 간장, 된장, 고추장을 쓰면서 사람들은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사람은 자연과 가까이 지내며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면 질병이 몸에서 스스로 물러가기 마련이다.

요즘 세상이 편해지면서 오히려 질병은 더더욱 확산되고 많이 늘었다.

현재 서양의학에서 밝혀진 질병의 개수는 17만개라고 한다.

식생활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 식생활은 곧 예절이고 음식은 정성의 전수이며 혼의 전달이다. 우리의 식생활이 사라져 간다는 것은 곧 우리의 예절이 사라져 가고 민족혼이 소멸된다는 말과 다름없다.

올바른 식생활 개선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는 일이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

ㄷ. 하면서 느낀 점.

처음 막상 시작 할 때는 음식을 원래 내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 내가 사는지방도 마침 경남이라 이 기회에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라고 생각해서 망설일 것 없이 그냥 이걸로 논문을 정하게 되었다. 정말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며 했었지만 조금 지나보니 자료가 너무 없어 도서관을 갔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무리 도서관을 뒤져도 경남음식에 관한 자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경남음식이 사람들에게 호응이 없다보니 자료가 없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인터넷엔 검색을 해도 경남음식에 관한 사이트는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유명음식점에 관한 정보만 산처럼 나왔다.

전주음식과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의 양. 처음엔 좌절도 많이 했었고 많이 망설이기도 했었다. 하지만 옆에서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어머니 후배 분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다시 힘을 내게 되었다.

경남음식 여러 종류를 다시 체험해보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고, 내가 먹고 있는 경남음식의 특징과 종류를 하나하나 다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향토 음식에 대해서도 처음 접해봐서 재밌고 흥미로운 사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 법을 깨달았고 병은 자연에서 멀어질수록 많이 생긴다는 것도 깨달았으며, 그래서 간디학교가 학생들에게 좋다는 것도 깨달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재밌었던 건 직접 요리를 만들면서 지식도 쌓고 먹으면서 성취감도 느끼는 실습 때가 아니었나 싶다.

이번 논문을 통해 느끼게 된 것이 너무나도 많아 이번 계기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부모님과 어머니 대학 후배분.., 나에게 마지막까지 도움을 주시고 대구로 가신 양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일일이 보고 조언을 해주신 은주쌤, 하나하나씩 일일이 밤늦게까지 지도해 주시던 재화 아버지, 힘들 때 옆에서 하나하나 다 도와주었던 중2, 중1 동생들....

그리고 내가 매일 귀찮게 굴어도 웃으면서 책을 찾아주시던 도서관 책 관리직원님..에게 내 논문이 끝난 즐거움을 바치겠다.

참고 서적

1. 민족생활의학 장두석 저서 정신세계사 출판.
2. 사람을 살리는 먹을거리 강순남 저서 여성신문사 출판.

[간디학교 학생들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의식 조사’]

-김보현



1987년 대구 출생
효성유치원-가야어린이집-송일초등학교
취미/특기 낙서
좌우명 “태평하게 살자”, “웃으면서 살자”

“간디학교 학생들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고, 어느 나라가 어떤 방면에서 어떤 세세한 부분이 좋아서 인기가 많은지도 알아보고 싶었다.”

-본문 중에서...

목차

1.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2. 애니메이션의 정의
3. 애니메이션의 종류
4. 애니메이션의 역사
5. 애니메이션에 대한 설문조사
6. 질문을 한 이유
7. 분석
8. 결론

1.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애니메이션...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웃으며 즐기는 사람의 작품..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과 일본의 애니메이션..그리고 미국 애니메이션..이 3나라의 애니메이션은 상당히 많은 곳에서 방영을 하는데..간디학교 학생들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고, 어느 나라가 어떤 방면에서 어떤 세세한 부분이 좋아서 인기가 많은지도 알아보고 싶었다.

2. 애니메이션의 정의

정지해있는 그림들을 빠르게 연사해서 보여주는 것, 사람의 눈에 있는 신경세포의 착시 현상으로 많은 그림이 빨리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3. 애니메이션의 역사

최초의 애니메이션은 만화영화 초창기의 거장인 스튜어트 블랙톤 (J, Stuart, Blacton)의 ‘Humorous Phase of Funny FJaces‘로 1906년 미국에서 제작되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에는 대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며, 너무나도 당연하게 흑백이었다. 그리고 1920년에 최초의 컬러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었고. 1951년 캐나다에서는 최초의 3차원 애니메이션이 개발되었고, 되는 등 몇 년 후 한국에서 한국최초의 애니메이션 ‘홍길동’ 이 제작되었다. 실제 한국애니메이션의 성장기간은 상당히 짧은데, 현재 40년도 되지 않았다. 애니메이션은 빠른 성장을 거듭해왔다.

4. 애니메이션의 종류

애니메이션이 제작될 때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그 기법에 따라 애니메이션은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Full Animation

촬영 대상을 1초당 24매씩 촬영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Full Animation이라고 한다. 이 방식은 미국 월트 디즈니의 대표적 스타일이며 세계 대부분의 촬영 방식 중 하나이다. 기본적 초당 매수 적용을 24frame을 기본으로 하지만 고밀도 작업에선 120frame이상까지도 적용하는 파격적인 디지털 애니메이션이 등장 하고 있다. Full Animation은 제작 기간과 제작비가 Limited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만 화면상 움직임이 부드럽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frame 수가 많은 만큼 화면 진행 속

도가 느리다.

Limited Animation

촬영 대상을 2매(2콤마) 또는 3매(3콤마) 이상씩 반복 촬영해 나감으로써 화면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Limited Animation이라 한다. 이 방식은 일본의 대표적인 스타일이며 셀 수가 적게 드는 것이 특징이다. 그 만큼 제작 기간과 제작비가 적고, 빠른 화면의 취약점을 살리기 위한 연출과 효과의 비중이 커진다. Full Animation이 부드러운 맛을 추구한다면 Limited Animation은 딱딱하면서 절도와 스피드를 추구한다. 최근의 애니메이션들은 대개 위의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병합한 애니메이션 기법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셀 애니메이션

종이에 그린 그림을 투명 셀에 옮기고, 그 뒷면에 채색한 후 배경 위에 셀을 겹쳐 놓고 한 프레임씩 촬영해 나가는 것으로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제작기법이다. 이 기법은 분업이 가능하여 상업 애니메이션으로의 발전이 컸었다. 때문에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이기도 하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필요한 장면 또는 화면 전체를 인형이나 모형, 흙, 모래 등으로 조금씩 변화를 줘가며 촬영해 나가는 것으로 입체감을 뚜렷이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독특한 소재로서 특수재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실제 촬영이 힘들거나 허구를 창조해낼 때 쓰이기도 하며, 재질의 특성을 살린 애니메이션도 적지 않게 제작되고 있다

페이퍼 애니메이션

화면 전체에 운동감을 줄 수 있는 이 기법은 한 장의 종이 위에 배경뿐만 아니라 모든 요소를 그려 넣어 애니메이션 화 시킴으로써 움직이는 모든 선의 영상미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 이 같은 형태의 애니메이션은 분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가의 주관적 독창성이 가미된 실험 작품이나 CF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절지 애니메이션

대개 종이나 형겅, 또는 나무 등으로 만든 그림을 잘라내어 배경 위에 겹쳐 놓고 촬영하는 것으로 질감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단조로우나 깊이 감을 줄 때 주로 쓰인다.

시네리카 애니메이션 (핸드 메이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의 대상이 될 그림을 칼이나 송곳, 칼 같은 도구로 필름 표면을 긁어 그림을 그린 후 채색하거나 빛을 투과하여 효과를 얻는 기법을 말한다.

이 기법은 작은 필름 위에 정교한 애니메이션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섬세하고 세심한 작업이 요구된다. 흔히 영화에서 말하는 Rotoscoping 작업이라 불리기도 하며 대표적인 것이 스타워즈의 광선검 같은 것이다.

컴퓨터 애니메이션

컴퓨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말한다. 수작업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적이고 환상적인 표현을 컴퓨터에 의해 사실적인 표현은 물론 기대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수작업 애니메이션에서 오는 환경 문제와 정확성, 깨끗한 화질, 전문성 등을 실현할 수 있다.

5.애니메이션에 대한 설문조사

졸업논문 설문지 (애니메이션 관련) 이름 :

1.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 정도는?

- ① 정말 좋아한다. ② 좋아하는 편이다 ③ 가끔 보는 정도다
④ 유치해서 관심 없다.

2. 한 달에 애니메이션을 몇 편, 정도 보는가?
편

3.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는가?

- ①인터넷 ②잡지 ③친구들에게 듣는다 ④기타:

4. 어떤 애니메이션 장르를 가장 좋아하는가?

5.어느 나라의 애니메이션을 가장 좋아하는가?

- ①대한민국 ②일본 ③미국 ④기타

6.국내 애니메이션 중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7.일본 애니메이션 중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8.일본 애니메이션이 성공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중복가능)

- ①그림체가 마음에 들어서 ②애니메이션에 담긴 철학이 좋아서
③독특하고 재미있는 전개방식 ④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많아서
⑤기타

9.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중복가능)

- ①그림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②담긴 철학이 빈약해서
③유치한 전개방식 ④지나치게 패러디가 많아서

10. 만약 친구에게 보여 주고 싶은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제목을 적어주시길..

지금까지 물음에 답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언제 물 한잔 대접해드리죠.

6. 질문을 한 이유

1번 질문의 경우에는 한번의 질문으로 답하는 사람이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번도 애니메이션을 보는 양으로 판단을 할 뿐 1번과 같은 이유다. 3번은 학생들이 애니메이션 관련 정보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4번은 좋아하는 장르를 알아보기 위해서, 5번은 학생들이 어느 나라의 애니메이션을 가장 좋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6번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좋은 느낌을 주는 작품이 몇 개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7번은 일본애니메이션의 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8번은 제목과 같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9번도 마찬가지이다. 10번의 경우 학생들이 권하는 작품은 어떤 것들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설문지로 보는 간디학교 학생들의 애니메이션!!

7. 분석

1. 설문조사의 결과

학 년	중1 (18명 참가)				중2 (18명 참가)				중3 (14명 참가)						
1번	1.	2.	3.	4.	1.	2.	3.	4.	1.	2.	3.	4.			
	2	13	3	0	2	7	8	0	3	6	3	1			
2번	평균	편	이상	평균	편	이상	평균	편	이상	평균	편	이상			
3번	1	2	3	4	1	2	3	4	1	2	3	4			
	8	2	10	1	4	2	8	2	1	2	9	1			
5번	1	2	3	4	1	2	3	4	1	2	3	4			
	1	17	0	0	1	15	1	1	0	14	0	0			
8번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9	5	13	3	0	7	4	13	3	2	7	5	10	2	0
9번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4	1	6	4	0	4	5	11	7	4	2	2	9	3	2
장 르	가장 인기가 많은 장르 액션 8표				가장 인기가 많은 장르 코믹 3표				가장 인기가 많은 장르 (2표씩) 미소녀변신 드라마 액션						

2. 설문조사의 분석

위의 표를 참고로 해서 간디학교 학생들의 의식을 알아보자

①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도 50명 중 26명으로 절반이 넘는 사람이 '좋아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14명이 '가끔 보는 편이다'라고 응답했으며 7명이 매우 좋아한다. 1명이 '유치해서 관심 없다'라는 응답을 했다. 50명 중 33명으로 학생들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도는 66%로 높은 편이다.

2번 질문인 한달에 애니메이션을 몇 편이나 보는가? 에서는 7명을 제외하고는 0~5편을 본다고 했으며 7명의 답변은 집에서 매일(하루에 1편) 10편, 집에서 하루에 4~5편, 20편, 30~40편, 62편, 10편, 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43명의 답변에 비해서 약 1/6~1/7배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준 이었다. 애니메이션 수로만 보자면, 관심도는 높지 않다.

②간디학교 학생들은 어디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가?

이 질문에서 27명이 친구들에게서 듣는다. 라는 답변을 했다. 그리고 13명이 인터넷에서, 6명이 잡지에서 ,4명이 기타라는 집계가 나왔다.

③어느 나라의 애니메이션을 가장 좋아 하는가?

46명이 일본 애니메이션, 1명이 미국 애니메이션 2명이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그리고 1명이 '가리지 않고 본다.' 라고 응답했다

④가장 인기가 많은 한국애니메이션

아기공룡 둘리 12표

⑤일본 애니메이션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작품은?

원피스 11표

⑥일본애니메이션이 인기가 많은 이유.

그림체가 좋아서 23표 애니메이션에 담긴 철학이 좋아서 14명 독특하고 재미있는 전개방식 36명 선정적이고 폭력적 장면이 많아서 8명으로 집계되었다.(기타 3명 의견 각도 같은 것을 잘 정했다. 원래 많이 발전했다. 내용자체가 흥미롭다.)

㉞한국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없는 이유

그림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10명 담긴 철학이 빈약해서 8명
유치한 전개방식 26명 지나치게 패러디가 많아서 14명 (기타 6명
의견 자신은 한국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너무 아이들을 위한 것 같다.
거의 초등학생용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틀에 박힌 내용이 대부분이다.
대사가 멋이 없다 그래픽이 낡았다. 1인의 의견) 모르겠다. 소재가 일괄적.

분석결과

간디학교 학생들..66%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의견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도는 높았다. 하지만 높은 관심도에 비해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데는 큰 관심이 없었다. 86%가 한달에 0~5정도를 본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 애니메이션이나 미국 애니메이션 보다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는데, 독특하고 재미있는 전개방식이 좋다는 의견이 약 45% 매우 높았다. 전체적으로 액션장르를 가장 좋아했으며(10표) 한국애니메이션이 인기가 없는 이유를 유치한 전개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였다.

8. 결론

생각보다 간디학교 학생들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다는 것은 내 생각과 빗나갔다. 그만큼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발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서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지만 전체 인원 68명 중에 50장만 거둬져서 더욱 더 완벽에 가까운 통계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다. 설문지가 모자라서 거의 마지막에 헐레벌떡 완성한 감이 없지는 않다. 만약 이런 기회가 또 난다면, 좀 더 열심히 설문지를 거둬들여서 좀 더 나은 논문을 완성 했으면 하는 바람 이다.

END 完 Thank you

[단편영화 제작과 독립영화의 세계]

-정사랑(丁思浪)



1987년 서울 출생
현재 부천 거주
우수논문상 수상
인희유치원-대명초등학교-간디청소년학교
별명 오사카, 외계인, 정씨
취미 디지털캠코더로 깨작대면서 놀기, 십자수,
Dance, 엄마, 아빠랑 놀기
특기 꽃미남 찾기, 동그리(김슬기)굴리기, 소리 지르기, Dance!!
차분하고 얌전하게 앉아서 노는 거
동아리 <지구특공대>, <안티프라민>, <슈팅스타>, <여우하품>
<미남의 正石> 소속
좌우명 “정상에서 만납시다!”

“저에게 세상과 영화라는 파라다이스를 보여주신 아빠, 엄마.
남이보기엔 자식교육에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도 제일 신경 쓰시는 거 알아요.
아빠, 엄마가 저에게 세상과 영화라는 파라다이스를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멋진 파라다이스로 모실 수 있게 할게요.”

-본문 중에서...

차례

<1>논문(작품)의 동기 및 필요성

- 1.논문의 동기 및 필요성

<2>논문(작품)의 내용

- 1.독립영화의 역사
- 2.“숨바꼭질”이 만들어지기까지*시놉시스,시나리오,콘티,제작일기 별첨*
- 3.제작한 단편영화 상영
- 4.논문을 끝내고 난 소감

<3>논문(작품)의 설계

- 1.논문 대상
- 2.논문제작 기간
- 3.논문의 방법 및 절차

<4>논문의 실행

- 1.독립영화란 무엇인가-독립영화의 역사
독립영화의 공통된 특징과 “숨바꼭질”의 의의와 한계
독립영화를 본 느낌
한국의 독립영화계
- 2.“숨바꼭질”이 만들어지기까지-시나리오와 콘티 그리고 편집 제작과정 설명
별첨한 시놉시스,시나리오,콘티,제작일기 보여주기
- 3.제작한 단편영화 상영-제작한 단편영화 상영하기
- 4.소감발표-논문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소감 발표하기

<1> 논문(작품)의 동기 및 필요성

1. 논문의 동기 및 필요성

일단 논문을 제작하는 가장 큰 동기는 출업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간디중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제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가장 큰 동기를 제외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말하자면
그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말만 한 사람들은 다 알듯이, 나의 장래희망은 영화감독이 되는 것이다.
요즘 한번쯤 이 직업을 희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겠냐만,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나의 장래희망은 출근 영화감독이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각을 표현하고 사는데
나는 내 생각을 영화라는 것에 빌려 표현하고 싶은 소망밖에 없다.
내 생각을 표현하려고 할 때 영화만큼 빌리기 좋은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 영화감독이 되려면 영화를 찍어봐야한다.
영화를 찍어보기 위해 이 주제를 정했다.
영화제작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가 될수있는대로 찍어보고싶었다.
또, 한창 상업영화만 접해보았다가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독립영화도
접해보고싶은 마음에, 단편영화를 제작하려면 독립영화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간디중학교 졸업논문의 주제를 “단편영화제작”으로 정했다.
그리고 미래의 영화감독이 될 지금의 날 위한 공부가 이 연구의 동기 및 필요성이라고
정해두겠다.

<2> 논문(작품)의 내용

1. 독립영화란 무엇인가
2. “숨바꼭질”이 만들어지기까지
3. 제작한 단편영화 상영
4. 논문을 끝내고 난 소감

<3> 논문(작품)의 설계

1. 논문대상

- 독립영화

2. 논문제작 기간

- 7월 24일 ~ 10 12일 (약 80일)

3. 논문의 방법 및 절차

- 독립영화란 무엇인가 - 인터넷과 서적을 이용.

- “숨바꼭질”이 만들어지기까지 - 별첨한 시놉시스와 시나리오, 콘티, 제작일기를 정리, 보여준다.

- 제작한 영화 상영 - 상영하기

- 논문 소감 발표 - 논문을 제작하면서 느꼈던 소감 발표

논문 제작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표하기

<4>논문 의 실행

1. 독립영화란 무엇인가

-독립영화의 역사

독립영화란 일명 “인디영화” 라고도 한다. 이윤 확보를 1차 목표로 하는 일반 상업영화와는 달리 창작자의 의도가 우선시되는 영화로, 주제와 형식, 제작방식 면에서 차별화된다. 따라서 여기서의 ‘독립’이란 자본과 배급망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의 단편영화가 대부분이며 소수의 관객과 독자적인 배급망을 갖고 있다. 본래는 1920년대의 전위영화를 비롯하여 실험영화, 지하영화, 확대영화 등을 총망라하는 별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개인이나 동호인에 의해 후원과 제작이 행해지는 모든 영화의 총칭으로 쓰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독립영화만을 상영하는 극장들이 따로 있어서 여기서 거둔 이익을 다시 영화제작을 위해 환원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으나 한국에는 아직 동일한 시스템이 없다. 한국의 독립영화는 시대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여, 1980년대 초반에는 외국의 실험영화나 단편영화를 모델로 삼았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체제저항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현재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다양해지고 조금씩 상업성을 띤 영화도 등장하고 있다

-한국 독립영화의 공통된 특징과 “숨바꼭질”의 의의와 한계

80년대부터 첫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한국의 독립영화.

60,70년대에 동호회나 개인적으로 제작한 단편영화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사회나 인간을 다룬 독립영화들은 8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으니 그 역사는 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영상 문화에 없어서는 안될 독립영화에는 공통된 몇가지 특징이 있다.

더 깊고 자세한 공부를 위하여 나름대로 이 특징들을 정리해보았다.

1. 상대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다룬 작품이 많다.

독립영화의 첫 번째 공통된 특징에는 독립영화의 “성격”이 있다.

한국에서의 독립영화란, 상상력을 자극하는 영상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는 하나의 “저항운동”같은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 예로 80년대 초 농촌의 현실을 다룬 영화 <아리랑 판놀이>나, <파랑새>.

80년대 후반에는 상계동 철거민들을 다룬 <상계동 올림픽>이나, 광주의 아픔을 그린 <오! 꿈의 나라>와 <황무지>등의 기억에 남는 작품들은 모두 사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을 알수있다.

상업영화도 관객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하나, 흥행성적과 이윤이 1차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제제가 있다. 때문에 독립영화만큼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지는 못한다.

또한, 독립영화처럼 어떤 “운동”적인 성향은 보이지 않는다.

요즈음은 조금씩 상업성을 띤 독립영화등이 많고, 스토리가 다양해진 이유로 여러 주제의 독립영화들이 많이 나오지만, 대체로 독립영화의 성격으로는

“사회의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는 하나의 운동성”을 띄고있다.

2. 영화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

독립영화의 두 번째 공통된 특징에는 배급문제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독립영화란, 이윤을 1차 목적으로 하는 상업영화와는 달리 창작자의 의도를 중요시 하는 영화로서, 소수의 관객과 독자적인 배급망(비디오 출시, 영화제, 인터넷, 케이블, 위성방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독립영화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독립영화만을 상영하는 상영관이 따로 있어, 여기서 얻은 수입금을

다시 영화를 제작하는데 쓰여지지만, 한국에는 이와같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독립영화계의 영원한 숙제로 남을 듯하다.

아직 미국같은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립영화들은 어떻게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지 알아보겠다.

독립영화의 종류에 따른 배급망

다큐멘터리: 국내에서 발표되는 다큐멘터리의 수는 1년에 30여편 정도이다.

이중에서 20여편 정도가 모두 비디오로 판매되어진다.

다큐멘터리의 경우, 그 자체의 무거움과 심각성 때문인지 극영화에 비해 공중파 방송과 인터넷 방송의 기회가 적어진다.

하지만 꼭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어도,

사회적 문제 등을 다룬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비디오로 제작되어 배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다.

극영화: 국내시장으로는 EBS <단편영화극장>, KBS <단편영화전>(방영료는 EBS 50만원 내외, KBS 150만원 내외이다.) 공중파 TV와 인터넷, <독립영화, 관객을 만나다> 등 중소 규모 상영회, 비행기 기내 상영 등을 통하여 배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디오, VCD, DVD 출시, 모바일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해외시장의 경우로는 단편영화 전문 케이블 및 공영 TV, 위성 방송 등 해외 각종 방송사와 외국의 독립배급사와 개척, 교환을 위하여 해외 배급사 교환을 프랑스 배급사와 교섭 중이며, 해외영화제 등이 있다고 한다.

그동안 많이 공부하고,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은 두 가지 뿐이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특징은 한국 독립영화의 확실한 특징인 것 같다.

독립영화가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내가 생각한 바로는 미국과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미국처럼 독립영화만을 상영하는 상영관을 따로 만들고, 거기서 얻은 수익금을 또 다른 영화를 만드는데 쓰이는 것이다.

어떤 문제와 제제가 있어서 그런 상영관을 만들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한 최선의 방법은 미국과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숨바꼭질의 의의와 한계”

숨바꼭질의 의의:아무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고민하고 사는,
또한,양면성 혹은 다면성을 가지고있는 요즘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싶었다.

한계:숨바꼭질의 한계라면 역시 심리상태를 표현하는데 있다.

이 영화는 쉽게 생각하면 한 여학생의 일상이라고 할수있지만

또 아주 어렵게 생각하면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이 겉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영화 곳곳에 고민을 하고있다는 흔적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한계라면 바로 이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의 심리상태를 좀 더 완벽하게 그리지 못했다는 점.

이것이 숨바꼭질의 한계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주인공에게는 아주 많은 특징이 있다는걸 발견할 수 있다.

먼저 #3에 보면 “열쇠 또 잃어버렸어??”라는 야단을 맞을만큼 덩빙대고 침착하지 못하다.

“네의 성격은 어때냐”라고 물어보면 “네.이러이러합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우유부단 한 면도 없지않아 있다.

#5는 요즘 아이들로부터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을 말해준다.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집단성향”이라고 말하고싶다.

대 여섯명씩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에서만 생활하고, 그 집단하고만 다니고,그 집단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그런 특징이다.

요즘 10대라면 대부분이 이 특징에 공감할 것이다.

요즘 10대는 그 집단에서 자신이 빠져있으면 매우 불안해 한다는 것이다.

말은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그 집단이 한 제의에 거절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일이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번 주 토요일날 친구들과끼리 (여기선 집단이라 표현한다.)

놀자는 제의에 주인공은 거절을한다.

왜 거절을 했을까??

바로 고민하고 싶어서 이다. 혼자 있으면서 고민을 하고싶은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어?내가 왜 거절을 했지?”라며 이 사실을 모른다.

항상 집단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도 잊어가는 것이다.

#13에서 #14에도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여기서 주인공은 길을 가다가 동전을 줍게되는데 옆에 동전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 동전을 손에 넣는 영악함(?)을 보인다.

하지만 얼마 못가 불우이웃 모금함에 그 동전을 넣는 또 다른 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코믹으로 보일수있지만 나름대로 요즘 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을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한면으로는 놀랄정도로 영악한 면을 보이고 있음에도,또 다른 면으로는 놀랄정도로 선한 마
음을 보여주는 요즘 아이들.

그 양면성을 보여주고싶었다.

#17부터에도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주인공은 자신의 몸이 자꾸 따끔거리지만 그 이유는 찾지못한다.

나중에 “몸이 쑤시고 지켜워서”몸이 따끔 거림을 알게된 주인공은 그 사소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 부분은 요즘 아이들을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말해준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모든지 항상 심각하게, 부풀려서 생각을 한다.

문제는 언제나 사소한것에서 나온다는 걸 이야기해주고싶었다.

영화를 만들 때 내가 하고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주위에서 늘 말했다.

위에 세가지는 언제나 내가 하고싶은 이야기였는데 잘 표현되지 않아서 아쉽다.

좀더 쉽고 재미있게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약간 코믹하게 스토리를 이어나갔는데 관객들이 내가 하고싶은 이야기를 찾지 못할게 될까 걱정이다.

글을 정리하자면,

“고민없이 사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요즘 아이들의 양면성 혹은 다면성과

주인공(요즘 아이들)의 특징과 심리상태,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이야기들이

코믹성에 가려져서, 혹은 완벽하게 그려내지 못한 이유로 잘 드러나지 못했다는 점“

이것이 단편영화 “숨바꼭질”의 의의와 한계이다.

-독립영화 감상

“깍두기”

최근에 본 “깍두기”라는 작품은 청소년영상대회에서 3등을 차지한 작품이다.

다른 입상작품들과는 달리 다큐멘터리 풍의 영화라고 할수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계속 유치원시절의 나와 나의친구들을 떠올렸다.

그때는 게임을 못하는 친구들과 “깍두기”라는 이름아래

항상 게임을 함께 진행하고 놀곤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나에게 다시한번

물어보게 했다.

“발의 대화”

발의 대화라는 작품은 5cut(www.5cut.com)이라는 단편영화 사이트에서 본 작품이다.

지하철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

이 영화는 사람들의 생김새,몸,손 등은 전혀 촬영하지않고 오로지 발만으로 영화의 흐름을 이어간다.

영화에 나오는 발만으로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하고싶은 말 들을 알수가있다.

새로운 기법,새로운 스토리의 영화였다.

“효빈(부제:홍내)”

이 작품은 “내 마음의 풍금”의 이명재 감독 작품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공원의 벤치.

이곳에서 한 여자가 자신의 옆에 앉은 아름다운 여자를 보며 그 여자의 행동들을 따라하다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한 단편영화제에서 이 작품과 스토리가 매우 흡사해 의심이 갔던 영화가 있을만큼 재미있는 영화이다.

이번 논문을 통해 많은 독립영화들을 보고.접했다.

이 점이 이번 논문을 준비하면서 얻었던 제일 큰 수확이 아닌가 싶다.

위에 세 작품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독립영화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다.

논문발표가 끝난 뒤에도 더 많은 독립영화들을 접할 생각이다.

-한국의 독립영화제

한국의 독립 영화제로는

한국독립단편영화제 -www.kicf.or.kr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www.pasff.org

서울국제노동영화제-www.kifv.org/family/silfv.html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www.kifv.org/family/chamfes.html

인권 영화제-www.sarangbang.or.kr/hrfilm/2002hrfilm/

인디포럼-www.kifv.org/family/indieforum.html

전주시민영화제-www.kifv.org/family/ccff.html

정동진영화제-www.kifv.org/family/jiff.html

등이 있다.

이번 논문을 통해 꼭 독립영화제에 참여해보려고 했는데 시나리오에,촬영에

더 중요한 영화제 시기를 놓쳐버려 참여해보지 못했다.

이 점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다.

논문발표가 끝난 뒤에 보충한다는 생각으로 꼭 한번 독립영화제에 참여해볼 생각이다.

2.“숨바꼭질”이 만들어지기까지

(시놉시스,제작일기,콘티,숨바꼭질의 의의와 한계 참고)

시나리오와 콘티를 작업하는 것이 논문에서 제일로 어려운 일이었다.

촬영은 콘티를 보면서 카메라로 찍으면 되는거지만

콘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머리로만 작업해야하는 순수창작작업이라 할수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는 콘티보다 더욱 힘들었다.

도무지 소재가 떠올르지않아서 방학하고 중간쯤되서야 소재정리를 하기시작했다.

고치고,또 고치고,다시 합쳐보기도 하고 제일 힘들었다.

이 시나리오의시놉시스를 정리하자면

신이라는 여학생은 어느날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자신의 성격,장래희망,좋아하는것등을

묻는 백문백답을 받는다.백문백답에 차례로 답을 달다가 자신의 성격과 장래희망등에서

답을 달수가없다.

백문백답에 답을 달기위해 신이는 고민한다.

그 고민하는 내용을 담은 시나리오다.

그런데 얼핏보면 시나리오에서 신이는 전혀 고민하고있지 않아보인다.

전혀 안그럴 것 같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삶을 고민하는 요즘 아이들을 그리고싶었다.

평소대로 생활하는 것 같지만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는 모습을
 신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하고싶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주제도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 나름대로 받아들이게 하고싶었다.
 내 바램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전에 반 친구들과 작업했던 패러디영상물같은 경우에는 재미를 보태기 위해서
 편집작업 중에 특수한 효과를 많이 주었는데
 이번에는 잔잔한 내용이라는 점을 염두에두고 특수한 효과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전에는 편집해주는 분 옆에서 지시만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편집했다.
 정말 세심한 작업이었다. 편집작업을 많이 하면 세심하고 조용한 성격이 될 것 같았다.
 처음 해보는 편집이라서 그런지 완성해놓은 것을 보니까 나도모르게 날아가버린 영상들도
 있었고, 소리가 부정확한 부분도 있었고 정말 엉망이었다.
 완벽한 것을 바라진 않는다.
 다만 내용전달만 잘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3. 영화상영

4. 소감

영화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작해본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이 논문을 쓰지 않았다면 영화에 관해 알은 지식밖에 쌓지 못했을 것이다.
 이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다.
 “편집실 아르큐브 소개시켜주신 안이어머님, 아버지님 편집 도와주신 편집실 분들,
 그리고 영화출연에 거절 안해주고 열심히 해준 축마고우친구들, 간디학교 선생님들,
 좋은 지적 해주신 재화아버님, 같이 고생한 중 3친구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세상과 영화라는 파라다이스를 보여주신 아빠,엄마.
 남이보기엔 자식교육에 신경 안쓰시는 것 같아도 제일 신경쓰시는거 알아요.
 아빠,엄마가 저에게 세상과 영화라는 파라다이스를 보여주신 것 처럼 저도 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멋진 파라다이스로 모실수있게 할게요.
 끝으로 부족한 작품발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문작성시 쓰였던 서적과 정보출처

-야후코리아 백과사전 (www.yahoo.co.kr)

-시나리오 속의 시나리오 (출판사:시공사 저자:벤브래디.랜스리)

-단편영화 사이트 5cut (www.5cut.com)

-인디포럼 2001 배급세미나

독립영화 배급의 확장을 위하여[연재3] 배급에 대한 그림 그리기(출처:http://www.kifv.org 읽은 곳:다음카페 “카메라를 든 사람!”cafe.daum.net/camman)

-한국 독립영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출처:http://www.kifv.org 읽은 곳:다음카페 “카메라를 든 사람!”cafe.daum.net/camman)

"숨바꼭질"

(시놉시스)

제작의도:어른들이 보기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은 요즘 아이들.
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사는 요즘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
또,자신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는 걸 알고 혼란스러워 하는 청소년의 시기를 나타내고 싶었다.
쉽게 말하자면,그냥 한 여학생의 일상을 이야기 하는 영화이다.

등장인물:신이(16.학생)
 엄마(42.주부)
 친구(16.학생)
 봉사자(?.?)

시놉시스

(제 1장)

16살에 평범한 중학생인 신이는 어느날 친구로부터 메일을 받는다.
메일의 내용은 "담임선생님이 서로를 알아가자면서 백문백답을 보냈으니 작성 다 하면 우리 바꿔서 보자"라는 내용이다.
신이는 백문백답을 작성하다가 자신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서 막혀버리고 만다.
그날 저녁,"백문백답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추궁하는 친구의 전화에 신이는 짜증을 내고 만다.
급기야 신이는 "이번주 토요일날 애들하고 만나서 놀자"라는 제의에 "그냥 집에 있을래"라는 엄청난 결정을 해버린다.
다음날,신이는 황금같은 토요일을 낮잠을 자거나,비디오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안하던 설거지랑 청소를 하면서 정말 심심하게 보낸다.
그러다가 오후에 집에 들어오신 어머니께 신이는 머뭇거리면서 묻는다.
"엄마,엄마는 엄마의 성격을 알아??"

(제 2장)

다음날 신이는 늦잠을 자버린다.
그리고 컵가에서 계속 울리는 시계 알람소리.신이는 서둘러 준비하고 어디론가로 달린다.
신이는 열심히 달라다가 갑자기 멈춘다.이유는 땅바닥에 놓인 백원짜리 동전.
지나가는 행인의 눈치까지 받아가며 힘들게 주운 백원을 들고 신이는 잠시나마 행복하지만 "불우이웃을 도움시다"라는 봉사자의 말에 백원을 모금함에 넣어버린다.
그리고 어디론가 또 계속 뛰어가는 신이.
알고보니 어제 급하게 집으로 가다가 떨어뜨린 핸드폰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제 3장)

신이는 신나게 인터넷을 하다가 학원 갈 시간에 늦어버린다.
컴퓨터를 꺼야하는데 에러가 났는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어서 학원은 가야겠고.컴퓨터는 꺼지지를 않고..
컴퓨터가 꺼지기를 기다리면서 신이는 계속 스위치를 내려버린 신이.
그제서야 몸이 따끔거리지가 않다.
그날 밤.엉망인 성적표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다가 안하다가 안하던 반항을 해버린 신이는
치량한 모습으로 쫓겨난다.
다음 날,신이는 친구에게 몸이 계속 따끔거린다고 고민을 털어놓는다.
친구는 죽을 병이라고 장난을 치다가 진지하게 알레르기 아니냐는 질문을 던진다.
신이는 "나 알레르기 같은거 없어"하면서도 내심 걱정이다.
갑자기 너 눈썹숙제 했냐는 친구의 말에 정신이 확 들어버린 신이.
친구의 잔소리를 들으면 눈썹숙제 대비 책을 받아든다.
계속 알레르기 고민을 하다가 급기야 악몽까지 꺾버린 신이는 안보던 백분토론 까지 보고..
복숭아를 먹으며 백분토론을 보던 신이는 몸이 계속 따끔 거림을 느끼며 "혹시 나 복숭아
알레르기?"라는 생각에 이른다.
다음 날 신이는 엄마에게 앞으로 복숭아를 안먹을거라는 이야기와 책을 읽거나 무엇을 기다
릴 때 몸이 따끔 거린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자 엄마가 말한다.
그거 지루하거나 지켜워서 그런거라고.니 아빠도 그런다고.
순간 얼어버린 신이는 몇초동안 멍해진다.

(제 4장)

신이는 다음 날,백문백답의 결과를 내린다.
"나에게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지금은 혼란스럽지만 언젠가는 나의 진짜 성격을 알게될
거다"
라는 나름대로의 결과를..

숨바꼭질

(시나리오)

#1.골목길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푸른나무들도 보이고 매미 울음소리도 들린다.
꼭꼭 숨어라..머리카락 보일라..꼭꼭 숨어라..머리카락 보일라..라는 노래가 나온다.

#2.방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신이.
화면에는 친구가 보낸 메일이 보여진다.
<야.이번에 우리 담임 있잖아.서로를 알아야된다면서 이거 반애들한테 다 돌리렌다.
유치하게 백문백답이 뭐냐??질문도 자기가 만든거래.내키지는 않지만 해봐.어쩌겠냐.다하고 우리
바꿔서 읽어보자.알았지??>
신이.호기심이 난듯.열심히 백문백답을 본다.그리고 하나하나 작성해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어느 한 문제에서 막히는 듯 타자에서 손을 놓는다.고민한다.
신이는 고민하다가 다시 타자에 손을 대고 작성해나간다.

#3.안방.

신이.신나게 티베를 보고있다.
엄마:(신의의 방에서 언성을 높인다.)신이야..열쇠 어딴니??
신이:어??(주머니를 뒤지며)주머니에 분명히 넣어놨는데..
엄마:너 열쇠 또 잃어버렸어??왜그렇게 덩벙대??(조금있다가)신이야!!너 일로 와봐!!
신이:왜??
엄마:빨리!!
신이:(자리에서 일어나며)아..정말..

#4.방

신이:왜 엄마.
엄마:열쇠!!여기 있잖아!!
신이:어??진짜??어디서 찾았어??
엄마:침대밑에!!어??너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거야??그렇게 덩벙거리서 어떻게 하려고 해??
신이:(열쇠를 받아 주머니에 넣고 나간다.)응..엄마 사랑해..

#5.안방

신이.자리에 앉아서 열쇠를 유심히 본다.전화가 울린다.
신이:여보세요??
친구1:어.난데.너 백문백답이 왜 그모양이니..
신이:잘모르겠는데 어떻게해..
친구:니 성격을 니가 왜몰라??내가 알려줘??포악하고,덩벙대고..
신이:(말을 끊는다.)아,알았어,알았어..그것때문에 전화했어??
친구1:아니.그건 아니구..너 이번주 토요일날 뭐해??
신이:나??(잠시 생각하다가)밀린 숙제가 있어서..그거 해야되.
친구1:뭐??야..이번에 숙제없잖아.
신이:정..말??응.그럼 나 나갈게.아니.나 안나갈게.

친구1:알았어.끊어!

신이:응..(전화기를 내려놓는다.)어??내가 왜그랬지??

#6.방

신이.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데도 잘잔다.햇살이 따가운지 뒤척거리다가 일어난다.

부시시한 머리를 한번 긁적댄다.

#7.안방

신이.안방에 들어가서 티비를 켜다.침대에 누워서 잠시 텅굴거리다가 채널을 이리저리 돌린다.

좀 보다가 다시 돌리고.음악 켜다가 끄고.결국 티비를 끄고

잠시 멍하게 있는 신이.그때 전화벨이 울린다.반갑게 뛰어가는 신이.

신이:여보세요??아..아니예요..

전화 끊어지는 소리.허탈한 표정의 신이.

어리론가 전화를 하려고 한다.

신이:아..오늘 뭉친뻬지.

갑자기 전화가 온다.

신이:여보세요??

엄마:엄마야.

신이:응..

엄마:배 안고파??

신이:응...

엄마:왜 오늘 안나갔어??안심심해??비디오 빌려봐..

신이:응..밀린숙제 하느라 바빠..(귀가 솔깃)근데 무슨 비디오??

응..나 공부하느라 바빠.끊어 엄마~~

신이.선풍기를 틀고 침대에 누워있다.눈이 감길랑.말랑 한다.

갑자기 별떡 일어나는 신이.

#8.골목길

비디오를 빌려가지고 집으로 향하는 신이.

#9.안방

신이.비디오를 넣고 비디오를 본다.

열심히 본다.

#10.안방

신이.청소기를 돌린다.

#11.부엌

설거지를 한다.

갑자기 벨이 울린다.

신이,뛰어나간다.

신이:누구세요??

엄마:엄마.

신이:응..(문을 연다.)

엄마:뭐했어??

신이:공부했지..

엄마:(집을 둘러보며)너 청소했어?

신이:(깜짝 놀래는.)아...아니..그냥 심심해서.(잠시 고민하다가.)엄마.엄마는 엄마의 성격을 알아??

엄마.:너 배고파??뭐 먹을래??

신이:응.응..나..밥...줘.

#12.방

신이,세상모르고 자고있음.

갑자기 울리는 시계.

신이:(뒤척인다.계속 뒤척이다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시계보고)

카메라는 시계를 클로즈업하고,

이때부터 계속 시계알람소리가 백뮤직.

신이:다녀오겠습니다~~(편다.)

#13.거리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골목길.신이.달리다가 멈춰서다.뒤를 돌아보는.(알람소리 잠시끊긴다.)

신이:(땅바닥을 보고.주위를 돌아본다.땅바닥에는 백원이 있다.)

반대쪽에서 사람이 온다.

신이,판청을 피운다.

행인1:(둘러보며)분명히 여기였는데..내 백원 어디있지..아..그거 없으면 만원짜리 깨야되는데..

신이,뜨끔하다.백원을 발로 살짝 가린다.

행인1:아..없네..(신을 힐끔 본다.)

신이,열심히 핸드폰을 받는 척 한다.

행인1:(열심히 둘러보다가)아..그냥 가자.

신이,행인이 사라지자 얼른 동전을 줌고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계속 달린다.(다시 알람소리시작.)

#14.시내

계속 뛰는 신이.

그런데 자신의 앞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으고있는 봉사자를 발견.

봉사자는 서서히 신이의 앞으로 온다.(알람소리가 끊긴다.)

계속 신이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봉사자.

신이는 멈칫하다가 주머니에 있는 백원을 서서히 꺼낸다.

성금상자에 돈을 넣자 웃어보이는 봉사자.봉사자가 가자 신이는 울먹인다.

#15.거리

마구잡이로 달려서 땅바닥에 있는 핸드폰을 들고 미소짓는다.

-회상

#16.거리

저녁에 어디론가 뛰어간다.

신이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핸드폰 클로즈업.

-회상 끝

#17.방

신이.침대에 누우면서 시계를 끄면 백뮤직으로 깔려있는 알람소리가 꺼진다.

다음날.

신이.컴퓨터를 친다.열심히 하다가 시계보고

당황.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나가려는데 컴퓨터를 꺼야한다.

빨리 꺼지지 않는 컴퓨터.

기다리는 신이.몸이 따끔거린다.

신이:(몸을 뒤흔다.)뭐야..몸이 왜이렇게 따끔거려.

(마우스를 움직이며)아씨!!왜이렇게 안꺼져??짜증나..

신이.잠시 망설이다가 컴퓨터 전원 스위치를 꺼버린다.

신이:(문을 열고 나가며)아씨..몸이 왜이렇게 따끔거려..

신이.나간다.

#18.방

신이.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몸이 따갑다.몸을 막 긁고있는데.

엄마:(소리치며)야!!너 일로 나와봐!!

신이.순간적으로 얼굴 찡그리고.방을 나간다.

#19.방

엄마:(성적표를 보여주며)너 이번 성적이 왜 이따위야.영??
신이를 한번 노려보고 도망가는 신이를 따라가면서 성적표로 때린다.

신이:(도망가면서)앗!!아앗!!엄마..죄송해요..앗!!아야~
(갑자기 비장하게)엄마도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기가막혀 눈꺼진다.)

#20.문 밖

신이.몸을 감싸안으며 추위에 떠난다.

신이:(눈가를 훔치며)여름인데 왜이렇게 추워..썩..

#21.안방

신이:(티비를 보며 침대에 누워있다.)친구야..내가 요즘 좀 이상하다.
(벨떡 일어나 앉은 다음 친구를 보며)몸이 자꾸 따끔거려.
울 소재의 옷을 입으면 느껴지는 따끔거림..있잖어.응??
친구:(신이를 보며)그런 따끔 거림이 평소에도 느껴진단 말야??
신이:(고개 끄덕.)
친구:(다시 잡지를 보며)죽을 병이네.너 요즘 눈 밑이 검은거 보니 죽을 병이다.
안그럼 왜 몸이 따끔 거리겠냐.(잠시 생각) 아!!너 알레르기 아냐??
신이:아냐..난 알레르기 같은거 없어.
친구:그걸 니가 어떻게 알아..그런건 너도 모르는거야.
거기다가 넌 둔하잖어.아참.그건 그렇고 너.눈술속제 했어??
신이:(생각에서 깨어남.)어.아니...
친구:책은 읽었어??
신이:아니..읽어야되.아님 그냥 포기할려구.
친구:너 저번에도 눈술속제 안하러다가 내가 말려서
간신히 20점이었잖어!!안되!!(가방에서 책을 꺼냄)
자!!이럴줄 알고 내가 가져왔어!!중학교 필수 소설이야.
이번 눈술시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신이:(놀라서 고개 끄덕끄덕.)

#22.부엌

엄마:(요리하고 있다.)
신이:(엄마옆에 다가온다.)엄마.나 알레르기 같은거 있어??
엄마:(생선 대가리를 친다)
신이:(흠칫한다.)
엄마:(서서히 뒤돌아보며)그런거 없는데.

신이:(흠칫하여 천천히 고개 끄덕임)
#23.방

신이:(침대에 누워서 책을 보고 있다.)
시간이 지나감.
신이.눈이 서서히 감김.
신이.다시 눈 번쩍 뜨고 바로 앉아서 책을 읽는다.
몸이 따끔 거림.몸이 뒤틀리는 신이.몸을 베베 끈다.
다시 시계 나타나고..
어느새 자고있는 신이.
시간이 흐르고..잠에서 깬 신이.눈을 비비며 안방으로 향한다.

#24.안방
신이.문을 열어보면 드라마를 보고있는 엄마가 보인다.
옆에 앉는 신이.

신이:(같이 티비를 본다.)
침묵.
신이:(조용히.)엄마..
엄마:....
신이:엄마..
엄마:.....왜...
신이:나 큰일났어..몸이 자꾸 따끔 거려.나 알레르기가 있나봐.
엄마:(갑자기 눈 커지며.)네 아빠가 그 알레르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신이:(겁에 질린.)
엄마:(신이 손을 잡아끌며)안되겠다.주사 맞자!!
신이:(소리지르는.)

#25.방

신이:(소리지르며 잠에서 깬다.)헉..헉헉...
엄마:(문을 열고 들어온다.)
신이:(소리지르는.)
엄마:(놀란다.)에구.깜짝이야.뭐야.엄마 잠깐 나갔다 온다.(문 닫는다.)
신이:.(계속 헉헉댄다.)
엄마:(다시 문 열고)아.오늘 티비 11번 밖에 안나온덴다.방송사고레나 뭐레나.
신이:(계속 헉헉댄다.)

#26.안방

신이.티비를 켜다. 백분토론 나온다.
신이:(열받아서 머리를 헝크리는.)

신이.백분토론 보면서 지루해 한다.
이윽고 다시 몸이 따끔 거리는 신이.

신이:(골똥히 생각하면서.)
n)다시 몸이 따끔 거린다.몸에 이상한게 기어 다니는 건가.
아님.정말 알레르기 인걸까.

신이:(열심히 보다가 짜증을 낸다.)아~~지겨워~~백분토론 짜증나~~(다른 채널을 돌리지만 다 거기서 거기.)
아~~몸은 왜 이렇게 따끔 거려!!!!

시간이 흐른다.

신이:(복숭아를 먹으면서 백분토론을 본다.지루하다.몸이 따끔하다.갑자기 눈꺼지는 신이.)

#27.방

신이.티비를 열심히 보고있다.

신이:엄마!!나 복숭아 알레르기 있으니까 복숭아 사오지마!!
엄마:지금 니가 먹고있는것도 복숭아다.
신이:(정신이 번쩍드는.복숭아를 본다.)
n)왜 지금은..몸이 따끔 거리지가 않지...
엄마:왜.복숭아 먹으면 이상해??
신이:아니.공부할때도 몸이 따끔거리고..백분토론 볼때도 몸이 따끔거리고..
뭐 기다릴때도 몸이 따끔거리고..책 읽을때도 몸이 따끔 거리더라.
엄마:그거 좀 썩셔서 그런거야.지루하고 지겨우면 니 아빠도 몸이 따끔 거린데더라.
웃겨서 참..

순간..충격 받은 신이.세상이 온통 조용하다.신이는 멍하니 있다.
충격받은 신이가 카메라에 보인다.정지화면.화면에는 느낌표가 뜬다.

#28.방

신이.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치고 있다.여름이라 그런지 계속 매미소리가 울린다.
n)내 성격은 아직 잘 모릅니다.어절때는 활발하고,어절때는 얌전하고,
어절때는 포악하고,어절때는 덩벙대고,둔하고..하지만 이렇게 저만 그렇게 아닌거 같아요.
내 친구들 대부분이 다 이렇거든요.몇살 더 먹다보면 내 성격이 뭔지 알게되겠죠.

#29.골목길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동네 골목길.푸른 나무들도 보이고,매미 울음소리도 들린다.
꼭꼭 숨어라..머리카락 보일라..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페이드 아웃.

단편영화 "숨바꼭질"제작일기

7월 첫째주~7월 둘째주

"논문주제를 정하다"

드디어 논문 주제를 정했다.

논문은 주제가 반이라던데 의외로 쉽게 정할수있었다.

이 주제로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을 결심했다.

중간에 한번 바꿨다가 단순한 나로서는 마음의 혼란이 일 것이다.

그냥 한가지로 밀고나가자.

논문의 주제는 "단편영화 제작"이다.

친구들과 동생들이 "그럴줄 알았어"하는 표정이다.

좀 더 의외의 주제를 정할 걸 그랬나..??

아무튼 주제를 정했으니까 계획을 짜야겠지.

7월 14일~8월3일

"시나리오 소재를 정하다"

이 날들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날들이다.

바로 시나리오를 계획하는 단계였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줄곧 컴퓨터를 하며 놀았다.

그러면 언제 시나리오를 계획하느냐??

밤에 잠들기 바로 전이다.

이 시간이 제일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시간이다.

몸은 편안히 누워서 이완되어있는 상태이며 뇌는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축제를 열고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나는 시나리오를 쓰고있었다.

물론 머리로만.

마침 방향을 맞이하 우리집에 놀러온 난슬이와 그냥 옆에 계신 아빠한테 살짝 시나리오의 맛배기만 들려줬다.

내가 쓴 시나리오를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려니 거참 썩스럽다.

그 중간 나날들

"안이네 방문,편집실 방문하다."

그 중간 나날들에는 안이네 어머니를 뵈러 안이네로 지은이와 이삭이와 함께 방문을 했다.

어머님께서 이것저것 조언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셨는데 어머님께 시나리오를 보여드릴 때 진짜 쑥스러웠다.어디 숨고싶었다.

다행히 별말씀은 없으셨다.히히.

그리고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녹화해놓으신 단편영화들을 보여주셨다.

하나하나가 참 재미있고 도움이 되었다.

다음날에는 어머님께서 소개해주신 편집실 "아트큐브"를 방문했다.

광화문에 자리잡은 곳인데 건물앞에 사람이 망치를 들고 있는 동상이 크게 서있었다.그곳은 편집실과 영화관이 함께 있는 곳이었다.

편집실에 가서 나를 도와주실 분들을 뵈고 인사드리고

나중에 오신 다큐멘터리 감독님께 시나리오를 보여드렸다.

어머님과는 달리 고칠곳을 콕콕 짚러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해봐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기쁘다.

어서 집에 가서 시나리오 수정해야지..

8월10일~12일

"콘티를 작업하다"

드디어 콘티를 작업한다.

콘티 용지를 구한 다음에 머릿속으로 계획했던 그림들을

이 용지 위에 그려나간다.

진짜 힘들다.

그림실력이 뛰어나면 모를까 이건 나밖에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나도 못알아볼거다.

어쨌든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카메라 구도도 적어놓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다.

이대로만 촬영에 들어가면 멋지게 나올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못했다.

8월13일~18일

"쉬고싶어.."

진짜 쉬고싶다.이렇게 가다간 뇌가 움직이지 않을거야..
콘티와 시나리오가 완성됐으니 이제 촬영에 들어가는것만 남았다.
배우를 구해야하는데 믿을 사람은 친구들 밖에 없다.
주위에 사는 친구들에게 조심스레 말하니 흔쾌히 허락해주었다.
세상이 밝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럼 내일부터 촬영에 들어갈까나..
친구들한테 시나리오를 보여주니 막 안하겠다고 난리다.
어쩔수없다.너희는 내 친구니깐..히히.

8월20일~28일

"촬영시작1일"

20일 촬영한 씬:#2,#6,#7,#10

드디어 촬영에 들어갔다.
처음 촬영 들어가는 날에는 어려운 씬은 넣으면 안된다는 다큐멘터리 감독님의 말씀이 떠올라 오늘은 쉬운 씬만 넣었다.
배우 머리가 아까 컷이랑 같은지,웃은 어제랑 같은지
나 혼자 다 체크하고 적고 하려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거린다.
그리고 이 배우라는 것들은 대사 도 잘 안외우고 국어책 읽는다.
그러면서 "이거 완전히 정사랑 이야기 아냐"하면서 놀린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잡으니까 맘대로 안된다.

21일 촬영한 씬:#12,#13,#14,#15

오늘은 야외촬영을 하는 날이다.
배우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연기를 잘 못하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아침 8시에 만나기로 했다.뭐가 그렇게 쑥쓰러운지..
그런데 중요한건 이 사람들이 8시에 우리집에 안온다는 점이다.
누구는 7시에 일어나서 준비 다 해놓고있는데..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9시에 만나자는 말에 소리한번 쳐주고 9시에 만나기로 했다.
진짜진짜 피곤하다..

.....

드디어 9시다.배우들에게 오늘의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연습하라고 한뒤에 나는 콘티를 본다.
창문밖으로 본 길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다.다행이다.
드디어 밖으로 나오고 촬영에 들어간다.

배우들이 자꾸 웃는 바람에 촬영이 쉽지않다.
야외촬영이라 그런지 실내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조명이 밝고 좋다.
몇 번의 NG 끝에 드디어 모든 촬영을 끝낸다.
오늘 배우 입장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보는 날이었다.

22 촬영한 씬:#3,#4,#5,#19,#22,#23,#24,#25,#26,#27

오늘은 대망의 "주인공과 우리 어머니와의 연기"하는 날이다.
그동안 주인공은 시나리오는 보면서 "너네 어머니하고 어떻게 같이 연기를 하나"
며 한탄신세를 하던 참이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과 우리 어머니는 모녀시간으로 나온다.
그러니 더 어색할 수밖에.
얼마나 리얼한 연기를 해야하는지 시나리오 본문을 발췌해보겠다.

『19.방

엄마:(성적표를 보여주며)너 이번 성적이 왜 이따위야.영??
신이를 한번 노려보고 도망가는 신이를 따라가면서 성적표로 때린다.

신이:(도망가면서)앗!!아앗!!엄마..죄송해요..앗!!아아~
(갑자기 비장하게)엄마도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기가막혀 눈꺼진다.)』

정말 리얼한 연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이런 연기를 끌어내기 위해 두 배우는 얼마나 웃고 또 웃었는지 모른다.
한번은 감독인 내가 웃어서 NG가 난적도 있다.
정말 당황스러웠다.
이날은 어머니와 주인공의 스케줄이 많이 겹치는 관계로 두 배우가 같이 나오는 장면을
이날로 한번에 몰아서 촬영했다.
촬영을 다 하고 나서 한건 했다는 생각에 부듯했다.
이날 이후 우리 어머니와 주인공의 사이가 아주 심각하게 친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머니가 친구분이랑 통화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주인공이었다는 후문.)

*23*촬영한 씬:#16.#17.#18.#20

이날은 종파티를 하는 날이었다.
아직 촬영할 씬 은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씬들은 많이 촬영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배우들과 함께 종파티를 했다.(외식을 했다.거기다가 칼질을 했다!!히히.)
아버지께서 약간 이상하고 자폐증(?)기가 있는 우리 딸을 거두어서 같이 놀아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덧붙이셨다.
그리고 나한테 친구 잘 사귀어 뒤서 좋겠다고 하셨다.
그래.맞는 말씀이셔..히히.
외식을 한다음에 처음으로 저녁촬영을 했다. 조명기기가 없어서 가로등을 배경으로 찍었다.

(후에 부모님께서 완성된 영화를 보시며 이 저녁촬영 씬을 보고 도대체 어떤 장면이냐고 물으셨다.참 곤란했다.)

여기서 잠깐!!비하인드 스토리!!

영화내용중, 주인공이 공부를 하는 장면중에 아버지께서 잠깐 나오시는걸로 계획되었다가 취소. 이유는??

아버지의 이유모를 속쓰러움 때문.

*24*촬영한 씬:#11,#21,#28

배우의 연기가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

이제 "액션"하면 막 연기가 나온다.

특히 이번에 처음 나온 조연배우의 연기는 실로 놀라웠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기쁘다.

*25*촬영한 씬:#8.#9,#백분 토론

비디오 빌려오고 빌려보는 씬이다.

어떤 영화를 내 영화속에 나오게 할까 고민한 결과 "오버 더 레인보우"를 빌렸다.

그 영화속에서 이정재가 비오는 날 우산들고 춤추는 장면을 넣었다.

마지막!!

백분토론을 촬영해야하는데 이놈의 백분토론이 언제 하는지 모른다.

그냥 12시까지 텔레비전 보면서 롤루랄라 거리다가 MBC를 틀으니 딱!!백분토론이 나온다.

얼씨구나 하고 디지털캠코더 들고 열심히 백분토론을 찍었다.

디지털캠코더로 텔레비전을 찍으니 화질이 너무 안좋지만 괜찮다.

찍는 내내 지겨워서 죽는줄알았다.

아무튼 모든 촬영 끝이다.끝!!

9월16~18

"편집하다"

편집이 모조리 날라갔다는 편집실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거기다가 나는 지금 비디오테이프가 학교에 있단 말이다!!

그래서 학교에 전화해서 임주쌤께 택배로 비디오테이프 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택배회사가 추석이 겹쳐지는 바람에 배달이 늦어진덴다.

할수없이 학교까지 내려가기로 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아버지,어머니 총출동해서 부천에서 제천까지 내려갔다.

(무슨 여행가는 것 같았다.기분이 참 묘했다.)

비디오테이프는 상자에 곱게싸여져 "이승복"등상 아래에 고이 자리잡고있었다.

근데 안에 들어있는 비디오테이프가 다 내가 찾는 테이프가 아니었다!!

기속사로 한걸음에 달려가서 내 책상을 막 뒤졌더니 내가 찾는 테이프가 나왔다.

휴..큰일날뻔했다.어쨌든 다행이다.

17

처음부터 다시했다.내가 몇일동안 고생한 편집이 다 날아갔다!!
진짜 눈물났다.
하지만 부천에서 제천까지 갔다온 내가 아닌가.
모든 걸 단념하고 편집에 전념하기로 했다.
한번 앉으면 일어날수가 없는 매력(?)이 있다.편집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마우스로 1센티미터도 놓쳐서는 안되는 세심한 작업이다!!
이 작업 많이 했다가는 정말 세심한 성격이 될듯하다.
오늘은 간단히 NG컷과 OK을 컷을 골라내는 작업만 했다.
다 끝내고 나서 집에 가는 길은 언제나 행복하다.히히.

18

오늘 진짜 평평 울었다.
5시간 정도를 심혈을 기울여서 해논 편집이...편집이...
컴퓨터가 갑자기 에러가 난 바람에 다 날라갔다.
내가 막 눈이 시뵈개지도록 우니까 편집실 분들이 다 당황스러워하셨다.
실장님이 휴지가겨다주면서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셨다.
자신은 5년동안 편집한거 한큐에 날려버린적도 있다고 하셨다.
누구에게나 있는 일인데 내가 너무 생색낸 것 같아서 모두에게 죄송스러웠다.
화장실에서 깨끗이 세수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잘해야지..

19

오늘은 추석 전날이다.
오늘 편집을 다 끝마쳐야지 안그러면 다시한번 집에 내려와야한다.
오늘 내 모든 정신력과 집중력을 동원해 완성해내리라!!
어제 "SAVE"(저장)은 중요하다는 교훈을 받들어 5분에 한번씩 "SAVE"를 해줬다.
이것저것 막히는 것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고 했지만..
어쨌든 음악도 다운받아서 넣어주고 효과도 조금 넣어주고 비디오로 만들어서 완성했다.
아..이 기쁨..
진짜진짜 기뻐다.이건 말로 표현할수가없다.
내 기분을 알고싶으면 영화를 찍어보시길 바란다.

아무튼 모든 영화제작 끝~!!

편집실 아트큐브 분들..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인도네시아 음식과 우리나라

음식의 비교]

- 권유리



1987년 탄생
백합어린이집-월성초등학교-대구매천초등학교-간디중학교
자칭 간디계의 지존 눈웃음
좋아하는 음식 회, 바나나
싫어하는 음식 콩
취미 목공, 여성스럽게 십자수하기, 축구
특기 목공, Dance time 쏘하기, 싸이코들 돌봐주기
<미남의 正石> 소속
좌우명 “내가 세상의 기준이다”

“필자가 여행을 다녀온 나라들 중 가장 인상에 깊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고 싶었다. 특히 그 나라에서 음식이 가장 인상 깊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문 중에서...

〈제 목 목 차〉

I. 서론-논문의 동기 및 목표

II. 인도네시아에 대한 계략적인 이해

1. 땅모양
2. 인도네시아 사람들

III. 본론

1. 인도네시아의 음식문화

- (1) 인도네시아 음식의 일반적인 특징
- (2) 음식문화의 여러 가지 양상
 - ① 음식점의 종류와 형태
 - ② 특징적인 음식들
 - ③ 열대 과일

2. 우리 음식문화와의 비교

- (1) 일반적인 특징
- (2) 특징적인 음식들
- (3) 열대과일

IV. 결론-인도네시아 음식과 한국의 음식

V. 논문을 끝내며...

I. 서론-논문의 동기 및 목표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나라 중 인도네시아인가 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나의 제 2의 모국이다. 친할아버지는 아니지만 필자의 아버지랑 사업을 하시다가 만나신 분이 계셨다. 중국인이셨는데 4살 때 인도네시아로 건너가셨다고 한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를 많이 챙겨주시고 아껴주셨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많이 생각했다고 한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호적에 올리셨으니 필자는 태어나기도 전에 양할아버지가 생긴 것이다. 할아버지가 계시는 나라이시니까 나의 제 2의 모국이고 제 2의 모국이기에 정이 더 가는 것이고 정이 가니까 관심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여행을 다녀온 나라들 중 가장 인상에 깊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고 싶었다. 특히 그 나라에서 음식이 가장 인상 깊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한다. 그 전에 먼저 인도네시아에 관한 간단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음식에 대한 특징과 여러 가지 양상과 음식점 종류, 그리고 몇 가지 특징적인 음식들과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비교를 알아볼 것이다. 그 뒤에 열대과일들의 종류와 맛 그리고 생김새에 대하여 알아 볼 것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도네시아에 관한 간단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II. 인도네시아에 대한 계략적인 이해

인도네시아는 셀 수 없이 크고 작은 많은 섬들로 구성된 세계최대의 도서국가로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 자카르타가 이 나라의 서울이며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4배 이상이나 되고 크기는 남한의 20배에 가까울 만큼 아주 큰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화폐는 “원”이라고 부르고 미국의 화폐는 “달러”라고 부르고 일본의 화폐는 “엔”이라고 부르듯이 인도네시아의 화폐는 “루피아”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 인도네시아에선 7,000루피아 정도이다.

우리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논다면 그 나라 아이들은 아마 “벚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놀 것이다. 즉, 국화가 벚꽃이라는 얘기이다.

인도네시아의 정식명칭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전에는 네덜란드 령으로 동(東)인도라고 하였으나 1945년 8월 17일 독립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이틀 늦게 독립을 했다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은 19세기 중엽에 영국의 언어학자인 J.R로건이 붙인 것으로 “인도의 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현지인들은 “누산타라”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중세 때 자바섬의 주민들이 사용한 이름으로 역시 “많은 섬들의 나라”라는 뜻이다.

1. 땅모양

그럼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 특이한 땅모양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인도네시아는 정말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5개의 큼직큼직한 섬으로 나뉘어지며 자바섬, 수마트라섬, 보르네오섬, 할마헤라섬 그리고 셀레베스섬이 있다.

서쪽의 인도양과 동쪽의 태평양 사이에 위치하면서 북쪽의 아시아 대륙과 남쪽의 오세아니아 대륙을 연결하는 중간지대에 있다. 동서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문화적·민족적인 교류와 이동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이 지역 섬들은 일반적으로 말레이군도로 불리는데 인도네시아는 그 중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까 필자가 잠시 얘기했던 5개의 섬의 위치를 알게 될 것이다. 서쪽끝에는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이 있다. 자바섬과 수마트라 섬의 북동쪽의 할마헤라섬까지 약 5,100km에 걸치는 호상의 순다열도와 그 내부에는 보르네오섬, 셀레베스섬이 위치하고 있다. 이 해역은 테티스해 구조대와 환태평양 구조대가 이어지는 곳으로 지반의 변동이 격심했던 지역이다. 현재 이들 제도에 의해 둘러싸인 바다는 수심50m 이하의 얇은 바다로, 이른바 순다해봉을 형성하고 있다. 이 해봉과 오스트레일리아 북서부의 사플 해봉은 마카사르·롬보크 양 해협을 연결하는 윌리스선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순다열도 및 몰루카제도에는 현재 화산활동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화산의 수가 전국을 통틀어 400개에 달하며, 이 중 활동 중인 화산은 78개이다. 화산은 특히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르네오섬과 셀레베스섬에는 극히 적다고 한다. 이 화산들은 자주 발생하는 폭발과 지진으로 인간생활에 직접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준다.

인도네시아는 비가 많은 지대이므로 산지에서 범람한 물질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 이 경우 화산암질 토양이라서 비옥도가 높아 농사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화산암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 보르네오섬 대부분과 셀레베스섬 중부에 인구가 희박한 것은 아마도 화산암질 토양의 분포가 자바섬과 수마트라섬에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바섬과 수마트라섬에 인구가 밀집하는 현상의 자연적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농업이 거름을 거의 주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2. 인도네시아 사람들

다음은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할 차례이다. 인도네시아의 주요한 특색 중 하나는 민족 구성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인구가 5번째로 많은 나라이고 놀랍게도 인구의 반 이상이 만 20세 이하라고 한다. 주민의 대부분은 직모에 황갈색의 피부를 가진 말레이 인종이지만 이들도 섬에 따라 여러 종족으로 나뉘며, 동부에는 뺏뺏한 머리털에 암갈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말레이인이 훨씬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도 수마트라의 쿠부족과 셀레베스섬의 트아라족처럼 선주민으로 추정되는 짙은 검정색 피부를 가진 네그리토족과의 혼혈이 분포한다고 한다. 셀레베스섬과 보르네오섬의 사람들은 비교적 혼혈정도가 낮은데도 밝은색 피부의 종족이라고 한다. 그 밖에 역사시대에 이주해온 중국인·인도인·아라비아인·유럽인 및 그들의 혼혈인종이 도처에 분포하여 인도네시아가 복잡한 민족 이동의 무대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300여 종족이 혼합되어 있다고 한다. 공용어는 인도네시아어(인니어)가 따로 있고 글자는 알파벳을 쓴다. 주민의 약 90%는 이슬람교도이며 4%는 기독교, 4%는 힌두교, 불교와 기타교도는 4%에 불과하다. 이 나라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자면 특징 중 하나가 '여유'이다. 절대 급할 것이 없고 잘되건 못되건 다 '신의 뜻'이고 서두르는 일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여기 오면 답답해하고 화도 내지만 몇 년 지나면 동화되어 버려 성격이 느긋해지고 태평스러워진다고 한다. 대화중에 '몽킨'이나 '끼라끼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은 우리말로 '대략'이라는 뜻이다. 항상 확실하지가 않고 대충 어림잡아서 말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뜻이다. 말했듯이 매사가 불분명하고 확실한 게 없다. 보통 온순한 성격이고 자신의 결정보다는 상대방의 의중을 더 따르는 착한 사람들이다.

III. 본론

1. 인도네시아의 음식문화

(1) 인도네시아 음식의 일반적인 특징

인도네시아 음식의 특징은 눈물나게 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김치 맵다는데 인도네시아 사람은 그 정도는 우습게 알 것이다. 콩알만하고 (1.5cm 정도) 푸른 '자베라 웨'라는 고추를 옛날에 한 번 먹어 보았다. 너무 매워서 이제는 냄새 맡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매운 고추량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인도네시아의 주식도 우리나라와 같은 밥이지만 우리나라의 찰기 있는 쌀이 아니라 푹푹 날아가는 쌀이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손으로 밥을 먹는다.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갔을 때 밥이 적응이 잘 안되면 찹쌀을 조금 섞고 압력솥에 해 먹으면 먹을 만하다. 배추, 무, 고추, 마늘 등 기본적인 야채도 싼값에 팔고 양념류는 한국슈퍼에서 살 수 있다. 호박이나 부추, 상치, 시금치, 옥수수, 감자등 거의 모두를 구할 수 있고 농약 걱정 없는 무공해 식품들이다. 빵종류도 아주 풍부하다. 육류도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등 부위별로 다 팔고 큰 몰이나 생선시장에 가면 해산물도 많이 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왕새우도 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햄과 소시지도 물론 있다! 인도네시아의 수돗물은 석회수라서 그냥 먹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만약 그냥 먹는다면 큰일날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끓여 먹는 것도 좀 꺼림칙하지만 별 탈은 없을 것이며, 용기에 넣어서 파는 미네랄 음료수를 사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2) 음식문화의 여러 가지 양상

① 음식점의 종류와 형태

음식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음식점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레스토랑, 루마마간, 와룽 이라고 쓰여진 곳들은 다 밥을 먹을 수 있는 음식점들이다. 그 세 가지 음식점중에서 제일 큰 음식점이 바로 우리나라에도 흔한 레스토랑이다.

두 번째로 루마마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최근에 들어서는 레스토랑과 루마마간의 구별이 없어져 가는 것 같은데 굳이 구별을 하자면 레스토랑은 호텔의 레스토랑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거리의 규모가 큰 식당이고 루마마간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식당이다. 마지막 세 번째 와룽이라는 곳은 뭐 거리에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간이음식점까지 작은 음식점을 말한다.

인도네시아에는 여러 인종들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요리도 다양하다. 전반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교도가 많기 때문에 소·물소·양·닭·오리 등의 고기와 어패류가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해물 레스토랑이 엄청나게 많다. 야자기름·야자열매를 사용한 독특한 향을 가지는 요리가 특징이며, 주된 향신료는 마늘·고추 등이다. 마늘과 고추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념으로도 자주 쓰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특이한 향이 나는지 참 신기할 나름이다. 필자는 향이 섞인 음식을 먹었을 때 그리 싫지만은 않았는데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했다. 아마도 우리나라 음식에는 그렇게 강한 향이 들어가지 않으니 적응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럼 이제 인도네시아의 맛있는 음식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② 특징적인 음식들

미 바소 라는 음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라면과 같은 음식인데 라면과는 조금 다르다. 일단 라면에는 들어가지 않는 볼모양의 어묵이 들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라면은 맵고 짠데 미 바소는 담백한 맛을 뽐내는 인도네시아 식 라면이다. 양도 적은 편이라 간식에 알맞다. 나도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 음식을 무척이나 좋아했었다. 만약 인도네시아를 여행하게 된다면 이 음식을 꼭 먹어보길 바란다.

이간고랭이라는 음식은 보통 생선튀김에 특이한 소스를 얹은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말 그대로 여러 종류의 생선을 튀겨서 소스를 선택해서 선택한 소스를 얹어먹는 음식이다. 이간고랭 바나나라고 주문을 한다면 그 생선튀김 위에 바나나 소스가 얹혀져 나올 것이다. 만약 김치소스를 원한다면 이간고랭 김치라고 주문을 하면 되겠지?

부부르 아얌이라는 아주 특이한 이름을 가진 음식은 인도네시아어로 부부르는 죽이란 뜻이고 아얌은 닭이란 뜻으로 닭죽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알고있는 닭죽이랑은 약간 다른 닭죽이다. 그냥 하얀 죽 위에 닭고기를 얹어서 먹는 아주 구수하고도 수수한 음식이다. 케

짜아신이라는 인도네시아 간장과 함께 먹고 서비스 좋은 곳을 가면 마늘을 볶아서 말린 것, 콩볶은 것, 얇게 썰은 파 그리고 생 달걀 노른자 등이 얹혀져 나오기도 한다.

처음 인도네시아에 와서 음식이 맞지 않아 불편을 느낄 때 누구나가 낯설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 이름은 나시고랭이고 향이 진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볶음밥과 거의 흡사하다. 주재료로는 밥, 닭고기, 닭똥집, 계란, 인도네시아의 간장 계짜아신 등이다. 가게에 따라 쇠고기 염소고기꼬치와 계란 후라이, 닭튀김, 닭꼬치, 생오이 썰은 것 그리고 빵 튀기 과자등이 곁들여 나오기도 한다.

꼬치를 먹어본 사람이 있을텐데 사떼라는 음식은 우리나라 꼬치요리와 비슷한 요리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꼬치를 만들 때에는 보통 닭고기를 쓰는데 그곳은 참 특이하게도 닭, 염소, 쇠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개고기 등등 고기란 고리는 모조리 다 꼬치에 끼워서 숯불로 굽는다. 그렇게 구워서 땅콩소스를 곁들여 내는 요리인데 특이하지만 아주 맛있다. 이것 역시 굳것질용으로 제격이다!

지금까지 음식을 우리나라 음식과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보았다. 다음은 열대과일을 설명해보겠다.

③ 열대 과일

두리안은 코코넛보다 약간 큰 크기의 과일로 과일껍질에 도깨비 방망이 같이 뾰족한 가시가 돋혀있는 초록색을 띤 노란색의 과일이다. 열대과일 중 제일 비싼 과일로 “과일의 왕”이라고도 불린다. 냄새가 독특하고 강렬하여 “냄새는 지옥같으나 맛은 천국이다” 라는 말이 있을만큼 냄새가 심하다. 특히 이 과일은 냄새로 인하여 호텔이나 비행기 내부로 반입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는가? 그래서 처음 이 과일을 맛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먹지 못하나 일단 이 냄새가 익숙해지면 이 과일 맛에 매료되어 버린다. 매료되기까지의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주 옛날에 그 맛에 매료되어 버리셨다. 필자는 두리안 냄새를 한번 맡고 3일동안 잠을 못잤으며 아무것도 모르고 손으로 만졌다가 5일 동안 밥상 앞에서 구역질을 했다. 잠이 들려고 하면 왠지 내 손에서 올라오는 듯한 냄새가 계속 생각이 나서 밤새도록 잠을 설쳤다. 그 지독한 향기가 아직까지도 기억난다. 0도 저히 말로써는 표현 할 수 없는!! “연애는 될 수 있으면 밤에 두리안 나무밑에서 하지 말라”는 우스갯 얘기가 있다. 그 말은 두리안이 밤에만 열매가 떨어진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보통 두리안은 한나무에 200개~300여개 열린다. 또 이 과일을 먹고 나면 손에 냄새가 배겨 잘 없어지지 않는데 신기하게도 벗겨낸 껍질에 물을 담아 손을 씻으면 냄새가 없어진다고들 한다. 진짠지 가짜지는 안해봐서 모르겠다.

두리안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었다.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다.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망고다. 간혹 커피숍에서 망고주스를 파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과일로 이것도 사람에 따라 특이한 향이 있다고 한다.

다음 과일은 람부탄! 보기에 따라 특이한 외모를 하고 있는 과일이다. 인도네시아어로 람붓은 털을 뜻한다. 빨갭게 익은 털의 외부에 머리카락처럼 꺼뭇꺼뭇한 털이 돌아나 있다. 빨간색과 노란색이 있는데 노란색이 더 달고 맛있다. 껍질을 손으로 쏙 까면 투명한 속살이 나오는데 무척이나 달고 맛있다. 우리의 베스트 열대과일 5에서 3위를 차지한다. 단점이라면 이 속살이 안의 씨껍질과 같이 붙어 있어 껍질과 같이 먹을 때 꺼끌꺼끌한 맛이 나기도 한다. 뭐 어쩐가! 맛있으면 그만이지! 안 그런가? 우기에 많이 볼 수 있는 과일이다. 우리

나라 슈퍼에 가면 간혹 껍질을 까놓은 통조림도 있다. 단 맛이 강해서 개미가 많이 모여들기도 하니까 조심해야한다. 람부탄을 파는 시기가 되면 길거리 곳곳에 람부탄을 파는 장사들이 뱅뱅하게 들어선다. 털이 검게 변하지 않은 것이 싱싱한 것이다.

파파야는 무척이나 큰 과일이다. 열대과일이 다 그렇듯이 이 과일도 특이한 향이 있다. 우기건기 구별없이 항상 있는 과일이다. 소화제로도 많이 먹는데 이걸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 와서 먹었던 것이 소화가 안되면 소화제 먹지 마시고 이 과일을 한번 먹어보라. 덩치에 비해 가격은 싼 편이고 인도네시아 인들이 많이 먹는 과일 중에 하나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 나뭇잎을 삶아서 먹기도 하는데 무척이나 쓰다. 피를 정화시키는 약이라나 어떤데나... 아무튼 전 아무거나 다 잘 먹었기 때문에 소화제가 필요없어 안 먹어봤다.

시르삭이라는 과일은 다들 침 들여보았을 것이다. 아주 뚱뚱하고 못생긴 오이처럼 생겼는데 잘 익은 것은 껍데기를 누르면 물렁물렁 푹푹 잘도 들어간다. 사실 난 생긴 것 땀에 먹기 싫어서 안 먹었는데 그냥 먹기보다는 주스를 만들어 많이 먹는 편이다. 이름하여 시르삭 주스! 하얀 색깔이지만 그 맛이 시큼하고 달콤한 풋 딸기 맛이 난다.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더욱 더 맛있다고 한다. 한번 먹어볼걸 그랬다. 만약 여행을 가셨을 때 음식점에서 이 시르삭 주스가 있다면 꼭 맛보길 바란다.

알보카도라는 또 이상한 이름의 소유자 과일이 나왔다!! 망고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더 윤기가 흐른다. 이 과일도 그냥 먹는 것 보다 주스를 만들어 먹는 편이다. 주스가 물 같은 것이 아니라 물을 많이 탄 초록색 반죽 같다. 보통 음식점에서는 초코시럽을 주스에 둘러서 주는데 스푼으로 잘 섞어서 먹으면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공복에 한잔 먹으면 밥 먹은 것 같이 든든한 느낌이 드는 과일이다.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과일은 아니다.

마르키자. 마르키자 주스를 엄청나게 좋아한다. 가족중에 누구 하나가 인도네시아에 다녀올 때마다 이 과일로 만든 주스를 가져오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을 다 대접할순 없겠지만 언젠가 우리집에 왔을 때 마침 마르키자 주스가 있다면 꼭 한잔씩은 대접하고 싶은 주스이다. 주황색의 오렌지 크기의 미끈한 과일이다. 손으로 힘 주어 까보면 안쪽에 정말 개구리알처럼 생긴 많은 알맹이가 가득 차 있다. 씨까지 다 먹어도 상관없지만 껍질은 좀 곤란하다. 개구리알 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찹찹하지만 먹어보면 아마도 개구리알을 씹으면 이런 맛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아주 달고 하나하나 씹히는 맛이 특이하다.

살락. 생긴 것이 곡 뱀 껍질 같이 생겨서 스넥스킨 이라고도 부른다. 처음 보면 징그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까보면 큰 마늘 같은 것이 나온다. 사람에게 따라 “무슨 맛이 이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계속 씹다 보면 단 맛이 있다. 마늘같이 생긴 알맹이 겉에 얇은 막이 있는데 이 막에 영양소가 많이 있다고 한다. 이 막을 먹으면 변비에방에 좋다고 하던데... 아무튼 간에... 벗겨내지 말고 먹도록 하라. 먹다보면 큰 씨가 나오는데 큰 씨는 당연히 버려야 한다. 살락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살락 폰도가 맛도 좋고 제일 유명하다. 살 때 줄기까지 같이 붙어 있는 것을 구입하라. 더 싱싱하고 단맛이 난다. 조금은 서늘한 기온에서 잘 재배되는 과일이다. 껍질을 벗겨서 먹다보면 알게 모르게 손끝이 가시 때문에 갈라진다.

마지막으로 망기스. 망고스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과일은 우리의 베스트 열대과일 5에서 2위를 차지하는 아주 맛있는 과일이다!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는 망기스.. 두리안이랑 사귀나보다. 특별한 향이 없기 때문에 처음 먹는 사람들도 부담없이 좋아한다. 망기스는

모양이 아주 동글동글하고 살짝 감을 닮았다. 껍데기는 아주 두껍고 진한 빨간색과 보라색을 섞어놓은 듯한 아주 어정쩡한 진한 붉은색을 띤다. 내용물은 아주 말랑말랑하고 물기가 많으며 마늘쫑과 비슷하고 흰색이다. 비교적 가격이 비싼편이다. 특히 이 과일 껍질에서 묻어나오는 빨간즙은 빨아도 빨아도 안 지워지기 때문에 껍질을 벗길 때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우리 음식문화와의 비교

(1) 일반적인 특징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기본적인 주식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쌀이고, 음식에 다양한 향신료를 첨가하는 것이 그 나라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어느 거리에나 과일, 스낵, 주류 등을 늘어놓고 장사하는 포장마차가 많은 것도 인도네시아 음식 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음식은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

자카르타 및 자바 지역은 쌀로 지은 밥이 주식이며 부식으로는 육류, 채소, 생선을 이용한 다양하고 풍요로운 식생활을 하고 있다. 이 곳에는 서구식 풍습이 유입되어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식생활 모습과 근대적인 식생활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서부 수마트라 지역의 주식은 밥과 “카사바”라는 식물을 삶은 것이라고 한다. 강한 향신료를 이용하며 특히 고추와 여러 가지 매운 양념의 사용이 두드러져 음식의 색깔이 노란색을 띠며 매운 맛을 낸다. 이 지역 중 “파당”이라는 지역의 음식이 특이한데 뱀, 닭, 생선 등을 “터머릭”이라는 양념으로 노란색을 내어 튀겨서 식용하고 있다.

남부 셀레베스 지역의 주식은 옥수수 가루로 만든 죽이며, 생선을 바나나 잎에 싸 후 시루에 수증기로 찐 음식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술라웨시 지방에서는 쥐를 불에 구워먹는 요리가 있다.

서부 이리안자야 지역의 주식은 사고가루로 만든 죽이며 아직까지도 일부 지역은 야생의 채소와 사냥으로 잡은 동물을 통째로 구워 먹는 식생활 풍습이 남아있다.

발리의 주식은 쌀로 지은 밥이며 힌두교식 식생활이 발달하여 쌀로 만든 튀김과자와 꽃을 차려 매일 몇 차례씩 사당에 제를 지낸다. 일반적으로 수마트라섬과 셀레베스섬의 음식은 맵고, 자바섬은 달며, 갈리만탄섬은 신맛이 강하다. 참! 인도네시아 음식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 더! 주된 양념이 땅콩 소스라는 것이다.

(2) 특징적인 음식들

인도네시아는 다민족, 다종교 국가인데다 오랫동안 세계 열강의 지배를 받아온 탓에 음식의 종류나 맛이 다양하다. 인도네시아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은 찌게나 끓여 만든 밥에,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와 익힌 해산물과 야채를 곁들여 먹는 것이다. 이때 간장, 마늘, 고추, 생강, 코코넛, 레몬 잎, 새우를 이용한 양념등이 주로 사용된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향이 너무 강해 우리 입맛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한다. (이걸 확신할 수 없는건 내 입맛엔 맞았기 때문에..-_-;)

(3) 열대과일

아까 내가 소개했던 열대과일은 한국으로 가져올 수 없다. 포장을 정말 잘 한다면 간혹

통과할 수도 있겠지만 걸리면 모두 압수되어서 현장에서 공항내에서 즉시 비참하게 분쇄기에 갈려버린다. 열대과일들은 아까 내가 몇가지 특징적인 음식들을 우리나라 음식들과 비교했던 것처럼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워낙 제각각인데다가 우리나라엔 열대과일과 비교할 과일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가지 비교를 하자면 수박과 수입한 메론, 그리고 바나나를 비교할 수 있다.

수박은 한국만큼 달지는 않지만 맛있는 편이다. 속이 노란색 수박도 있다. 맛은 빨간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색소를 탄 것도 아닌데 속만 노란 것을 보면 신기해서 먹어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메론은 두말할 것 없이 한국에 있는 것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달고 맛있다. 껍질에 그물처럼 생긴 망의 간격이 넓을수록 잘 익은 것이라고 한다. 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은 파인애플인데 정말 달고 맛있다. 우리나라에서 먹는 통조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시장에 가면 친절하게 껍질까지 까놓은 파인애플을 정말 싼 가격(한국 돈으로 100에서 200원 사이)에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임산부들에게는 좋지 않은 과일이기도 하다. 바나나는 한국에 수입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맛이 난다.

IV. 결론-인도네시아 음식과 한국 음식의 비교

인도네시아는 다민족, 다종교 국가인데다 오랫동안 열강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음식 문화 역시 동서양의 맛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음식은 중국요리와 인도요리, 태국, 베트남 요리 등 동남아와 서남아시아, 그리고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음식을 다 섞어두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요리에는 열대기후에 잘 적응하기 위한 토속적인 조리법을 사용하여 그들만의 독창적인 인도네시아 스타일의 요리가 완성된다. 우리나라는 서양 음식점이 고유음식점 못지않게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으므로 서구화 된 음식점이 많지는 않지만 꽤 있다.

결론적인 비교를 하겠다.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인도네시아의 음식은 향이 아주 진하다. 또 인도네시아에는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같은 서양음식점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식 쌀은 찰기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쌀은 찰기가 없어 푹푹 날린다. 또 우리나라는 요즘 농약 때문에 난리들이지만 인도네시아는 토양이 화산암 질이라 농약을 치지 않아도 곡식들이 잘 자란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도 때문에 돼지고기를 잘 먹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돼지고기가 거의 주식일 만큼 많이 먹는다고 한다.

V. 논문을 끝내며...

이렇게 권유리의 인도네시아 음식과 한국음식의 비교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원래 논문이 아닌 작품으로 뮤직비디오를 내려고 했었습니다. 반 이상 찍었었는데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펍크가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9월 초에 좀 늦은감이 있긴 했지만 주제를 새로 잡았습니다. 다른 친구들 몇 달 동안 준비하고 있는 걸 한 달 안에 다 끝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아주 힘들었던 기억도 있구요. 하루에 컴퓨터 14시간씩 붙잡고 씨름을 했던 기억도 있었지만 이렇게 논문을 끝내고 나서 느끼는 이 쾌감이 지난 시간의 힘듦을 싹~ 지워주네요. 저한테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논문을 끝내고 나니 이제 졸업이구나 하는 생각에 씩씩하네요. 남은 2개월이라도 우리 동생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님들께 잘 해야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권유리의 인도네시아음식과 한국음식의 비교였습니다!

special Thanks To.. 우선 나의 힘의 원천인 현기님, 따뜻한 우리가족, 이 논문을 도와준 우리엽기이모, 그리고 국어선생님이신 재화 아버님과 손쌤, 슈퍼울트라지니, 함께 힘들어했던 중3친구들과 라탱.. 힘들때면 어느샌가 곁에 다가와 힘이 되어주었던 예쁜 우리 뿌띠와 카리쓰마 붕, 귀여운 후배들과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김강산]

-논문의 주제나 목적하는 바가 매우 개성적이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추구하는 세계를 나름대로 보여주고자 했다. 한편의 글로 조직하고 의견전달이 미숙하여 준비한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

-열심히 찍고 노력하고 준비한 것 같고 요즘은 혼치 않고 대부분 쓰이지 않는 흑백사진에 대해 다뤄 줌 특이했다.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한 것 같다. 발표할 때 소리가 작았다. 사진도 잘 찍은 것 같다.

[오보록]

-자신만의 독특한 관심분야에 대해 소박하지만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음. 준비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요령 있게 전달해주어음.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주관적인 생각이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똑같은 비슷한 말을 많이 했다. 준비를 많이 했다. 너무 영화만 예를 들어 설명한 것 같다.

-특수 분장이라는 주제를 다뤄 특이하고 실습에서도 신기했고 아직은 부족한 듯 했지만 사실감이 있고 좋았다.

[배이삭, 안지은]

-글 쓰는 친구와 그림 그리는 친구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냈다. 학교교정의 내부에서 모티브를 찾는 다는가, 유아를 위한 동화라는 점에 대한 문학적 조사, 서로의 생각을 함께 조화 시킨 점이 높이 평가된다. 앞으로 이론적 공부를 덧붙여 작업한다면 많은 가능성을 드러낼 것 같다.

-직접 동화를 만들어서 부여주고, 동화의 역사와 자신들의 생각을 잘 얘기했다. 자신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논문 주제로 정한 것이 좋다.

-합작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간다. 세대별, 종류등 하나하나 조사를 많이 한 것 같다. 알기쉽게 설명을 해주었다. 동화를 들려줬으면 좋았을 듯 싶다.

[김슬기]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진 음악의 장점을 잘 끌어 들었다. 하지만 이해가 쉽게 되지 않게 해서 아쉽다.

-논문의 동기가 음악적 소양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제시하였음. 새로운 음악적 경향에 대한 사회적, 종교적 논란에 대해 나름의 입장을 근거를 제시하여 반박하

였다. 결론이 분명했다.

-잘 아는 음악을 들려줘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반론이 좋았다.

[하태우]

-서열이 정해져 있는 기업 아닌 공동체로 이루어진 기업을 만들자 라는 것이 인상적이다

-학교의 특수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주제이다. 간디학생만이 생각해 볼 수 있고, 간디 공동체가 앞으로 성취해야 할 과제이자 비전을 담은 내용이다. 소신과 전망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학생신분으로 제시할 내용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했어도 좋았겠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도 잘 설명했다. 간디company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잘 제시하였고 따라야하는 정신도 잘 제시하였다.

[함 경우]

-자신의 취미생활에서 얻은 생각을 주제로 삼았고, 체험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 주었다. 현실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자신의 작업이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에 대한 부각이 미흡했다.

-폐품을 이용한다는 것이 이제는 별로 특이하지 않지만 양초나 장난감이나 지우개로 모형을 만든다는 게 놀랍다.

-쓰레기나 필요 없는 물건이 다시 활용되는 게 좋았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라운하]

-너무 설명만 나열되어 약간 지루했다. 허브로 약을 만들면 자연친화적이라는 부분이 괜찮다. 한교 근처에 허브를 어디어디에 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마음에 든다.

-학교에 입학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의 의의를 살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 논문이라는 점이 평가된다. 가능한 방법위주로 제시하다보니 자신의 독창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 허브가 우리 몸에 이롭다는 것을 알아 좋았다. 허브 종류를 사진으로 보여줬으면 좋았을 듯 싶다.

[김난슬]

-전문적인 지식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현실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한, 색다르고도 실질적인 논문이다. 설문지 조사를 하고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도 평가된다. 자료의 결과를 보다 다채롭고, 치밀하게(객관성 있게) 해석했다면...

-간디학교 학생들의 체질을 알아내고, 학교의 성향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

을 제시했다.

-간디학교 학생들의 성향과 비교를 자세히 설명 해 주었고 체질의 성격들을 제대로 말해주었다.

[김한솔]

-주제는 좋았지만 그 시대의 건축물, 책 등에만 집중된 것 같다.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 전혀 적힌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지 못했고 너무 구체적인 내용만 말했다.

-무엇을 설명하는지 전달이 잘 되지 않았다. 조사한 것을 그냥 읽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자신의 생각을 별로 나타내지 않았다. 조금 어려운 주제를 마음대로 많이 노력한 것 같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윤재형]

-자신의 취미를 바탕으로, 논문의 동기, 목표를 뚜렷이 제시하였다.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한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향토(자신이 경험한)음식의 정체성을 드러내려 하는 점이 돋보인다. 실습경험을 논문주제로 긴밀하게 연결시키지 못한 점은 결함이다.

-우리 주위에서 흔한 음식이지만 그 중에서 향토음식에 대해 다뤄 좋았고 경상도지방의 음식이 왜 맵고 짠지 알았다.

-향토음식에 대해 그리 관심은 없었지만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은 향토음식이란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열심히 준비 많이 한 것 같다.

[김보현]

-평소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 주제를 설정하고, 동료들의 관심사가 어떤지 실제조사를 통해 밝혀보려 하였다. 미흡한 점은 어떤 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다.

-애니메이션의 시초에 대해 알았고 애니메이션에도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미있고 우리나라 대라면 다 좋아할 애니메이션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아쉽다. 그래도 준비를 많이 했다.

[정사랑]

-주제에 대한 충분한 소양과 남다른 경험으로,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일정한 수준의 내용을 보여주었다. 영화에 대한 문제의식, 자신의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이 돋보인다.

-단편영화는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독립영화라는 건 모르고 있었다. 근데 독립영화가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었다. 정말 준비 많이 한 것 같다.

- 내용에 대한 설명, 자신의 견해와 느낌을 잘 말했고, 영화도 내용과 제목이 일치하여 잘

만든 것 같다.

[권유리]

-조금 새로운 인도네시아를 주제로 해서 나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설명했다. 서론이 너무 길었다. 인도네시아의 음식을 다룬 것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의 전체적인 환경을 다룬 것 같다. 자세한 것까지 잘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음식의 전체적인 특징보다 하나한의 특징을 세세하게 설명, 인도네시아 여행 가이드북 같다.

-남다른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와 비교한 특색 있는 논문이다. 인도네시아 음식 문화에 대한 정보는 체계를 갖추어 소개했는데, 우리의 것과 비교하는 내용이 미흡하여 논문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름만 듣고 그 다지 관심가지지 않는 나라 였는데 말을 듣고 음식, 음식점, 자주 쓰는말 생활등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발표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웠다.

2002학년도

간디 청소년 자유학교 졸업논문집

편집 장인혜

담당자 태영철T

편집마감일 2003년 2월 15일

“논문은 나누어 저장, 디스켓은 소중히”